

2017년 하반기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 일시 : 2017년 11월 4일~12월 2일
(매주 토요일, 9:30~16:20)
-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2017년 하반기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일정표

날짜	교시		강의주제	강사
2017년 11월 4일 (제1일)	9:20~9:30		등록 및 개강식	김현철 교육연수원장
	9:30~12:30	1교시	동아시아사를 통한 역사 인식의 확장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12:3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동아시아 속의 중국 상고사	심재훈 단국대학교
11월 11일 (제2일)	9:30~12:30	1교시	일본 근세사(近世史)의 이해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12:3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고대사를 보는 시각과 쟁점	하일식 연세대학교
11월 18일 (제3일)	9:30~16:20	전일	경기도 파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역사유적지답사 - 경기도 파주 일대)	정용서 연세대 동은의학 박물관
11월 25일 (제4일)	9:30~11:00	1교시	중국 정사의 편찬과 외국전 이해	김정희 동북아역사재단
	11:00~12:30	2교시	발해의 역사와 문화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12:30~13:30		점심시간	
	13:30~16:20	3교시	일본 근대사와 한일관계	현명철 국민대학교
12월 2일 (제5일)	9:30~12:30	1교시	중국교과서를 통해 본 중국근대사	김지훈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2:3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동아시아 시각으로 접근하는 역사 수업	윤세병 유성생명과학고
	16:20~16:30		수료식	김현철 교육연수원장

목 차

동아시아사를 통한 역사 인식의 확장 9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9
동아시아 속의 중국상고사: 한민족의 위대한 상고사 환상 깨기 33 심재훈 (단국대학교)	33
일본 근세사(近世史)의 이해 - 센고쿠시대 · 에도시대의 일본을 가다 - 73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73
고대사를 보는 시각과 쟁점 - 상고사 논란을 중심으로 - 93 하일식 (연세대학교)	93
경기도 파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 109 정용서 (연세대 동은의학 박물관)	109
중국 정사의 편찬과 외국전 이해 125 김정희 (동북아역사재단)	125
발해의 역사와 문화 137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137
일본 근대사와 한일관계 - 동아시아 해역을 중심으로 - 147 현명철 (국민대학교)	147
중국교과서를 통해 본 중국근대사 159 김지훈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59
동아시아 시각으로 접근하는 역사 수업 175 윤세병 (유성생명과학고)	175

동아시아사를 통한 역사 인식의 확장

•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

동아시아사를 통한 역사 인식의 확장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1. 동아시아사를 통한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민화

최근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대적 한계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과 역사 서술이다.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과 서술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을 한민족을 주어로 한국사라는 일국사적인 맥락에서만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있다. 동아시아의 지각 변동을 불러 온 7세기 동아시아 전쟁사를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맥락으로 해석하는 경우나, 17세기 동아시아 전쟁사를 왜란과 호란 등으로 부르면서 외세의 침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근대사 연구와 교육에서도 제국주의 열강 간 세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일본이 외교와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줄타기를 거듭하며 한국을 강점한 사태를 일본의 집요한 침략 야욕의 결과로만 해석하고 교육하는 반일 프레임을 여전히 위력적이다. 한국현대사 연구와 교육 역시 독재, 민주화, 경제 성장, 통일이라는 민족사적·일국사적 차원의 화두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민족 정체성을 가진 국민 형성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과 서술이 극복 대상이 된 것은 그것이 세계화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라는 현실을 담보하며 앞으로 다가올 삶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찰에서 민족과 국민이 아닌 보편적 집합 주체인 시민에 주목하여 한국사, 특히 한국근현대사를 재구성하고 한국사 교육을 시민교육으로 개조하려는 흐름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민화로 정의한다고 할 때, 이는 곧 민족주의적인 자국사의 경계를 넘어 시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계사·보편사로서의 한국사를 지향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세계화·다문화 시대를 맞아 민족과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애국(애족)주의를 넘어 평화와 인권에 기반한 세계시민주의를 추구하는 흐름이 차츰 강화되고 있는 추세

다.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상호배타적인 대립항으로 설정하고 전자를 극복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흐름과 함께 양자 간의 연대를 내세우는 흐름도 존재한다. 아직은 민족주의적 속성이 강한 한국사 연구와 교육이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역시 이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적 역사학과 역사교육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사의 세계사화, 세계사로서의 한국사를 지향한다고 할 때, 아직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현실에서 그와 관련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동아시아사를 통해 한국사의 주체와 범주를 확장하면서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과 서술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모색은 담론 수준의 제기와 함께 역사 재구성 작업을 시도하는 단계까지 진전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역사교육 현장에서 ‘동아시아사’가 선택교과목으로 자리잡아 한국사는 물론 중국사, 일본사, 베트남사 등을 포괄한 동아시아의 역사가 교수되고 있다. 민족주의적 역사인식과 서술을 뛰어넘어 시민적 역사학과 역사교육으로 가는 경로에 동아시아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민족주의적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동아시아 담론이 활성화되고 동아시아 공동역사서가 만들어지고 ‘동아시아사’가 역사 교과목으로 선택되는 일련의 흐름이 거의 동시다발로 일어났다.

2. 시민적 역사학 : 민중, 민주주의, 그리고 동아시아

한국사 연구의 민족 중심의 역사 체계, 소위 국사라는 틀에 제일 먼저 반기를 든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의 서양사학자들이었다. 그들은 기존의 민족주의 사학이 민족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전근대 시기부터 민족사의 허상을 그려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의 토대가 된 민족주의는 지금까지 동아시아 삼국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국내적으로는 독재 권력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활용되는 등 악용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21세기를 맞아 민족주의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강요한 국사의 서술 체계를 해체할 것을 제안했다. 즉 우리의 생활세계가 더 이상 민족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된 21세기에서 우리 기억의 장을 민족으로 축소하는 국사 패러다임은 시대착오라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학에 뿌리 내린 국사 패러다임은 한국 사료만으로 한국사를 구성하는 것을 당

연시할 만큼 강고하다. 가령, 제주도의 경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가며 역사를 형성해 온 섬이라는 공간이다. 그런데, 제주도‘사’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등 한국 사료들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다. 중국, 일본, 혹은 동남아시아 각국의 역사자료에 등장하는 제주도에 관한 기록은 외면한 채 한국사의 기존 틀에 맞춰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생산된 사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 연구의 풍토에 대해 국사 해체론자들은 이제껏 역사학자들이 민족의 자장과 범주를 넘어선 역사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한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의식을 결여했던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 결과 국사 패러다임에 갇힌 역사학자들이 한·중·일 삼국 간의 역사 분쟁이라는 현실 문제 앞에서 이를 한국사를 성찰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학계는 이러한 민족주의 폐기와 국사 해체의 주장에 쉽게 동조하지 못했다. 그것을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탈민족주의 담론으로서 일시적 유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일방적 거부감과 비판을 딛고 한국사의 연구 풍토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역사 해석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서서히 일어났다.

가장 먼저 한국사 연구 밖의 국사 해체론자들의 비판에 화답한 것은 한국근대사 연구자들이었다. 한국 근대사는 경제사학계와 수탈론 대 식민지근대화론이라는 전선을 형성하며 비교적 활발한 논쟁을 전개한 바 있었다. 역설적이지만, 그 논쟁이 한국 근대사학계를 스스로 돌아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근대사학계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 연구에서의 성찰적 역사 해석 역시 민족주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에서 출발했다.

식민 경험의 산물이겠지만, 한국 근대사는 유달리 수탈=일본의 식민 지배=악, 저항=독립운동=선이라는 강고한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식민 정책사와 독립운동이 한국 근대사 연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 이분법적 구도 자체가 확고부동한 민족주의 입장에서 나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 민족주의적 입론은 폐쇄적인 연구 방식을 낳았다. 식민 정책사는 식민 모국인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 없이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사료만을 분석하여 재구성되었다. 독립운동 역시 타국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독립운동, 심지어 무장독립운동까지 가능했는지 전후 맥락에 대한 분석 없이 오직 주인공이 한국인이면 독립운동으로 간주하는 역사상이 구성되었다.

한국 근대사 전공자인 윤해동은 민족주의 역사 인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 식민지는 일국적이고 자족적인 정치·경제·사회적 단위가 아니라 제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제국과 식민지는 상호 작용하는 하나의 연관된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관의 고리를 끊고 식민지 조선 안의 역사만으로 식민정책사를 연구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둘째, 오늘날 사회 운동이 근대화의 산물이자 식민 지배기 사회 분화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동 발생의 근대적 측면을 오로지 민족주의로만 귀속시켜 독립운동=민족운동의 일원으로서만 파악하는 편향적 역사인식을 비판했다. 셋째, 이러한 수탈과 저항의 이분법적 민족주의 역사 인식에 의해 말소되어버린 식민 지배하의 일상생활이 작동하는 역사의 광범한 틈새를 회색지대라 명명했다. 이제는 그 회색지대에 주목하는 역사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소장학자들은 이와 같은 이분법적 도식에 입각한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해체하려는 고민을 적극 수용하면서 1980년대의 계급주의적 민중사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민중사'를 제안했다. 이들은 1980년대 민중사학이 '과학적·변혁적 민중론'이라는 규범성·도식성에 갇혀 민중의 실상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한 채 변혁을 지향하는 지식인이 스스로 염원하고 있던 민중상만을 그려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민중사학이 실현하고자 했으나 결국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근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견지하는 새로운 역사학의 관점과 방법론을 수용하여 민중을 변혁주체가 아닌 피지배층, 하층민,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을 지시하는 개념, 즉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모순을 느끼고 그것에 저항하는 존재로 정의했다.²⁾ 이처럼 한국사학계에서 제기된 탈민족주의적인 역사 인식에 일상사, 문화사, 생활사 등 1990년대 이후 부각된 신문화사를 접목시켜 민중의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민족이 아니라 민중을 주체로 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것을 천명한 '새로운 민중사'에서 시민적 역사학으로서의 고민과 모색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다.

한편, 역사학의 민족주의적 편향성이 가져온 폐해 중 하나는 민주주의를 역사화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사 연구는 반봉건, 근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등의 잣대를 준거로 역사상을 구성해왔다. 이 중 민족주의가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많은 사건과 인물의 행적이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해석되어왔다. 민주주의가 홀대받은 것은 그것이 국권 상실과 함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졌고, 해방 이후에야 미국에 의해 이식된 제도라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즉 민족주의는 한국 근대를 움직인 가장 강력한 내적 동력으로 평가받은 반면에, 민주주의는 외적 계기에 의해 이식된 선진적인 제

1) 윤해동,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2007, 52쪽

2) 이용기, 『민중사학을 넘어서는 민중사를 향하여』, 『민중사를 다시 말한다』, 역사비평사, 2013 참조

도라는 탈맥락적이고 몰역사적인 선입견으로 인해 이제껏 살아 숨쉬는 역사적 실체로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오늘의 한국적 현실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온 이념체계라는 데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주의의 역사성 규명은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성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이식된 제도라는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가치·신념과 행동 간을 매개하는 그물망, 즉 문화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하는 연구가 최근 시도되고 있다.³⁾

주목할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화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에 앞서, 역사학의 민주화, 즉 역사학계에 권력 역사학에서 시민 역사학으로 나아가 진보성을 회복하는 문화 혁명을 요구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이다. 임지현은 이제껏 역사학은 권력의 역사학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역사학은 공공의 역사학으로서 시민의 역사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역사학이 시민사회에 자신의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편에서 역사로서 국민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권력의 주체인 민중이 납득할 수 있는 역사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그가 말하는 시민의 역사학이란 대중의 생활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는 참여민주주의, 지역자치운동, 페미니즘운동, 녹색운동, 평화운동 등 정치권력과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다양한 흐름의 시민사회운동과 접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는 역사학을 의미한다.

민족 혹은 국민적 역사로서의 일국사의 외연을 넓혀 시민적 역사학으로서의 동아시아사를 모색하는 새로운 담론 공간에는 동양사학자들도 가담했다. 유용태는 일국사로는 포착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사가 갖는 의미에 주목했다.⁵⁾ 지구사 혹은 보편사적 맥락에서 동아시아/동아시아사를 위치지우려는 동양사학자도 있었다. 백영서는 서구에 대한 동아시아라는 주변의 눈과 동아시아 내부 위계 질서 속의 주변이라는 이중적 주변의 시각으로 동아시아를 재해석할 것을 제안했다.⁶⁾ 임성모는 ‘주변’을 공간으로서의 변경, 경계, 지방을 뜻하는 동시에 주체로서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 민중 등 기존의 주류 역사학에서 은폐되거나 소외당해온 공간과 주체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주변’이 갖는 다층성과 다원성에 주목하는 프론티어 히스토리로서의 동아시아 역사상을 제안했다. 반면 강진아는 변경에 역사서술의 주권을 부여하려는 프론티어 히스토리로서의 동아시아사에 대해 회의를 표명하며 동아시아사를 글로벌 히스토리의 일부라는 시각에서 재구성할 것을

3) 김정인,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책과함께, 2015 ; 김정인,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책과함께, 2017

4) 임지현, 「권력의 역사학에서 시민의 역사학으로」, 『역사비평』46, 1999, 62쪽

5) 유용태, 『한호 속의 경중 :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2006, 481-482쪽

6)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0, 30-37쪽

주장했다.⁷⁾ 이렇듯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동아시아사가 자국가·자민족 중심의 일국사를 탈피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혹은 세계사·지구사의 일부로서 주목받고 있다.⁸⁾

동아시아사가 시민적 역사학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는 학자만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사회가 실천 주체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민족주의·국가주의적 역사관 간의 충돌로 동아시아 내에서 역사 전쟁이 본격화되는 2000년대에 들어 한·일, 한·중·일 간에는 시민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역사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통신사』(2005), 『미래를 여는 역사』(2005),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2005), 『마주보는 한일사』Ⅰ·Ⅱ(2006), 『한일교류의 역사』(2007),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2012), 『한국과 일본 그 사이의 역사』(2012), 『마주보는 한일사』Ⅲ(2014) 등의 공동 역사서는 그러한 동아시아 시민 역사 대화의 산물이다. 정부 간 역사 대화로는 업두도 못내는 풍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도 시민 역사 대화를 통해 동아시아 시민 혹은 민중을 주체로 한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상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지금 역사학계에는 탈민족주의 역사학 논의로부터 ‘새로운 민중사’, 민주주의 역사학, 동아시아사 모색 등에 이르기까지 민족주의 역사 인식을 극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민적 역사학을 모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경로들이 등장하고 있다. 동아시아사 역시 시민적 역사학의 길을 열어가는 주역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3. 시민적 역사 교육 : ‘역사’ · ‘동아시아사’의 탄생

한국사 연구가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때, 한국사 교육을 골간으로 하고 있는 역사교육 역시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역사학이 학문의 특성상 개별 혹은 집단 지성의 차원에서 관점과 방법론에 있어 편차를 보이며 변화를 추구했다면, 역사교육은 국가 주도의 교육 과정 개정에 반영하는 근본적인 전환을 꾀했다.

제7차 교육과정까지 역사교육의 골간은 국사와 세계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국사와 세계사의 구분은 한국에만 고유하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그것은 서구의 근대를 모방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했던 동아시아 국가들

7) 임성모, 「주변의 시선으로 본 동아시아사」, 『역사비평』79, 2007; 강진아,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현대 동아시아 경제사」, 『역사비평』79, 2007 참조

8) 하세봉, 「동아시아 역사상, 그 구축의 방식과 윤곽」, 『역사학보』200, 2008, 7쪽

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서구 근대 역사 개념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포괄하는 보편사를 지향했다면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의 근대 역사 개념은 그러한 서구 보편사에 대항해서 민족사의 정립을 목표로 성립했다. 유럽 교과서는 일반사로서의 역사와 자국사로서의 국사를 분리해서 서술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사와 세계사를 분리해서 역사 교과서를 서술한다.⁹⁾ 사토우 마나부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양자 모두 내셔널리즘의 주술에서 탈피하지 못한 독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 서술에서 내셔널리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무도한 시도이긴 하지만, 내셔널리즘의 주술로부터 해방시켜 대화의 서술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교육이 국민 교육에서 시민성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역사교육계는 이러한 자국사·자민족 중심의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며 2007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종래의 ‘국사’ 교과목의 이름을 ‘역사’로 개정하는 형식상의 혁신을 꾀했다. 내용적으로도 민족국가사적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주변 국가들과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화 시대에 자국사 중심의 역사교육을 벗어나야 한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상의 혁신안을 담아 낸 ‘역사’ 교과목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인류의 삶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과거와 연관지어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삶에 관하여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과목이다. …(중략)…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인간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나아가 과거와 현재, 나와 타인의 삶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이러한 ‘역사’의 탄생은 민족이나 국민이 아닌 ‘인류로서의 인간’을 주체로 한 성찰적 역사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역사교육 시민화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사 중심으로 한국사와 세계사를 병렬적으로 서술한 중학교 ‘역사’와 달리 고등학교 ‘역사’의 경우는 특히 한국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하되 세계사 내용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한국사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한국사 이해에 도움이 되는 개념을 학습 내용으로 포함한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사의 전개를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비교하고 반성적으로 돌아보자는 문제의식

9) 김기봉, 앞의 책, 177-178쪽

10) 사토우 마나부, 「독백의 역사에서 대화의 역사로」, 『일한 역사교과서의 현재와 미래』(도쿄대학교 심포지엄 자료, 2005.4.6)(김성보, 「민족·국민사와 동아시아사의 접맥」, 『역사와실학』32, 2007, 834쪽에서 재인용)

이 담겨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사와 관련성이 높은 동아시아사를 좀 더 비중있게 다루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가 세계사의 흐름이나 이웃나라와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역사’의 성격, 목표, 내용 등을 분석한 김육훈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역사’과목은 교육과정을 제정하는 이들-국가가 설정한 민족 정체성 혹은 국가 정체성을 내면화하려는 국사(national history)와 다르다. 세계에 의해 관계 지워지는 국사의 존재를 파악하고, 자국사의 경험을 다른 나라 역사 경험에 비추어 되새겨 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미래를 발견하려 한다. 민족 국가 차원 이외에 다양한 층위의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다른 차원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자는 문제의식이 담겼다.¹¹⁾

그런데, ‘역사’를 통한 역사교육의 변화 모색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2009년 12월 17일 2009년 개정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여 고등학교 ‘역사’가 근현대사 분량을 줄이고 2개의 전근대 단원을 넣은 ‘한국사’로 급조되면서 사실상 좌절되었다. 시민적 역사교육 차원에서 추진되던 한국근현대 중심인 ‘역사’의 통사 체계인 ‘한국사’로의 후퇴는 한국근현대사 교육을 백안시한 이명박 정부와 통사 체제의 역사교육을 선호하는 한국사 연구자들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역사’를 통해 시민적 역사교육을 실현하고자 한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연구소 등 시민사회 차원에서 역사 교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적 역사교육을 모색하는 풍토가 마련되어갔다. 김육훈은 지금까지 역사교육이 민족교육이라는 점에서 주로 접근되었고 민주주의 교육이란 관점에서는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민주주의 교육은 주로 사회과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사회과에서는 민족보다 시민을 강조했고, 시민성이나 민주 시민의 자질이란 개념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접근하면서 역사가 너무 많은 사실을 가르치는데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제도화된 민주시민교육은 현실의 민주주의 질서에 효과적으로 시민을 통합시키는 것을 일차적 과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적 역사교육은 사회과에서 이루어낸 민주시민교육의 성취를 올바르게 수용하되, 현실적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제도와 개별 구성원의 실천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¹²⁾

이처럼, 역사교사를 주축으로 민주주의적 역사교육을 모색하는 데는 일본 역사교육자협

11) 김육훈,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과 근현대사 교육」, 『역사와교육』1, 2009, 73쪽

12) 김육훈, 「민주주의와 역사교육」, 『역사교육』87, 2009

의회(이하, 역교협)와의 교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역교협은 일본에서 패전 후 군국주의 교육을 청산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교육 개혁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탄생한 역사 교사 단체로 민주 시민 양성에 기여하는 역사교육을 위해 역사과 독립에 반대한다. 역교협과의 교류는 역사 교사들에게 민족 편향적 폐쇄성을 갖는 역사교육은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보편 가치를 구현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¹³⁾

이처럼 동아시아 차원의 역사 교사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스스로의 자국사 교육을 돌아볼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데는 2001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으로 불거진 동아시아 역사 갈등이 각성제이자 자극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일본 후쇼샤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발간, 2002년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 일련의 사건이 야기한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역사 교사들은 일국사적 역사 인식이 가져오는 폐해를 성찰하면서 동아시아 시민 혹은 민중을 주체로 하는 공동 역사서의 발간을 위한 역사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조선통신사』, 『한국과 일본, 그 사이의 역사』, 『마주보는 한일사』등의 성과물을 내놓았다. 동아시아 역사 대화에는 역사 교사만이 아니라,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등의 한중일 공동 역사서를 발간하는 등 동아시아 차원에서 시민적 역사교육의 장을 열어나갔다.

이러한 동아시아 역사 갈등에 대한 성찰이 자국가·자민족 중심의 한국사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와 함께 ‘동아시아사’라는 신생 교과목이 탄생했다. 이는 한국사와 세계사라는 두 줄기를 근간으로 실시되어온 역사 교육의 틀을 흔드는 커다란 변화임에도 교육 과정의 개정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동아시아 역사 전쟁에 대한 대응이라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줄속으로 채택되어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역사’가 한국사에 세계사적 맥락을 곧바로 접합하는 방식의 역사교육의 시민화를 의미한다면, ‘동아시아사’는 일국사로서의 한국사의 외연을 지역사인 동아시아사로의 확대를 통해 시민화(보편화)로 가는 ‘경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동아시아사’는 개설 목표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를 것’을 천명했다. 또한, ‘역사’와 마찬가지로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키울 것’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자국가·자민족적 편향의 역사교육을 지양하고자 했다.

13) 구경남, 2009, 『전후 일본의 역사교육 정책과 역사교육자협의회 비평 활동』,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62-167쪽

형식적으로는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주제로 선정하여 역사사실의 나열이 아닌 주제 중심의 역사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틀을 선보였다.

‘동아시아사’가 역사교육으로서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는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해결하는데 일조하는 평화교육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¹⁴⁾ 명칭은 사라지고 내용은 변조되는 곤혹을 치른 ‘역사’와 달리 지금도 역사교육 현장에서 ‘동아시아사’가 생존하고 있음은 지속적인 역사 대화를 통해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요구가 제도권 역사교육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동아시아사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한국사 : 오래된 미래로서의 ‘근대’

동아시아사는 역사학이 자국가·자민족 중심의 역사상을 극복하고 시민적 역사학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대안 역사학의 일환으로 주목받았다. 그것은 동아시아사가 한국사의 시민화를 이끄는 경로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국가·자민족 차원에서 역사를 해석하던 습속에서 벗어나 한국사를 동아시아사 차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 근대로 가는 세 길 : 현모양처, 양처현모, 현처양모

서구 문명으로의 전환기를 맞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제일 먼저 여성에게 찾아온 변화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 재해석이었다. 국가는 물론 지식인들은 보통의 일반 국민과 국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근간으로 학교 교육에 주목하는 동시에 가족 역시 국민과 인재를 육성하는 장으로 인식하면서 여성에게 미래의 국민을 길러낼 어머니이자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아내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이러한 근대 여성상을 ‘현모양처’라 부른다.

3국 모두 근대 개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현모양처상이 부상했다. 일본에서는 후쿠자

14) 김정인, 「고등학교 국사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 분석」, 『역사교육』110, 2009, 21-29쪽

와 유키치가 선진적이고 선구적으로 유교적 여성 규범을 비판하며 ‘여자도 사람이다’라는 평등적 안목에서 일부일처의 대등한 부부상과 단란한 가족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성에게 가정이라는 틀 안의 바람직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대세였다. 남자와 같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술과 기예를 익혀 남편을 보조하는 아내와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어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상을 양처현모라고 불렀다. 일본에서는 전근대사회부터 어머니보다는 아내의 역할을 중시했는데, 그 비중이 근대적 여성상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처와 현모에게 필요한 덕목으로는 온순·정순·화순 등의 전통적인 가치가 제시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어머니 상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아동을 키우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주장하며 학식에 바탕을 둔 어진 어머니의 상을 제시했다. 여성교육론자들은 학식을 지닌 아내가 있는 가정이 원만하고 자녀가 잘 자라므로 여성을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렇게 현명한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아이는 삼강오륜을 따르고 충군애국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유교 덕목과 근대적 시민 덕목을 절충한 국민의 양성이 바로 어머니의 몫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형제간의 화목과 종족 간의 화합을 위한 좋은 아내의 상이 덧붙여져 한국에서는 현모양처가 탄생했다. 중국에서도 여성교육의 초점은 남편을 조력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로 모아졌다. 장래의 현모·현부(賢婦) 배양을 내세우는 여학교도 등장했다. 1907년에 제정된 ‘여자사범학당장정’과 ‘여자소학장정’에서는 현명한 아내와 좋은 어머니를 의미하는 현처양모를 여성교육의 방침으로 내세웠다. 그 목표는 수기치가(修己治家)와 애국심을 양성하는 데로 모아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역시 유교적 덕목과 근대 시민적 덕목을 절충한 여성상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처현모(일본), 현모양처(한국), 현처양모(중국)이라는 동아시아의 근대적 여성상은 동아시아 근대 사상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가치와 근대 시민적 가치를 절충·혼용하는 궤적을 밟으며 형성되어갔다.

2) 영토란 무엇인가 :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된 바다

대한제국의 멸망을 초래한 두 전쟁,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모두 서해에서 발발했다. 1894년 7월 일본은 경기도 풍도 앞바다에서 청의 군함을 공격하며 청일전쟁을 도발했다. 그들이 내세운 개전의 목적은 조선을 속국으로 여기며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청과 싸워 조선

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불온한 전쟁을 일본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전쟁이라 불렀고, 일본의 대표적 근대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과 야만의 싸움이라 주장했다. 천황이 히로시마에 대본영을 차리고 직접 지휘하던 일본과 되도록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청과의 싸움은 평양 교전을 거쳐 9월의 서해 해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대파하면서 종결되었다. 10 여년이 흐른 1904년 2월 일본함대가 뤼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고 인천항에서 교전을 벌여 두 척의 러시아 함선을 격침시키면서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도 일본 국민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발본색원하지는 주전론에 휘말리며 전쟁을 지지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개전 직전 대외 중립을 선포했다.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대를 한반도에 상륙시켜 전쟁터로 만들었다. 대한제국과 함께 중립을 선포한 중국의 만주 지역에서는 러·일 군인보다 더 많은 중국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러일전쟁은 1905년 5월 일본 해군이 아프리카를 도는 오랜 항해에 지친 러시아의 발트함대를 동해에서 괴멸시키면서 끝났다.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에 위치한 센카쿠 열도(중국어 다오위다오)는 현재 일본 영토로 되어 있다. 이 지역은 본래 중국 땅이었다. 명에서 1403년 출간된 책에 처음 등장한 이래 1863년에 청이 제작한 지도에는 푸젠 성에 부속한 다오위다오 군도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중국 영토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895년에 주인 없는 땅이라며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이 군도를 자국이 위임통치하는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었고, 1972년 오키나와의 반환 이후에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물론 타이완도 고유영토론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해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북방 4개 도서(남쿠릴열도의 하보마이, 시코탄, 이투루푸, 구나시리)는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이다. 1875년 러시아와 일본은 각각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지배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남부 사할린까지 차지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소련은 사할린은 물론 쿠릴열도 전체를 점령했고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는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 획득한 정당한 영토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4개 섬 전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독도 역시 일본이 러일전쟁 당시 무주지라며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점령한 땅이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최근 일본 역시 종전의 무주지선점론에서 고유영토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또한 한국인에게 독도 문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즉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

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인 것이다.

독도문제의 역사화에 있어 짚고 넘어갈 것은 독도 분쟁의 국제 문제화 과정이다. 독도 분쟁은 표면적으로 1952년 1월 이승만의 평화선 발표 이후 일본이 항의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회담 이후 미일 관계에서 출발했다. 즉 독도 분쟁의 핵심 결정자는 한국·일본이 아니라 미국이었던 것이다. 독도 문제에 있어 미국은 1950년대 중반까지 철저히 일본의 입장을 옹호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한일관계만이 아니라 한미, 미일관계를 폭발시킬 뇌관임이 드러나자 곧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현대사에서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등장한 미국이 의도하지 않는 악역을 맡게 된 것이다.

3) 총성 없는 전쟁 : 외교로 망한 대한제국, 외교로 흥한 일본

1901년 8월 22일 대한제국 이완용 총리대신과 일본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 간에 체결된 한국병합조약이라는 하나의 외교 문서로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로 외교주권을 박탈당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긴 했지만, 참으로 허망하게 찾아온 국망이었다.

일본이 타이완처럼 군사 침공을 하지 않고도 한일병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연이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승리를 발판으로 대한제국 강점의 국제적 승인에 외교력을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무렵에는 대한제국 강점은 일본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가 영국·미국·프랑스·러시아·독일 등의 외교 사절들을 불러 모아 사전 통보하고 곧바로 양해 받을 만큼 간명한 사안이 되어 있었다.

1905년 외교주권을 상실한 후 대한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선택들은 정치가 아니라 다분히 운동적인 것이었다. 고종은 을사보호조약 체결 직후, 대한매일신보에 서구 열강이 대한제국이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907년에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을 비롯한 3명의 밀사를 파견하여 을사보호조약의 무효를 호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와 이를 묵인하는 서구 열강들로 인해 회의 참석조차 불가능했다.

이렇듯 일본은 전면적 군사 침략이 아니라, 먼저 외교주권을 빼앗은 뒤 서구 열강에게 강점을 양해받는 과정을 거쳐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했다. 한일병합이 공식 발표된 1910년 8월 29일, 서울 거리는 평온했다.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뒤, 연합군총사령부에 의해 외교주권을 박탈당했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완전 종결을 상징하는 대일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조약은 강화조약임에도 패전국인 일본에 전쟁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았다. 당사자인 일본조차 관대하다고 평가한 조약이 체결된 데에는 미국의 대일정책의 영향이 컸다. 미국은 냉전시대를 맞아 일본을 응징하기 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아시아의 반공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재건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대외적인 호조건과 함께 일본의 외교력도 일본에게 흡족한 조약을 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일본 외무성은 비록 외교주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으나, 패전국으로서 장차 연합국과 맺게 될 강화조약에 철저히 대비하여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당시 일본의 외교적 노력을 지켜본 주일 외교관 나일스 본드는 “일본은 위대한 국가였으며 훌륭하게 훈련된 공무원 조직과 세계 최고의 외무성을 보유했다”고 회고했다.

대일강화조약의 협상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부상했다. 1947년 미국 국무부가 처음 만든 대일강화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었다. 미국의 입장은 1949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직무대리인 시볼드가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뀌었다. 결국 대일강화조약 영토 조항에서는 독도가 빠졌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일본의 외교력이 작동하고 있었다. 일본은 1947년에 연합국에 독도는 물론 울릉도도 일본령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팸플릿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팸플릿은 대일강화조약 체결 시점인 1951년 8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55개국이 초청되었다. 하지만, 최대 피해국인 한국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방청석을 지키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영국과 함께 일본이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식민지였던 한국은 자신들이 상대한 교전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소련에 패한 것이지, 한국에 항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국제 사회에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주장을 거듭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나라로서 일본의 모든 부채는 이로써 청산되었으니 배상은 필요없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조약을 통해 식민지화했으니, 1905년 이후 맺어졌던 모든 조약은 정당하며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역시 정당하다.’ 일본은 1947년 팸플릿 조작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관련된 허위 사실은 물론 모욕적이고 부정적인 정보를 제시했고 불행하게도 협상 당사자들은 이것들은 신뢰하고 수용했다.

4) 다른 처지, 다른 의식 : 서양은 경계하고 중국은 감동한 3·1운동

3·1운동, 그 시위의 한 복판에 선 한국인이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아, 일본의 폭압적 독재 하에 숨죽이고 있던 우리 모두는 자유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하나의 민족이었구나!’ 그렇게 한국인을 감동시킨 3·1운동을 과연 타자인 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세계가 모두 한국인의 독립 투쟁에 감동하며 지지했을까. 세계가 제국주의와 식민지로 분할되어 있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 영국 등 서구 열강은 한국인의 독립투쟁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반란이라는 관점에서 3·1운동을 바라보았다. 3·1운동을 한국인의 독립투쟁으로 높이 평가한 것은 제국주의에 신음하는 식민지, 그리고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민족이요 나라들이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3·1운동을 다르게 읽었던 것이다.

3·1운동이 일어나자, 한국에 거주하던 서양인들은 한국인의 독립 투쟁 양상보다 일본의 잔혹한 탄압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그들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선교사가 경영하는 병원 근처에서는 머리채를 잡혀 끌려온 소년 2명이 머리카락을 전주에 매인 채 소방관에게 심한 매질을 당한 뒤 감옥에 갇혔다” 등 끔직한 사건들이 가득했다.

3·1운동 중에서 서양인과 서양 언론이 가장 주목한 것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었다. 한국에 거주하던 미국, 영국, 프랑스 공사와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나자, 직접 현장 조사를 한 뒤 본국 정부에 보고하고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서양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렸다. 제암리 학살 사건에 알려지면서, 미국 상원에서는 “미합중국 상원의원은 한국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는 정부를 위한 열망에 동정을 표하는 바이다”라는 결의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잔학상에 대한 서양 열강의 조치는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제국주의 국가로서 같은 배를 탄 일본에 대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정부는 3·1운동을 공식적인 외교 문제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 인도적 차원의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않았다.

제1차 세계 대전을 마무리 짓기 위한 평화회담으로서 1919년 1월부터 6월까지 열린 파리 강화회의. 서양 열강과 일본이 함께 한 이 협상 테이블에서 비록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제암리 학살 사건을 비롯한 3·1운동 탄압 과정에서 드러난 잔학상은 일본 대표를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일본은 ‘문명 세계가 일본의 야만성에 대해 강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치욕스러운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서양 열강에게 3·1운동은 억압받는 약자의 정의로운 항거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식민지

에서 일어난 반란이었다. 또한 수많은 한국인의 희생은 인도적 차원에서 공감하고 분노해야 할 비극이 아니라,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절호의 외교 카드였다.

중국도 국망의 위기감 속에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저지하고자 했던 것은 일본의 산둥반도 장악이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 빼앗은 산둥반도를 중국 침략의 교두보로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때 3·1운동이 터진 것이다.

중국인은 한국인의 독립투쟁에 환호했다. 베이징대 교수 천두슈는 3·1운동에 대해 '위대하고 간절하며 비장한 동시에 명료하고 정확한 관념을 갖추어 민의를 사용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혁명사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선인과 비교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끄러워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중국의 무기력한 현실을 개탄했다. 베이징대 학생 푸쓰넨은 3·1운동의 교훈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비폭력 혁명이었다는 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한 혁명이라는 점, 순수한 학생 혁명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그리고 중국인의 무장해제된 정신 상태를 맹렬한 비판했던 그는 마침내 5·4운동을 이끌어냈다. 1919년 5월 4일에 뿌려진 <베이징 학계 전체 선언>에는 3·1운동에 대해 이런 언급이 나온다. "한국인은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쳤다."

이렇게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던 중국인들은 일본의 잔혹한 탄압보다는 3·1운동을 비폭력의 거족적 투쟁으로 승화시킨 한국인의 저항 정신에 관심을 보였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1919년의 봄, 한국인에게는 격동과 감동의 시간들이었지만, 세계는 자신의 처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바라보고 있었다. 일본의 태도는 어땠을까. 일본 언론은 3·1운동을 일부 종교인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고 보도하면서 무력 탄압을 비호했다. 조선인을 '폭도'라 부르며 일본인의 피해를 과장해 보도했다. 하지만, 시위대에 의해 죽은 일본인 민간인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

5)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 사이 : 형평운동과 수평운동의 다른 길

20세기 전반의 한국사는 일본의 식민지배 대 한국인의 독립운동, 즉 수탈 대 저항으로 구성된다. 둘은 마치 절대 섞이지 않고 따로 노는 물과 기름 같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현실이 그렇게 단순할까? 물론 아니다. 저항운동조차 일본의 사회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수평사와 형평사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에는 부락민으로 불리우는 천민이 존재했다. 1871년의 제도적 해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민 대우를 받던 부락민들이 모여 1922년 전국수평사를 결성했다. 이후 각지마다 수평사가 설립되고 차별 규탄 투쟁이 일어났다. 1923년에는 청년 지도자들이 사회주의를 수용하면서 수평운동세력은 불세비키파와 반불세비키파로 분열했다. 불세비키파는 사회운동과 연대하며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정부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하며 불세비키파 지도부를 체포하고 사회적으로 반수평운동이 확산되는 위기에 처하자 수평운동세력은 다시 합쳤다. 1931년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계급투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수평사를 해소해야 한다는 해소론이 등장했다. 이후 수평사는 점차 융화=동화정책에 협력하는 관변단체로 변질되어갔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는 수평운동의 소식을 들은 백정 출신 유지와 지식인들이 1923년에 진주에서 형평사를 만들었다. 백정 출신들은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한 제도적 해방에도 불구하고 인습적 차별에 고통 받고 있었다. 형평사는 창립 1년 만에 68개 지사와 분사를 갖춘 전국적 조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1924년에 사회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은 급진파가 등장하면서 분열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반형평운동이 번져가자 다시 뭉쳤다. 급진파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1931년에는 형평사 해소론이 제기되었다. 형평사는 소부르주아집단이니 해소하고 각 지역의 형편에 따라 노동조합 혹은 농민조합을 조직하지는 것이다. 1933년에는 형평청년전위동맹사건으로 급진파가 검거되었다. 이후 형평사는 이익과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로 변질되었다.

일본 ‘제국 권력’ 하에서 수평사와 형평사가 걸었던 길은 흡사하다. 수평사와 형평사 간의 연대활동이 미미했음에도 둘이 거의 같은 길을 갔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의 현실은 다르다. 일본 수평사는 1941년에 정부의 해산 요구에 따라 사라졌다. 조선 형평사는 1935년 친일용화를 표방하는 대동회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일본에는 지금도 부락민이 존재하고 부락 해방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한국에는 천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평운동은 실패했고, 형평운동은 성공한 것일까? 식민지민은 제국 권력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소수자다. 백정 출신은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소수자다. 결국 백정 출신은 민족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이라는 이중고에 놓여 있었다. 민족주의는 그들을 함께 독립을 쟁취해야 할 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민주주의는 그들을 만민평등의 인민으로 품었다. 그렇게 백정 ‘해방’은 관철되었다. 일본의 사정은 달랐다. 식민지를 포함한 제국 전체의 위계 질서 위에 군림하는 제국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현실 속에서 부락민 차별은 극복될 수 없었다. 부락민은 동화의 대상일 뿐, 해방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패전으로 제국이 해체된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부락 해방 문제를 외면하면서 지금도 일본에는 차별받는 천민이 살고 있는 것이다!

식민모국이란 말이 있다. 실제 식민지는 제국의 영향 아래 움직인다. 그렇다고 제국과 식민지가 완벽히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섬세한 역사에 ‘반일 대 친일’ 잣대만을 들이대려 한다면, 진실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이다.

6) 현재진행형인 과거 : 반일의 한국, 항일의 중국

1931년 9월 18일은 만주사변의 발단이 된 야나기조코 사건이 발발한 날이다. 야나기조코 사건이란 당시 일본이 소유하고 있던 남만주철도를 일본군 스스로 폭파한 뒤 중국군에게 뒤집어씌운 사건을 가리킨다. 중국인에게 이 날은 국치일이다.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가 촉발한 중국인의 반일 행동은 일회성 시위를 넘어 일본 기업에 대한 공격과 약탈, 나아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번졌다. 실제 일본 자동차의 중국 시장 매출이 급감했고 항공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인은 일상 속에서 늘 항일의 기억을 곱씹으며 살고 있다. 중국 드라마의 최대 화두는 사랑이 아니라 항일이다. 대개의 드라마가 일본 침략에 맞서 싸우는 공산당의 활약을 음모와 배신, 액션을 곁들인 프레임으로 그려내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황금시간대를 차지하고 있다. 그 드라마 속의 일본은 난징대학살, 일본군위안부, 731부대의 인체 실험 등 온갖 만행을 서슴지 않는 흉악한 적이다. 이렇게 중국인의 반일 정서는 일본과의 전쟁 경험에 대한 기억 속에서 극대화된다.

1995년 8월 15일, 한국은 대대적으로 광복 50주년을 기념했다. 이 날의 키워드는 민족대 화합이었다. 남북공동으로 8·15 대축전이 열렸고 통일축구가 열리는 경기장에는 한반도가 물결을 이뤘다. 36년 간 일본 치하에서 받았던 고통을 상기하거나 일본을 경계하는 일은 부차적인 관심사였던 광복 50주년이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한 8월 15일을 그저 종전일로 기념할 뿐이다. 이보다는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서 완전 축출한 9월 3일을 항일승전기념일로 기념하며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치른다. 2005년 9월 3일에는 후진타오 주석의 주재로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일승전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기념식에는 항일전쟁에서 싸웠던 한국, 북한, 러시아, 미국 등 20여 개국의 참전용사들과 200여명의 유족들이 참

석했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그렇게 아직도 항일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면하며 오늘을 산다.

전쟁을 겪으며 일본과 적으로 맞섰고 항일승전을 기념하는 중국인, 식민을 겪으며 일본의 지배를 당했고 광복을 기념하는 한국인. 양자 모두 일본 침략 야욕의 피해자이지만, 반일 정서의 결은 전쟁과 식민의 경험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중국인은 지금도 일본군에 의해 가족과 동족이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기억하고 치를 떤다. 중국인에게는 일본이 아직 ‘적’이라는 정서가 남아 있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선진문물을 전해 받고도 노략질을 일삼고 왜란을 일으킨 일본을 배은망덕한 오랑캐로 여겨왔다. 근대 이후에는 일본이 근대화에 앞서면서 한일 간의 역관계와 선진문물의 전달통로가 역전되었다. 그로 인해 식민 경험은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과 저항의식이 결합된 반일 정서를 낳았다. 그렇게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반일 정서를 갖고 있다면, 중국인은 일본에 대한 적대 의식으로 충만한 ‘항일’ 정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외견상 중국인의 반일 정서가 더 격렬하고 과격하게 표출되는 것이다.

일본이 패망 한 직후 중국과 한국의 최대 현안은 친일파(중국에서는 한간이라 칭함) 청산이었다. 중국의 친일파 청산에서는 그 당위성을 놓고 개인과 집단, 계급과 계층에 따른 이견이 존재하기 어려웠다. 내 눈앞에서 가족과 동족을 죽인 적국 일본에 협조한 반역자는 응당 처단해야 마땅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공감대에서 공산당과 국민당 모두 적극적으로 친일파 처벌과 재산 몰수에 나섰다. 반면 식민으로부터 해방된 한반도에서 북한은 정권 수립 이전에 친일파를 청산했고 남한은 결국 실패했다. 친일파 청산은 친일 행위에 대한 단죄와 함께 재산 몰수를 전제로 한 것이기에 아무리 인민의 친일파 처단 요구가 높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식민 경험 속에서 성장한 지주·자본가 계급과의 계급투쟁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주의화를 추구한 북한은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조치 등을 통해 친일파의 물적 토대를 일소했다. 남한에서는 반공 이념으로 무장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친일파를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이 비호하면서 계급혁명은 무산되고 말았다.

우리는 친일파 청산의 좌절을 탓하며 곧잘 프랑스의 철저한 과거 청산 사례를 거론한다. 그것은 프랑스 역시 중국처럼 전쟁 경험에 기원하는 과거 청산이었으므로 철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간과한 단순비교다. 경험이 다르고 그에 대한 기억 방식이 다르면 경험과 기억의 청산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중국과 한국의 반일 정서가 다르게 표출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7) 아직도 넘지 못한 과거 : 일장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심훈이 읊조렸듯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솨음칠 그날’,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울려 퍼진 일본 쇼와 천황의 항복 방송에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 건물 높이 휘날리던 일장기는 남한에 미군이 진주한 직후인 9월 10일에야 계양대에서 사라졌다.

한국인에게 일장기는 어느 나라의 국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거기엔 늘 일본의 식민 지배의 쓰라린 기억이 투사된다. 그 불편한 기억의 한편엔 일장기말소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1936년 8월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치러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손기정 선수는 1등, 남승룡 선수는 3등을 차지했다. 이 소식을 전한 동아일보 1936년 8월 25일 자에는 ‘조선의 피를 끓게 한’ 손기정 선수의 사진이 실렸다. 가슴팍에 있던 일장기가 지워진 채로 말이다. 이 일장기말소사건으로 동아일보는 무기한 정간 처분을 받았고 사회부장 현진권을 비롯한 8명의 사원이 구속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무엇보다 ‘조선이 일본에 승리하여 마치 조선 독립의 기초가 이루어진 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음을 경계했다. 이 통쾌한 기억은 곧 일장기=일본의 식민 지배=악이라는 등식을 통념화하는데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다.

1960년 11월 6일 효창공원 안 국제축구경기장에서 한일 축구 국가대표팀 간에 월드컵 예선전이 벌어졌다. 1962년 칠레에서 열릴 제7회 월드컵의 아시아 지역 예선전이였다. 애초 정부는 해방 이후 15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최초의 한일 축구전을 불허했다. 당시 한일 정부가 제일동포 복송 문제로 갈등하고 있기도 했지만, 식전행사의 일장기 계양과 일본 국가 연주가 민심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서였다. 결국 정부는 경기를 불과 1주일 앞두고 국무회의를 거쳐 친선경기가 아니라 국제대회의 예선전이란 이유로 개최를 허가했다. 경기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라는 조건이 붙은 까닭에 대한축구협회는 급히 좌석 공사에 착수해야 했다. 문제는 심판이었다. 국제축구협회가 요청한 필리핀 심판 3명이 한국의 초청이 너무 늦었다며 불참을 통고했다. 이 소동은 일본 축구팀이 3명 모두 한국 심판을 써도 좋다고 양해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어렵사리 열린 한일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전례 없이 비싼 입장료에도 1만 3천 여 좌석은 만원사레였다. 경기장 밖 언덕 위에도 뻗뻗하게 1만 명이 몰려들었다. 각각 붉은 색과 푸른 색 선수복을 입은 한국팀과 일본팀이 입장하자, 대한축구협회장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개회를 선언했다. 마침내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일장기가 계양되는 순간이 왔다. 식민 지배를 기억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방 이후 처음으

로 한국 땅에서 일장기가 게양되던 1분이란 짧은 시간의 정적과 긴장감,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경기는 한국의 2 대 1 승리로 끝났다. 한국이 일본을 이긴 것이다! 남다른 감회와 기쁨에 나라가 들썩였다.

당시 정부가 일장기 게양에 과민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두 달 전인 1960년 9월 6일에는 해방 후 처음으로 코사가 외무상을 비롯한 일본의 공식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공식 사절단이긴 하나, 여론을 이유로 정부는 김포공항에 일장기를 내걸지 않았다. 의전행사도 생략했다. 사건은 코사가 일행이 숙소인 반도호텔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다. 20대 청년 30여명이 트럭을 타고 나타나 “36년간의 침략행위를 사과하라”, “교포 복송을 중지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다가 코사가 외상이 탄 승용차의 일장기를 훼손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일회담반대투쟁이 한창이던 1964년과 이듬해에 시위대가 일장기를 소각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일본정부에게 일장기소각사건은 직접 조사에 나설 만큼 예민한 문제였다. 한 일 간에 국교가 재개된 이후로도 공식적인 일장기 게양에는 여론을 살펴야 하는 수고로움이 뒤따랐다. 1945년 9월 10일로부터 딱 37년 4개월이 지난 1983년 1월 11일, 예전의 조선총독부 건물에 들어선 중앙청에 태극기와 함께 처음으로 일장기가 게양되었다.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공식 방한을 맞아 내건 것이었다. 이 소식을 전한 신문기자의 소회는 이렇다. ‘한국을 강제 지배하면서 그 상징으로 세운 중앙청에 또다시 그들의 국기가 나부끼는 것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가슴은 착잡하기만 하다.’

지금도 반일시위에서 종종 일장기를 불태운다. 중국의 격렬한 반일시위에서도 일장기가 소각되고 있다. 일본의 한류 열풍 못지않게 한국에서 일류(日流)가 유행하고 있지만, 일장기는 아직도 일본 국기라는 본연의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는 일본과 여전히 친일=악의 반일=의식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한국, 누구 때문일까?

**동아시아 속의 중국상고사:
한민족의 위대한 상고사 환상 깨기**

• 심재훈 (단국대학교) •

동아시아 속의 중국상고사: 한민족의 위대한 상고사 환상 깨기

심재훈(단국대)

동북아역사재단
2017년 11월 4일

차례: 1부

1. 역사가와 진실
2. 한국상고사에 대한 환상
3. 고조선에 대한 고무줄 인식
4. 동아시아 민족사학의 흐름
5. 민족사학 도입 이전의 역사 인식
6. 고대 중국을 보는 새로운 시각

2부

7. 하상주 삼대 역사개관
 8. 이리두와 하 왕조의 실존
 9. 갑골문의 발견과 삼대 역사
 10. 극상과 서주의 발전
 11. 동천과 춘추 지역국가의 형성
 12. 전국시대의 다양한 변화
 13. 중국 고대문명 다시 보기
- 마무리

1. 역사가와 진실

- 역사는 사실을 밝히는 행위인가?
- 완벽한 사료가 존재할까?
- 역사 서술은 결국 역사가의 이야기 만들기
- 역사학과 문학의 차이
- 경허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의 숙명

2. 한국 상고사에 대한 환상

- 기원전 2333년?
- 만주는 우리 땅?
- 비파형동검=고조선?
- 문헌 증거?
- 중심지의 고고학적 확정?
- 요하문명론의 허상



3. 고조선에 대한 고무줄 인식

- 위치: 패수 위치
운동
- 고조선의 연대:
- 고조선의 발전
단계



4. 동아시아 민족사학의 흐름

- 일본: 도입 주도→황국사관→마르크스주의 사관→진보/보수 재편
- 중국: 도입(국학)→마르크스주의 사관→애국주의(신중화주의)→반성?
- 한국: 도입→식민사학 반작용→민족주의 사학 확립→반성→재편?

 도입→발전→정정→반성→재편

5. 민족사학 도입 이전의 역사인식

- 지식인(양반)들의 텍스트
- 동국(東國)의 역사
- 중국사라는 인식 존재?
- 보편 문명으로 중국 고대문명

6. 고대중국을 보는 새로운 시각

-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고고학 성과
- 방대한 전래문헌과 출토문헌
- 역지사지의 관점
- 동아시아문명의 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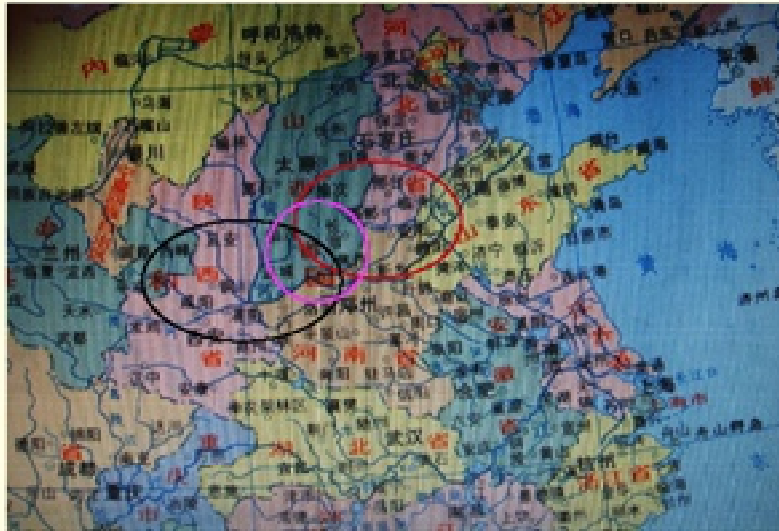
7. 하상주 삼대 역사개관

*선진(先秦)시대=삼대(三代)

1. 하(夏): 대략 기원전 2070-1600
2. 상(商, 은殷): 1600-1045
3. 주(周): 서주, 1045-771
동주(춘추/전국), 770/453-221

--하상주 시대: 2000-211년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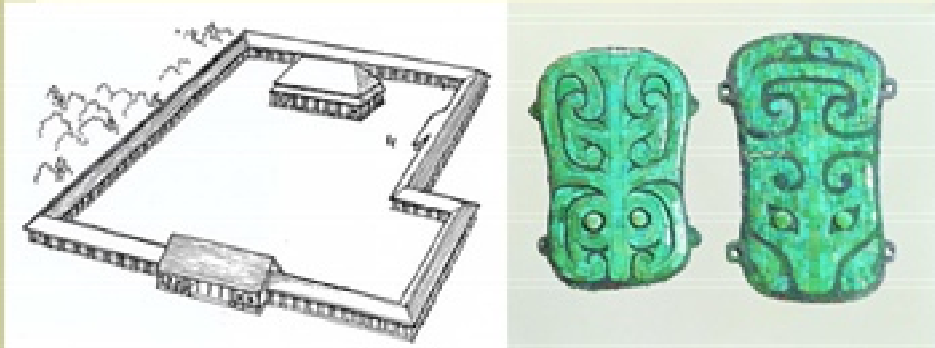
삼대 역사의 주무대: 이리두(하), 정주, 안양(은허), 극상, 서안(종주), 낙양(성주), 동천



8. 이리두와 하 왕조의 실존



이리두 궁전터(107m)와 청동기



9. 갑골문의 발견과 상대 역사 1600?(1300)-1045B.C.



상 전기: 언사상성과 정주상성



정주상성



정주상성 출토 청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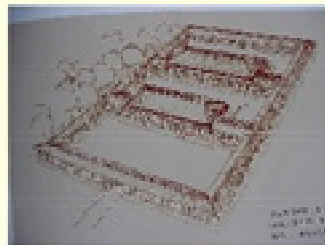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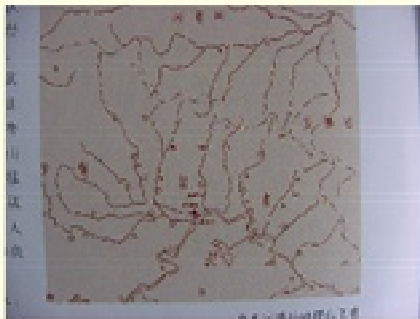
상 전기 청동기



도철문의 이입



상 전기의 확산: 호북성 반응성 청동기와 건축 복원도



상 후기: 은허 위치도



안양(은허)발굴대



안양(은허)발굴대



소둔촌 궁전구 전경



은허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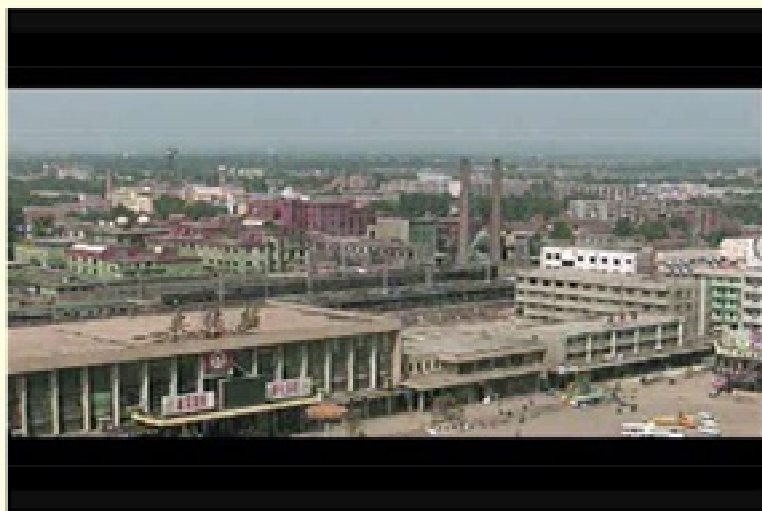
소둔촌 궁전구



서북강 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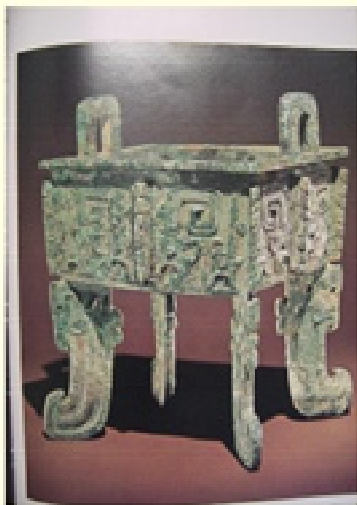
지하의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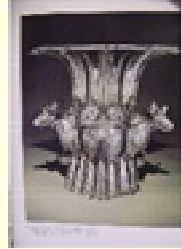
복원된 부호묘(婦好墓)와 내부



부호 청동기



상 후기 청동기



10. 극상과 서주의 발전 1045-771B.C.

섬서성과 주원 평원: 주의 발상지



서주 청동기와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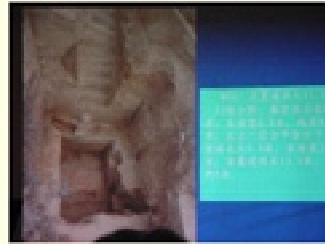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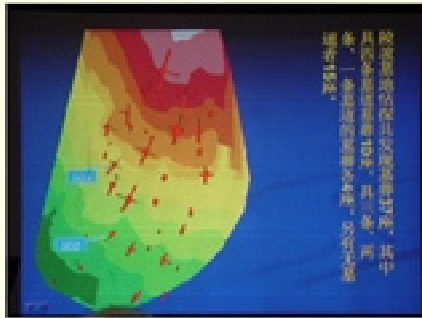


- 전공(戰功)
 - 왕명 완수
 - 책명(冊命): 관직하사
 - 성공적 소송
 - 조상의 내력
 - 특정 조상에 바쳐짐: 그 조상의 제사에 사용
- 서주사 연구의 기본 자료

서주의 고고학 상황

- 상과 달리 왕릉 확인되지 않음
- 성서성 일대 중심지: 건축과 묘지 발굴
- 낙양 일대 부진
- 연(燕)과 진(晉) 등 많은 제후국 유적지 발굴

주원의 주공묘(周公廟): 서주 왕릉?



초기의 팽창과 중기의 위축

- 광범위한 정벌
- 봉건제도
- 동일 조상에 대한 제사 통해 유대 강화
- 중기 이후 제후국들과의 유대 약화
- 주 왕실 개혁: 의례(제사)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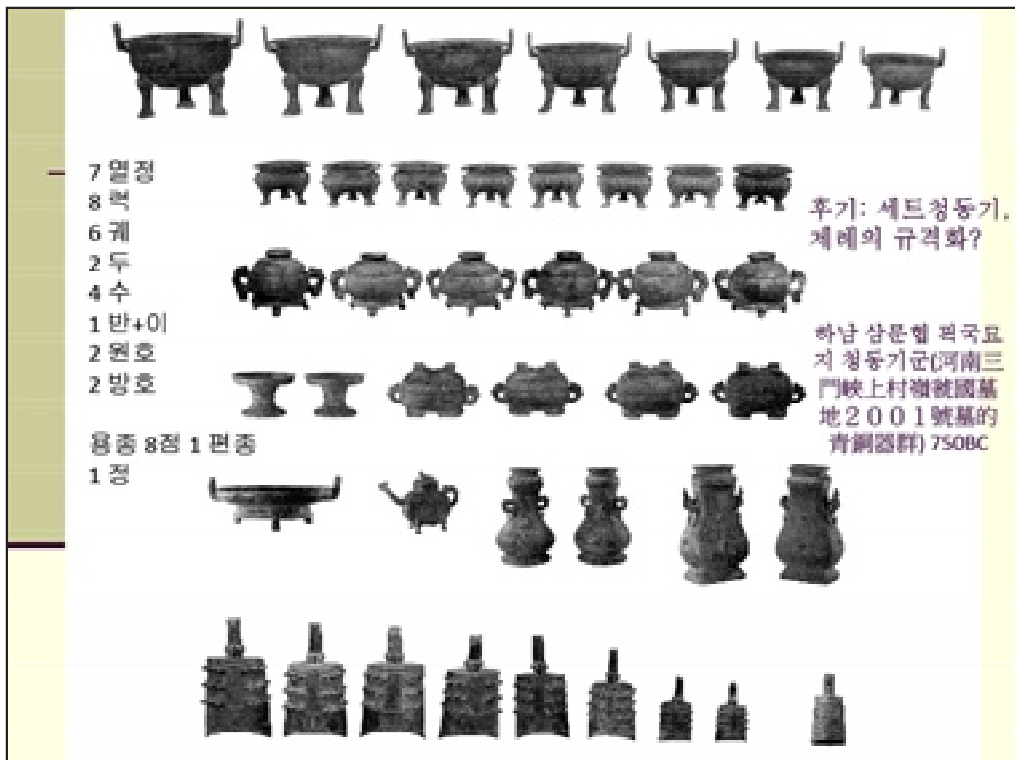
주요 제후국 위치

西周分封



중기: 도철문에서 단순 문양으로: 주기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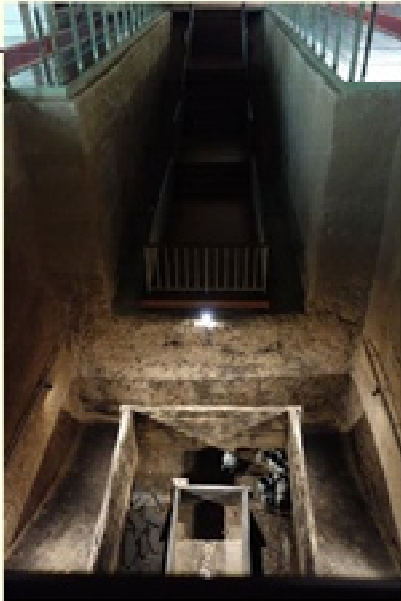
서주 후기 의례개혁

- 제사의 규격화
- 제사의 대형화
- 주기 사라짐: 신비적 요소 감소
- 청동기 조합 바뀜: 주의 특징 나타남





제후와 부인묘



옥으로 감싼 시신과 거마갱



주의 축소 복사판



11. 주의 동천과 춘추 지역국가의 형성 770-453B.C.

- 주 왕실의 몰락
- 패자의 등장
- 제후국들의 성장
- 지역국가 출현
- 정치적 분할
- 문화적 일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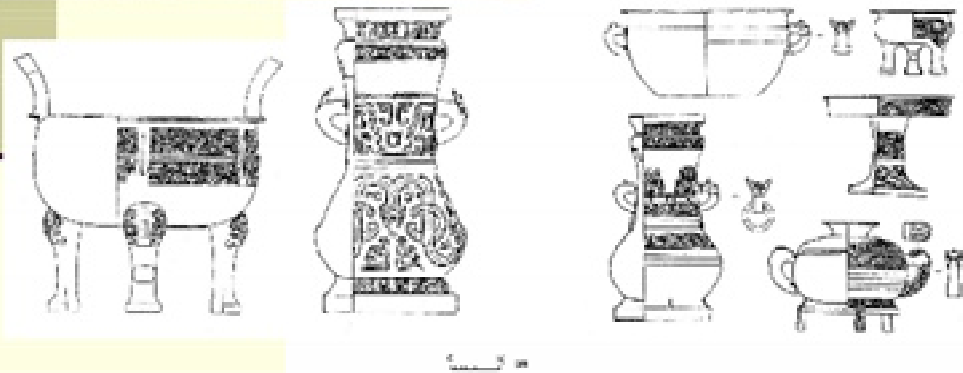
춘추 형세도





- 9 ding 鼎
- 9 hu 鬲
- 8 gui 簋
- 2 rectangular hu 方盃
- 2 round hu 圓盃
- 2 fu [a.k.a. dou] 簠 (豆)
- 1 pen

정나라, 新鄭 (河南省)
鄭中行 1 5 號 禮器坑



남방의 초문화: 투조식 청동기



초나라 청동기



초나라 칠기



산서성 진(晉)의 도읍 후마(585-403) 청동기 공장 유적



청동 제작 기술의 발전: 부분 모형 반복 사용



산서 북부 출토 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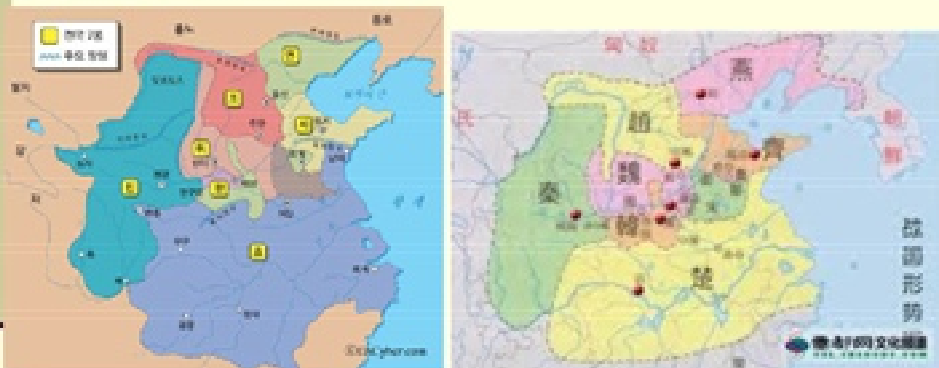
우준 장식/후마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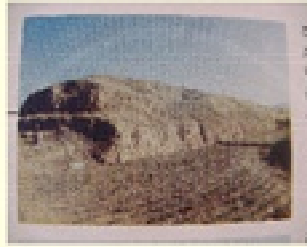
12. 전국시대의 다양한 변화 453-221B.C.

- 서주 질서 완전히 무너진 새로운 시대
- 전국칠웅의 상쟁
- 절대군주와 관료제
-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 제자백가
- 개인의 부각
- 새로운 도시의 발달
- 초간(楚簡)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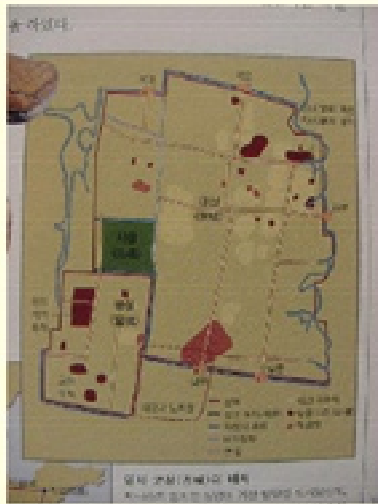
전국 칠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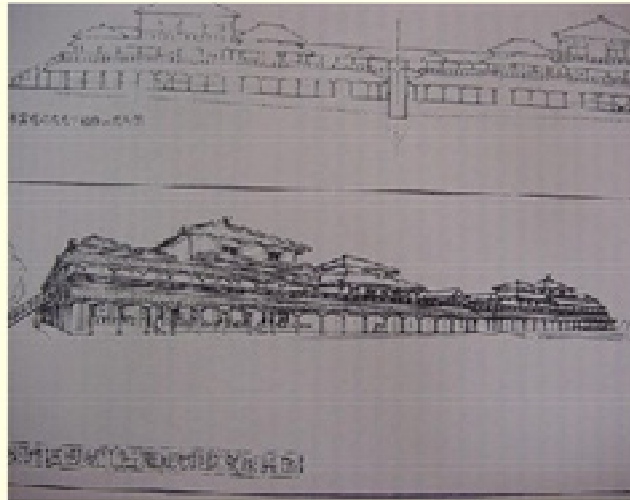
진, 조, 제 장성



제 수도 임치(臨淄) 고성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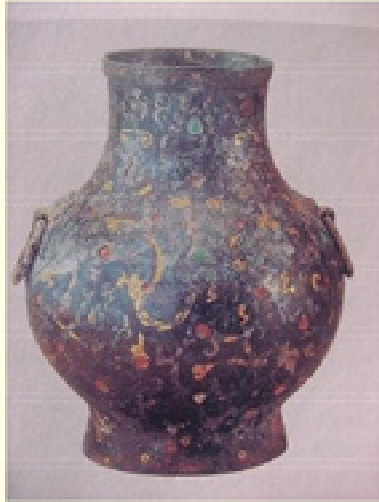
진(秦)의 함양 궁궐 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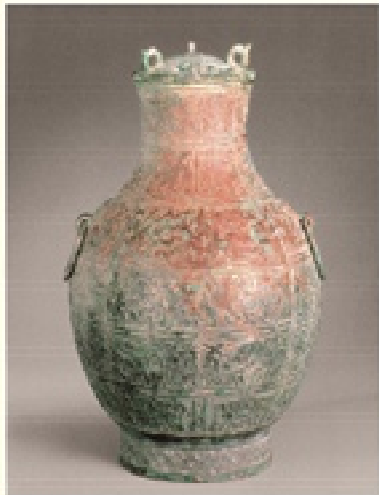
청동기술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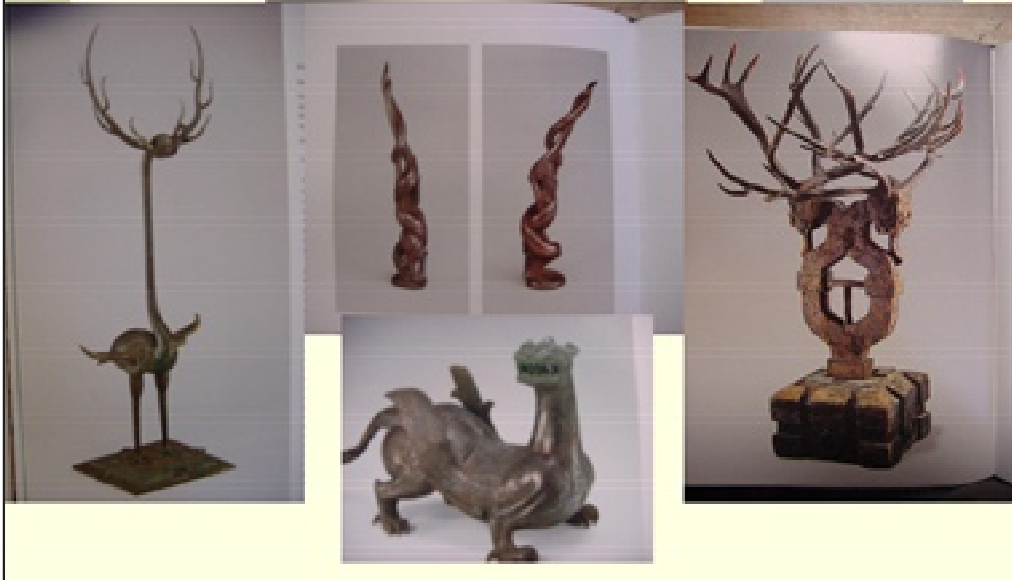
상감 청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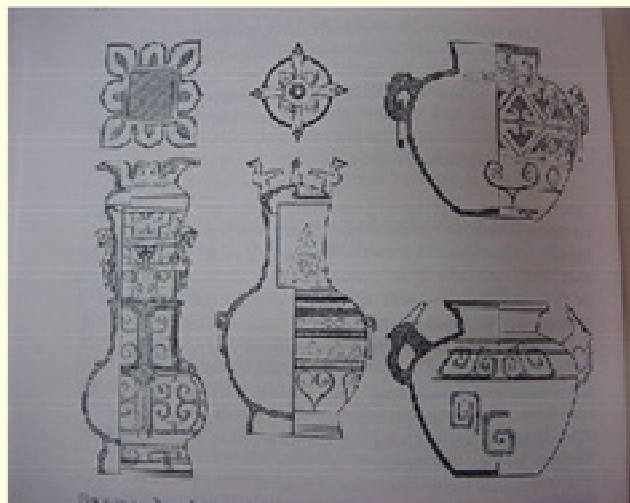
회화 청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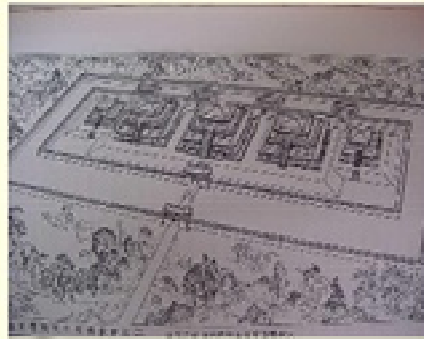
장식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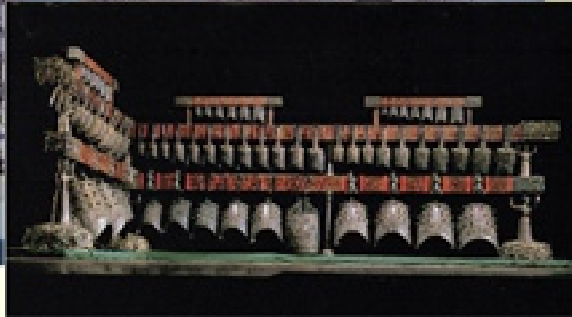
부장용 명기(明器)



중산(中山)왕릉: 청동 묘역 도판/복원



묘후유물



초나라 죽간(300 B.C.)



전국시대 문화의 새로운 양상

- 신비성에서 현실성으로
- 세속화: 일상생활 전하는 회화 최초로 등장
- 개인용품: 벨트, 거울 등 사치품
- 장식이나 조각이 새로운 미술 장르로
- 지상묘: 묘역의 대형화, 공원화—묘를 생시의 집같이—내세관의 변화
- 명기 등 제사 도구 변화: 조상이 초자연적 원조의 제공자로 간주되지 않음

⇒현실 사회나 개인 수양 관심 ⇒제자백가 등장

진의 통일과 진시황릉



13. 중국 고대 문명 다시 보기

- 세계 최고(古/高) 문명
- 한대 이래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20세기 중국의 몰락/한민족 지상주의 대두
- 고대 만주에 대한 환상
- 서양 문명의 요람은?
- 동아시아의 요람으로서 고대 중국 문명

마무리

- ‘헬조선’과 ‘헬중국’
- 양면적인 중국: 위협과 우월감
- 위대한 고대 중국 vs. 초라한 고대 한국?
- 한류에 환호 vs. 과장된 고대사 만들기
- “우물 안의 개구리 식” 역사 인식
- 동아시아 공존을 위한 새로운 역사인식 절실

일본 근세사(近世史)의 이해
- 센고쿠시대 · 에도시대의 일본을 가다 -

•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

일본 근세사(近世史)의 이해

- 센고쿠시대 · 에도시대의 일본을 가다 -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1. 센고쿠(戰國)시대로의 이행

- : 오오닌의 난(1466~77) 이후 쟁란은 전국으로 확산. 전국에 걸쳐 100여년 동안 전란의 시대가 계속됨. 전란의 와중에 장원은 해체되고 많은 전통귀족이 몰락.
- : 오오닌의 난 이후 무로마치 쇼군집안도 몰락을 거듭함
1493년 10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키(義材, 후의 義植)가 管領細川씨와 대립하다 폐립되어 쫓겨나는 정변이 발생. 권위의 실추.
막부의 주도권이 유력다이묘의 손으로 이동. 장군은 다이묘에 의해 진퇴가 좌우되는 꼭두각시로 전락. 1565년 14대 義輝(요시테루)가 암살당하는 사건은 하극상을 상징하는 사건.
- : 京都를 중심으로 하는 近畿지방에서 막부권력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항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로마치 막부체제는 점차 해체되어 감.
- : 지방에서는 슈고(守護), 슈고다이(守護代), 고쿠진(國人) 등 여러 계층 출신의 무사들이 자력으로 領國을 구축하여 독자적인 지배를 행하는 지방정권이 탄생. 16세기가 되면 關東, 東海, 中國지방 등에 분권적인 자립권력이 출현. 全國에 센고쿠 다이묘가 할거하며 領國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약 1 세기를 센고쿠시대라 함.

2. 센고쿠(戰國)시대 일본사회의 특징

: 일본국민의 생활 양태가 전국시대를 기점으로 변모. 그 양태가 현재까지 이어짐. 일본사를 이분하는 획기

@ 衣---오오닌 난 이후 면 재배가 보급. 서민층 의복의 주재료가 麻에서 목면으로 전환. 그 전까지 일반서민은 모시를 이용. 14, 15세기에는 왜구, 한일 간의 무역을 통해 조선산 면이 대량으로 일본에 수입됨.

일본 면재배는 15세기말 무렵, 규슈지역에서 시작되어 16세기 말까지는 關東지역까지 확대. 전국시대 일반서민들이 면 의류를 입기시작. 17세기 전반, 서민의 일상의복의 주원료가 됨. 면은 주요한 군수물자이기도 함. 면의 재배와 보급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의는 가히 혁명적.

@ 食---남북조시대까지 일본인의 식사는 1일 1식(朝夕). 무로마치 중기부터 1일3식이 유행하기 시작. 전국시대에 서민층에도 3식이 점차 보급. 에도시대에 점심 포함한 3식이 정착. 쌀을 주식으로 하는 조리법(밥짓기, 죽)이 확산. 미소, 쇼유 등이 조미료로 등장.

: 住---武가가옥에서는 공간을 구분하여 작은 방이 독립. 천정에도 天井板을 만들었고 각 방에는 다다미를 깔. 이전시대의 방은 板敷き만으로, 다다미는 자는 곳과 손님접대용 공간에만 사용. 製材혁명 때문. 14세기 말부터 두 사람이 맞잡고 목재를 자르는 톱이 등장하여 얇은 판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됨.

@ 다이묘의 領國 지배정책

부국강병책을 지향.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군자금조달의 근간인 산업과 경제발전이 필수.

家臣團에 의한 통치---門(一族)과 譜代衆(종래의 가신단)뿐만 아니라 비혈연집단인 外様家臣, 國人층이나 촌락지도자(地侍, 토호, 小領主)를 가신으로 편입시켜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시켜 가는 것이 최대의 과제 중 하나.

가신단을 군사조직으로 편성. 영국내의 소영주급 무사들로 가신단을 편성하고 가신에 대해서는 지행지(知行地, 영지)를 주어 은전을 베풀고 충성을 요구. 지위와 수입을 보장해 주는 대신 그것에 상응하는 軍役을 부담시킴.

가신단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도 知行地로 부여할 영토를 전쟁을 통해 확대하고 유지, 방어할 필요가 있었음.

도시정책---영국내의 교통의 요지에 성곽을 건설, 성곽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건설. 가신단의 통제와 신속한 군사동원을 위해 무사를 城下로 이주시켜 집주하게 함. 이주한 무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공업자를 유치하는 등, 인구를 집중시켜 城下町을 건설. 도시 기능을 갖는 城下町는 領國의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가 됨.

■ 병농(兵農)분리정책

→ 에도시대의 城下町은 侍町, 商人町, 職人町 등의 구획제가 관철됨.

수공업지배---수공업 분야에서 다이묘가 직접적인 장악과 편성에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은 건설관계와 武器제조관계의 職人들.

이들을 城下町에 집중시키는 정책을 추진. 직인들을 집단화시켜 그들을 집단적으로 파악하려는 정책은 각지에서 진행됨.

金銀 광산의 개발---다이묘 영국의 경제력, 군사력 강화에 있어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 광산자원의 개발. 광산인근 지역의 다이묘들은 광산 획득을 둘러싸고 격렬한 각축을 벌이기도.

出雲(이즈모, 島根현) 鐵의 주산지.

銀(16세기 전반 하카다상인 가미야 슈테이神谷壽禎가 조선에서 회취법灰吹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은 정련기술을 도입. 은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17C초, 일본의 은 수출액은 연간 20만kg. 당시 전세계 銀 생산량의 1/3에 달하는 양. 이와미(石見) 大森銀山

: 중국과의 관계

1551년 오우치씨(大内氏)의 멸망과 함께 1547년에 파견된 견명선(遣明船)을 최후로 감함무역이 폐절됨. →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정부 간 공식무역 단절

16세기 중후반 織豊정권의 시대에 일본의 대외관계는 중국과의 공식적인 국교 및 官貿易이 두절된 반면 後期倭寇와 포르투갈의 출현으로 인해 이전 시대에 비해 대단히 다채로운 양상을 띠게 됨.

* 後期倭寇---16세기는 후기왜구 활동시기. 일본인은 1~2할 정도.

명의 海禁정책에도 불구하고, 밀무역 집단 즉 중국인을 주력으로 한 武裝 海商집단이 출현. 浙江, 福建省연안의 중국인 해상들.

■ 일본 銀과 중국산 生絲, 견직물을 기축으로 하는 무역분 형성.

: 유럽인의 내항

15세기 중엽~16세기 초 유럽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 근대사회로 이행. 지리상의 발견의 시대, 대항해시대

스페인, 포르투갈은 절대주의국가를 형성, 중상주의 정책 하에서 식민지 획득을 위해 해외로 진출. 목적은 '향료 획득과 기독교'로 대변되듯이 무역과 포교.

이슬람상인의 중개무역에 의해 유럽에 입수되던 고가의 향료를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직접 입수하고, 아시아에 크리스티교를 확대하여 이슬람세계를 협격하고자 아시아 해로를 찾기 시작.

* 포르투갈의 동아시아 해역 진출---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항로를 개척. 1510, 인도의 고아 점령. 1511, 말레이반도의 말라카 점령. 후기왜구집단의 교역망과 항로를 따라 말레이해협에서 북상. 포르투갈은 중국무역의 이익을 추구하며 명정부와 교섭했으나 공식적인 무역을 허가받지 못하자 왜구를 상대로 한 사무역에 전념. 1550년대 왜구의 대반란(嘉靖大倭寇)을 계기로 明朝는 포의 협력을 얻어 왜구금압을 강화. 포르투갈은 마카오의 왜구를 금압한 보상으로 1557년 明朝로부터 마카오를 할양받고 이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역할비중은 한층 증대. 마카오를 동아시아 무역의 기지로 삼음.

1570년에 마카오-나가사키 간 정기 무역루트 열림.

후기왜구 쇠퇴 후 일본은-중국생사 교역에 적극참여. 아시아무역 달러박스

일본 다이묘들은 다투어 포르투갈 선박을 自領으로 입항시킴(대형범선)

* 스페인---16세기 중반 태평양을 횡단, 동아시아에 진출. 1571년 필리핀제도 점령. 마닐라와 멕시코의 아카풀코를 연결하는 정기항로.

1584년 나가사키 내항

* 포교활동---1549년 예수회 선교사 프란시스코 자비엘(스)이 가고시마에 와서 전파. 2년 3개월 동안 규슈와 기나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포교.

다이묘들은 구교국과의 무역이윤을 중시, 선교사를 보호. 단기간에 신자가 증가. 1582년경 규슈의 신자가 12만 명, 기나이가 2만 5천명.

기리시탄 다이묘, 바테렌(半天連), 南蠻寺(교회당),

: 鐵砲(화승총, 조총)의 전래---왜구에 의해 전래되었을 가능성

당시의 기마중심의 전법과 갑옷, 축성술에 변화를 초래.

화약과 철포의 조달은 다이묘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3.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82)의 통일사업

: 오와리(尾張:나고야)의 슈고다이묘 시바(斯波)씨의 守護代의 家老 집안.

父 노부히데(信秀) 때에 세력이 확대. 노부나가에 이르러 강대해짐.

: 18세에 가독 상속. 상속을 둘러싼 분규(弟 信行). 상속 후 약 8년 간 경쟁관계에 있던 일족, 주위세력을 제거하는 데 전념

* 1559. 오와리 통일

* 1560. 오케하자마(桶狹間)의 전투

: 駿河(遠江, 三河)의 거대 다이묘 이마가와 요시모토(今川義元)의 대군을 격파
오다의 군대(2000 or 4000)가 이마가와(2만 5천 이상?)를 급습.

: 이에야스, 이마가와와의 인질에서 해방되어 본거지로 귀환. 노부나가와 군사동맹 체결
노부나가는 이에야스를 客將으로 대우했고, 이에야스는 노부나가의 통일사업에서 東國의 강자인 다케다(武田)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준 셈.

* 1567. 미노(美濃)의 사이토씨(齊藤龍興)를 정복. 미노를 병합.

7년 동안 10번 출병한 끝에 정복.

* 본성을 기후(岐阜)로 옮김.

: 「天下布武」의 朱印을 사용하기 시작. 정치적 야심을 상징. 上洛을 지향

* 1568. 교토 入京

: 13대 쇼군 요시테루(足利義輝, 암살당함)의 동생인 요시아키(義昭)에게 막부 재흥의 의지가 있음을 간파한 노부나가는 요시아키를 데리고 교토로 진격. 손쉽게 교토를 제압. 기나이를 거의 평정.

: 요시아키를 쇼군에 취임시킴

b 막부의 권력이 쇠퇴한 마당에 요시아키로서는 노부나가라는 강력한 지원자를 필요로 했고, 이제 겨우 2개 國을 통합하여 세력이 강대해지기 시작한 노부나가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이묘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쇼군의 전통적인 권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음.

: 요시아키는 쇼군으로서 나름 정력적으로 움직였지만 그의 정권은 막부와 노부나가의 이중정권으로, 현실적인 실권은 노부나가가 장악. 군사력, 경제력에서 노부가 압도적인 우위. 막부의 군사력 행사, 권력행사에 있어 노부나가의 협조와 보증이 필요했음. 초반

에는 상호 협력하는 우호적인 관계.

* 1570년, 요시아키와의 대립이 표면화하기 시작.

: 노부나가, 쇼군과의 별도의 권한행사 의지를 표현. 요시아키는 노부나가에게 반감을 가진 세력,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다이묘, 종교집단과 수면 하에서 결탁하기 시작. (朝倉, 武田, 石山本願寺, 毛利 등)

* 1570. 사원세력과의 항쟁이 본격화, 石山戰爭 시작됨.

: 1571, 比叡山 엔라쿠지(延曆寺)를 불태워 院政 이래의 강대한 사원세력을 타도.

: 天台宗의 總本山. 近江지역에 莊園과 강력한 僧兵조직 소유. 고대 이래의 종교권력. 노부나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다이묘와 결탁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 2000~3000명의 승려 살육.

* 1572,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의 공격을 받음.

: 다케다 신겐, 甲, 信, 駿 삼개국의 대군을 이끌고 공격. 노부나가 上洛 후 최대의 위기. 신겐이 공격 중에 발병하여 上洛을 중지하고 본거지로 퇴거.

* 1573, 쇼군 요시아키 추방. 형식상으로나마 유지되던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

* 1575, 나가시노(長篠) 전투. 武田勝頼의 기마부대를 괴멸시킴. 신구문화의 충돌?

* 1576. 비와호수 연안에 아즈치성(安土城)을 건설. 통일사업의 거점으로 삼음.

근세적인 성곽의 시초. 소켄지(惣見寺)

* 1582. 다케다씨 공격. 다케다씨 일족 패주, 멸망.

: 혼노지(本能寺)의 변……모리(毛利)를 공격하고 있던 히데요시를 격려하기 위해 친정에 나섬. 극소수 병력만을 이끌고 교토의 本能寺에 숙박.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의 기습으로 노부나가 사망.

4.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全國 통일

: 오와리 출신의 농민(1536/7生~1598沒)

: 1567. 노부나가의 미노 사이토씨 공격에서 두각을 드러냄. 외교술을 발휘, 사이토씨의 가신들이 배신하도록 유도.

: 1582. 모리씨의 다카마쓰(高松城)를 공격하던 중 오다의 부음을 들은 히데요시는 모리

와 강화체결, 회군하여 아케치 미쓰히데를 격파(山崎の戦い:中國大返し<?>). 노부나가 사망 이후 히데요시는 오다 가신단내의 파워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수완을 발휘, 주군 노부나가의 장례식을 주관하여 성대하게 치름. 또한 노부나가의 후계자를 정하는 가신단 회의(清洲회의)에서 남은 두 아들 중 한명으로 정했다가는 혼란만 커진다면 노부나가의 長孫 산포시(三法師, 3歲)를 추대하여 결정.

: 1583. 가독상속에 불만을 품고 거병한 삼남(信孝)이 히데요시에게 진압되자, 1584년 信孝의 최후를 보고 불안해진 차남 노부카츠(信雄)가 亡父 노부나가의 충실한 客將이었던 이에야스와 손잡고 거병함(고마키 나가쿠테 전투). 이 전투는 전쟁의 발단이 된 노부카츠가 독자적으로 히데요시에게 굴복하는 형태로 화의를 체결. 군사적으로는 이에야스의 승리이나 정치적으로는 히데요시의 승리. 이에야스는 차남을 히데요시에게 양자로 보내서(실질적으로는 인질), 일단 평화 상태를 유지.

그러나 히데요시를 전투에서 이긴 유일한 다이묘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적나라한 형태로 복종하기를 꺼려하여 스스로 히데요시를 찾아가 배알하지 않음. 무력이 아닌 평화리에 이에야스를 굴복시키려 한 히데요시는 1586년 동생 아시히히메를 이에야스의 正妻로 주는 정략결혼, 生母天瑞院를 인질로 浜松城에 보냄. 그제서야 이에야스는 오사카성에 와서 히데요시를 배알함. 이에야스는 형식상으로 히데요시에게 臣從하긴 했으나 別格 다이묘의 대우를 받음.

: 1583, 오사카성 건설. 3년 걸려 완성. 교토의 聚樂第(취락제 파괴후에는 후시미성)에 이어 豊臣정권의 政廳으로 사용. 전국통일의 기점으로 삼음. 히데요시의 권력과 지위를 상징.

: 1585. 천황으로부터 관백(關白)에 임명됨. 公家の 관직이지만 히데요시에게는 전국에 호령할 수 있는 國政上的 지위에 올랐다는 점이 중요.

私戰禁止令(惣無事令)/ 태합(太閤)檢地

: 1587~1590까지 규슈, 관동, 도호쿠 지방의 다이묘를 차례로 굴복시켜 전국통일을 달성. 九州の島津氏, 關東の後北條氏, 東北の伊達政宗

* 전국지배를 위한 체제……檢地, 刀狩

① 檢地(토지조사정책)……1582~1598. 太閤檢地

: 히데요시에 의한 일련의 검지.

- : 檢地란 봉건영주가 자신의 영지를 파악하기 위해 田畑, 屋敷地를 조사하는 것.
- : 差出檢地(指出검지)……종래의 전국다이묘나 노부나가의 검지 신고제. 가신에게 자기領地의 명세서를 제출시킴
- 전국시대 가신은 아직 독립성이 강하여 영주가 가신의 영지에 들어가 실측조사를 통일적으로 행할 수 없었음
- : 太閤檢地에서는 秀吉의 직신들이 檢地奉行이 되어 實地測量을 행함.
- 검지실시규칙인 檢地條目을 만들어 각지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검지를 행함.
- 토지의 면적표시는 새로운 기준으로 마련된 町, 段, 畝(무), 歩로 통일.
- 곡물의 양을 재는 마스(枡)도 종래 지역과 용도별로 여러 종류가 사용되던 것을 京枡으로 통일.
- : 검지방법……전국의 토지를 사단계(상, 중, 하, 하하)로 등급을 매김.
- 이에 기초해서 사전에 일정면적의 표준수확고(米의 예상수확고)인 石盛(こくもり)을 확정. 石盛에 면적을 곱한 것이 石高. 石高란 田地의 기준적인 예상수확고를 쌀로 표시한 것. 토지의 생산력을 쌀 수확고로 표시.
- : 검지에 의해 촌의 생산고는 石高로 표시되고 다이묘령도 村高를 근거로 한 석고로 표시.
- : 석고는 다이묘에게는 균역부담의 기준, 농민에게는 연공부담의 기준.
- : 年貢……石高에 일정한 연공부과율을 곱한 것. 실제로 영주에게 납부되는 연공납입액. 통상적으로는 石高의 3분의 2를 영주에게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
- : 이로써 모든 大名들의 석고가 확정되고 다이묘는 석고에 걸맞는 균역을 부담하는 체제가 구축됨.
- : 검지를 거부하는 자는 영주건 백성이던 모두 참살한다고 위협하면서 실시.
- : 새로 정복한 지역에는 반드시 검지를 실시.
- : 전국66개국의 石高 약1800만(1598). 全國지배의 상징.

② 刀狩令……1588년

- : 농민의 무기(刀, 脇差, 弓, 槍, 鐵砲)를 몰수하고 소유를 금지. 농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
- : 검지와 중과세에 반항하는 잇키를 봉쇄하여 兵農分離를 추진하려는 것.
- : 농민의 무기소지 금지정책은 전국시대를 통하여 형성된 자신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

해서는 누구라도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관념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많은 저항이 예상했음.

: 몰수한 무기는 京都 方廣寺(秀吉 건립)의 대불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므로 현세도 내세도 구원받는다는 명목으로 몰수.

: 1592, 조선침략

5. 이에야스의 대두와 히데요시 말년의 政局

: 이에야스는 1543년 1월일 미카와(三河) 오카자키(岡崎)성(아이치현)에서 출생. 아버지는 마쓰다이라 히로타다(松平廣忠). 날로 강성해지는 노부나가와 이마가와씨 사이에서 고전하다가 부친 히로타다가 1549년 가신에 의해 살해당하고, 이에야스는 이마가와씨 휘하에서 8세부터 19세까지 인질로서 생활함.

: 1560년 오케하자마(桶狭間) 전투---이마가와 요시모토 戰死 후 이에야스는 이마가와 군 중 가장 뒤늦게 적지를 탈출. 오카자키 성으로 입성함으로써 인질의 신분에서 해방됨. 가신들을 앞세워 세력 확장에 몰두하다가, 1561년 이마가와 씨를 배신.

: 1562년 비밀리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군사 동맹을 결성.

: 미카와의 內政을 어느 정도 정비한 이에야스는 미카와의 동부에서 이마가와씨를 완전히 몰아내고 미카와를 통일. 1566년 姓氏를 세이와(清和) 겐지(源氏) 계통의 도쿠가와(德川)로 바꿈.

: 1582년 이에야스는 스루가, 도오토오미, 미카와 등 세 개의 국을 장악.

: 1584년 고마키 나가쿠테 전투. 히데요시를 패배시킴

: 1590년 전국 통일을 달성하자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교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이에야스의 영지인 도카이도(東海道)에서 간토(關東)지역으로 轉封시킴. 간헐슈(關八洲) 지역과 이즈(伊豆). 1590년 8월 에도(江戸)에 입성.

b 에도막부의 근거지

: 에도 건설 이후,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와 다른 다이묘들 중간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 1590년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와 오슈의 다테 마사무네(伊達政宗) 간의 화해를 주선하여 성공시켰고,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구로다 나

가마사, 아사노 나가마사,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등 의 무단파 무장을 변호하여 그들의 신망을 얻음. b 후일 에도 막부 수립에 작용

: 1598년 히데요시는 죽음을 앞두고, 어린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보좌할 다섯 다이로(五大老)와 다섯 부교(五奉行)를 뽑아 정책을 결정하도록 유언.

이에야스는 마에다 도시이에, 모리 데루모토, 우에스기 가게카쓰, 우키타 히데이에와 더불어 다섯 다이로로 뽑혔고, 집행 기관인 다섯 부교에는 문관파인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아사노 나가마사, 마에다 겐이, 나쓰카 마사이에, 마시타 나가모리가 뽑힘.

→ 도요토미 정권의 경우 그의 심복으로 활약한 인물들이 존재했지만 그 인물들의 합의 기관 또는 정권의 중추라고 할 만한 정치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음

: 武斷派 무장과 文吏派 무장 간의 불화. 이에야스, 무단파와 손잡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

: 1600년 세키가하라(關ヶ原)전투. 이시다(서군) v s 이에야스(동군).

서군에 가담했던 88家の 다이묘를 멸망시키고 5家를 감봉 처분함. 총 632만석을 몰수. 전국 다이묘의 총 石高 1800만석의 3분의 1이 영주 없는 공백지가 됨.

이에야스는 이 몰수지를 도쿠가와씨의 직할령으로 편입하거나 도쿠가와 편에 섰던 다이묘에게 하사.

: 1603년 이에야스, 쇼군(征夷大將軍)에 취임하여 에도에 막부를 개창.

b 260년간의 정권

6. 에도막부의 성립과 정치체제

: 쇼군직을 2년 만에 아들 히데타다(秀忠)에게 물려 줌.

: 大御所와 쇼군의 이원체제

1607년 家康, 秀忠에게 에도성을 주고 駿府(시즈오카 시)로 거성을 옮김.

大御所로서 家康이 幕政을 실질적으로 장악. 막부의 중신들을 양쪽으로 분할하여 정권을 운영. 아직 미숙한 정권인만큼 秀忠에게 領地安堵權을 행사하게 하여 쇼군으로서 다이묘들의 충성을 맹세받도록 하고, 자신은 전국시대를 통해 구축한 다이묘와의 인맥관계 등을 십분 활용하여 현직 쇼군을 보좌하는 역할.

: 對 도요토미씨 정책

: 1611. 천황의 양위식 거행. 이에야스는 교토로 가서 천황의 양위식을 직접 주재. 히데요리(秀頼)도 양위식에 참가(加藤清正이 설득)하여 이에야스와 면대.

: 1614. 교토의 호코지(方廣寺)鐘銘사건

方廣寺는 히데요시가 교토에 설립, 大佛을 안치한 사원(關白에 의한 鎮護國家의 상징, 豊臣家の 氏寺). 히데요리는 수길(水鏡)이 남겨준 재산 金 수만냥을 투입하여 높이 19미터의 거대한 金銅像, 3.2m의 鐘을 완성.

鐘銘(國家安康, 君臣豊樂)은 도쿠가와씨를 저주한 것이라는 트집

: 오사카 겨울 전투(冬の陣)(1614)

家康은 일찍부터 영국, 네덜란드 상인으로부터 유럽제 대포를 구입. 미리 전쟁 준비를 해 둠. 豊臣恩顧의 다이묘들은 거의 히데요리의 출병 요청에 응하지 않음. 강화가 성립 되었으나 도요토미 쪽에는 강화에 불만인 자가 많아 로닌을 다시 모아 전쟁준비에 돌입.

: 오사카 여름 전투(夏の陣)(1615)

本丸 만으로 농성전을 벌임. 히데요리 母子의 자결. 아들(8세)은 교토에서 참수. b 도요토미씨 멸족

: 오닌의 난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의 시대가 1615년 오사카 전투를 끝으로 막을 내림.

* 도쿠가와 쇼군의 권력……역대 막부의 쇼군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였고 토지와 인민에 대한 전제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었음.

: 경제력……天領(御領, 御料)이라는 쇼군의 직할령을 보유. 도요토미 시대에는 250만 석. 17세기 말에는 700만석(직할령이 400만석, 하타모토령이 300만석)

전국의 총 石高 약 3,000만석 중 4분의 1을 쇼군이 지배.

에도, 교토, 오사카, 나가사키 등의 주요 도시와 금은광산이 직할지 무역의 이익을 독점. 화폐 주조권을 장악.

: 군사력……군사력의 중핵은 直參이라고 불리는 쇼군 직속의 家臣.

하타모토(旗本)(장군의 직속 가신단 중 1만石 이하. 오메미에御目見이상, 직접 쇼군을 알현할 수 있는 자)6~7만. /고케닌御家人

* 막번체제

: 에도막부와 이 이전의 막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藩이 성립되었다는 점.

: 번이란 다이묘가 지배하는 領地와 그 지배기구(정치조직). 다이묘들은 家臣團을 편성

하여 농촌과 도시를 지배. 가신단을 행정관료제적으로 편성하여 번내의 정치를 행함.

: 막부의 쇼군과 지방의 번주인 다이묘가 주종관계를 맺어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는 봉건적인 정치체제. 조세를 부담하는 농민을 기초로 하고 士農工商등의 엄격한 신분제에 의해 질서화됨.

* 쇼군과 다이묘 主從관계

: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의 본질은 군사적인 주종관계.

: 쇼군은 다이묘에게 새로운 영지를 하사하거나 기존의 영지지배를 승인하여 御恩을 베풀으로써 다이묘들의 主君으로서 그들 위에 군림. 에도시대 초기에 확정된 다이묘의 영지는 改易이나 減封처벌을 받지 않는 한 그대로 상속됨.

: 다이묘는 쇼군에게 신하의 예를 취하여 영지지배를 인정받고 자신의 가신단을 이끌고 軍役奉仕를 행하는 것이 원칙.

軍役은 石高를 기준으로. 병사와 무기에 대한 규정이 있었음. 다이묘는 석고에 상응하는 규모의 병사와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가 戰時에 쇼군의 명령이 있으면 출동.

ex)大阪の陣, 島原の亂(1637,38), 長州征伐(1866)

평상시에도 준군사적인 성격을 지닌 봉사가 요구되는데 이것도 군역의 원리에 의거하여 인원수와 무기를 갖추어 행하는 경우가 많음

ex)쇼군의 出行시에 호위(京都上洛, 日光東照宮への參拜), 에도성의 경비와 에도의 소방업무, 성곽수축과 하천공사, 조선통신사 등 외국사절의 호위 및 접대업무

* 막부의 행정조직

: 에도막부의 제도는 秀忠과 家光의 시대에 거의 정비됨. (배포자료 참조)

* 다이묘의 통제

: 쇼군과의 친소관계, 知行高의 정도, 관위, 막부내에서의 직위 등을 근거로 하여 서열이 정해짐. 전국에 270씨. 최대는 加賀의 마에다(前田)씨(103만석).

: 쇼군과의 親疎관계

신관親藩……도쿠가와씨 일족의 다이묘. 御三家(尾張, 紀伊, 水戸)

후다이譜代……원래부터 도쿠가와씨의 가신이었던 다이묘.

토자마外様……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씨에게 복종한 다이묘.

: 一國一城令(1615)---다이묘의 거성을 한 곳으로 제한. 거성 이외의 모든 성을 파괴시킴. 군사력을 약화시킴. 일부 예외가 인정. 장군에 의한 다이묘 통제책으로만 평가되어 왔으나 家臣의 성 소유를 금함으로서 다이묘의 권력 강화를 초래한 측면도 있음.

- : 武家諸法度(1615)---다이묘의 반역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 막부의 허가 없이 城을 무단으로 수축해서는 안 됨. 대규모의 선박주조 금지. 쇼군의 허가 없이 다이묘 상호간의 혼인관계 불가
- : 改易, 減封, 轉封---2대, 3대 쇼군 시기에 120家 이상의 다이묘를 개역. 대대적인 다이묘 재배치를 실시. 親藩, 譜代다이묘를 關東, 東海, 近畿 등 전국의 요지에 배치하고 유력한 外樣다이묘는 에도에서 먼 지역에 배치. 나아가 규슈, 四國, 동북지방과 같은 원격지에도 요소요소 덕천계열이나 譜代다이묘를 배치. 전국지배를 위한 막부의 전략적인 배려가 근저에 깔림.
- : 參勤交代制---다이묘가 격년 교대로 가신들을 거느리고 영지를 떠나 에도에 와서 생활하며 쇼군을 배알하는 것. 히에요시도 실시. 처자는 에도에 살게 함.
에도에 가신들을 상주시켜야 했음(藩邸). 上屋敷/中屋敷/下屋敷
규정된 규모의 군단을 편성하여 에도와 영지를 정기적으로 왕복. 재정적 부담. 에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교통로가 발달.
ex) 1688년, 土佐번의 참근교대비용은 번의 총지출의 약 40%
에도의 인구 약 100만명 중 武家の 인구가 50%, 공간적으로도 武家地가 70%.

7. 대외관계와 鎖國

- * 신교국 영국과 네덜란드의 일본진출(국가의 보호아래 아시아로 진출)
- : 네덜란드.....1581,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1602, 동인도회사를 건립.
- : 영국.....1600, 동인도회사를 건립. 인도로부터 아시아 전역에 진출.
- : 네는 1609년, 영국은 1613년 각각 일본에 내항하여 家康의 허락을 얻어 平戶에 商館을 설치. 영국은 경영부진을 이유로 일본에서 철수(1623, 商館을 폐쇄, 자진철수).
- : 결국 네만이 에도시대에 유일한 유럽국가로서 활동.

- * 朱印船무역(1604-1635)
- : 17세기 초에는 일본인의 해외진출이 활발.
- : 朱印船 무역이란 중앙정권의 보호무역. 막부는 해외로 진출하는 상인에게 朱印狀이라

- 는 공문서를 교부하여 商船이 해적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이 배를 朱印船이라 함.
- : 家康는 무역상대국에 서한을 보내 무역허가증인 朱印狀을 가진 무역선에 대해서는 무역상의 편의와 보호조치를 취해 줄 것을 의뢰함. 朱印船제도의 창설을 알린 것.
 - : 朱印狀(異國渡海朱印狀)에는 「自日本……國舟也」라고 도항지가 명기되고 「源家康弘忠 恕」라는 朱印이 날인되어 있음.
 - : 朱印船은 일본의 銀을 적재하고 동남아시아나 南洋諸島에 도항하여 현지인과 또는 그 지역에 도항한 중국선과 무역을 행함.
 - : 무역품……수입품 : 생사, 견직물, 피혁, 사탕, 香木, 염료
(주인선무역 전성기의 生絲수입량은 포선의 일본수출량을 압도할 정도)
수출품 : 은, 동, 철, 유황, 쌀, 세공품
 - : 朱印船을 파견한 것은 교토, 오오사카, 堺, 博多, 長崎 등의 豪商들과 서국 다이묘들(島津, 加藤, 鍋島, 細川, 松浦, 有馬), 막부관리, 외국인(윌리엄 아담스, 얀 요스텐, 중국인)등 100명에 달함. 그러나 1609년, 막부는 제다이묘가 500石積이상의 大船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이묘의 朱印船 파견은 불가능해져 이후 주인선영업자는 막부와 관련이 깊은 특권상인에 한정됨.
 - : 주인선의 해외도항활동도 1635년의 법령(일본인의 해외도항 전면금지)으로 철폐됨.
 - : 1604년부터 일본인의 해외도항이 금지되는 1635년까지 약350여척의 朱印船이 동남아시아의 각 지역에 도항.

* 日本町 (日本人町)

- : 朱印船이나 외국의 선박에 편승하여 동남아시아지역으로 진출한 일본인은 약 10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상당수에 이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 등지에 日本町이라는 일본인 촌락이 형성됨. 일종의 상업이민.
ex)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일본인 이름.
- : 日本町의 주민은 통상무역에 관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상업이민이 주된 구성원. 그 외에 전란으로 主君을 잃은 浪人, 막부의 기독교 금압정책으로 추방되거나 도피한 기독교도들, 외국인에게 고용된 자들 등.
- : 일본정 전성기의 주민수……루손일본정3,000명, 타이1,500명, 캄보디아350명. 일반

적으로 일본인에 의한 自治制를 유지했고 治外法權을 인정받기도 함.

: 쇄국체제가 강화되어 1635년에 朱印船 무역제도가 전면적으로 정지되자 日本町은 본국과의 유대단절로 점차로 쇠퇴하여 18세기에 소멸. 마닐라의 日本町은 1762년까지 존속됨.

*막부의 무역정책

: 家康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지만 무역은 보호 장려했기 때문에 포교를 묵인.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무역이 일본산 銀과 중국산 生絲(白絲)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 生絲는 당시 일본의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대단히 높았음. 명과 직접 통교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던 일본이 이 생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포르투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음.

家康이 초기에 포교를 묵인했던 이유는 포를 매개로 생사를 수입,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것.

*쇄국정책의 본격화

: 그러나 신 앞에서 평등을 설파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일본의 봉건적 신분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一神敎적 성격은 기성종교와 대립하였고 일부다처제의 금지, 切腹의 금지 등은 봉건도덕과 모순됨. 신도의 증가와 단결은 봉건지배의 강화를 꾀하는 막부의 두려움을 불러 일으킴.

: 막부는 큐슈의 다이묘들이 무역의 이익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 함. 이러한 이유에서 막부는 점차 기독교의 금압과 무역의 통제를 강화.

1612, 막부의 直轄領에 기독교금지령.

1613, 전국에 금지령을 확대. 교회 파괴, 선교사의 추방, 신도의 개종을 강요. 선교사 추방후에도 일본잠입이 계속됨.

1616, 유럽인의 寄港地를 히라도(平戸), 나가사키의 2항에 제한. (중국선은 예외). 다이묘의 영내에 유럽선이 내항하면 이를 모두 히라도, 나가사키로 回航시킴.

1622, 55명의 선교사(잠입한 선교사들)와 신자들을 나가사키에서 화형으로 처형. (元和大殉敎)

후미에(踏繪)의 방법으로 기독교도를 색출. 寺請제도를 강화하여 신자를 불교로 개종 시킴.

1624, 선교사의 잠입을 방지하기 위해 스페인 선박의 내항을 금지.

1635, 일본인의 해외도항과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귀국을 전면 금지.

중국선의 寄港地를 長崎 데지마(出島)로 이주시킴.

1637-8, 시마바라(島原), 아마쿠사(天草)의 난 발생

일반적으로 島原·天草의 난은 기리시탄一揆로 불림.

두 곳 모두 기리시탄 다이묘의 舊領인 까닭에 막부의 금교정책하에 일단 신앙을 버린 크리스티교도나 몰래 종교를 고수하는 신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봉기에 참가했던 것은 사실.

그러나 領民봉기의 근본적 원인은 신영주의 연공징수에 의한 酷政에 있었음. 영주의 혹정에 대한 반항과 기리시탄 금압에 대한 반항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일어난 農民一揆.

→ 이 사건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난이었으나, 막부는 반란세력 중에 크리스티교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기리시탄一揆로 과대 선전. 禁教정책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

→ 1638년 2월 막부군의 총공격. 일규 세력이 완전히 전멸, 진압됨.

1639, 포선의 내항을 전면금지. 島原의 란이 큰 요인으로 작용.

1641, 平戶 네덜란드상관을 데지마(出島)로 이전. 長崎奉行의 감시 하에 둠.

일반 일본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네덜란드인을 감시하기 위한 시설.

b 쇄국의 완성

: 이후 무역항은 나가사키 한곳으로 제한되었고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선과 중국선만 내항하게 됨.

: 쇄국의 시대 네 개의 창구 說

長崎---네덜란드, 중국

對馬藩---조선

薩摩藩---류큐(琉球)

松前藩---아이누

[일본전근대사 참고문헌]

-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사계절, 2011
- 아사오 나오히로 지음, 이계황 외 옮김 『새로 쓴 일본사』, 창작과비평사 2003 연민수편
저, 『일본역사』, 도서출판보고사, 2000
- 동경대학교양학부일본사연구실편 김현구·이언숙역, 『일본사개설』, 지영사, 1998
- 박경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일빛, 1998
- 정혜선 『일본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2011
- 김희영 『야마토 시대부터 전후 일본까지 (이야기 역사 시리즈)』 청아출판사, 2006
- 우리미래역사체험학습 강사진 『한 권으로 풀어 쓴 이야기 일본사 (이야기 역사 시리즈
12)』 청솔, 2011
- 키토 히로시 지음, 최혜주, 손병규 옮김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 어문학사, 2009
- 전국역사교사모임 지음 『처음 읽는 일본사』, 휴머니스트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참고문헌]

- 무라이 쇼스케 지음, 이영 옮김, 『중세왜인의 세계』, 도서출판소화, 1998
- 다시로 카즈이, 『왜관』, 논형, 2005
- 이영·김동철, 이근우공저, 『전근대한일관계사』,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고대사를 보는 시각과 쟁점
- 상고사 논란을 중심으로 -

• 하일식 (연세대학교) •

고대사를 보는 시각과 쟁점 - 상고사 논란을 중심으로 -

하일식 (연세대학교)

1. 황당한 주장의 횡행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에는 고대사에 관한 기상천외하고 황당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 수십년간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상을 달리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리고 있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 물이성적 분위기가 높아져온 탓이라 진단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들의 대표 사례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중산도에서 주장하는 일종의 ‘동이족 세계문명 창조설’이다. 중국 북부에서 내몽골에 걸친 지역, 즉 곤륜(崑崙)산맥에서 바이칼호에 걸친 넓은 곳에서 고대문명을 일으킨 환국(桓國)·환족(桓族)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중국과 메소포타미아는 물론 이집트까지 포괄한 세계 4대 문명을 창조하고, 아메리카 대륙으로까지 뻗어나갔다는 것이다. 동이족이 없었다면 지구문명 자체가 생겨나지 않았던 셈이다.

신라, 백제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단체는 일찍이 10여 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회에서 발표회를 열고, 이 자리에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나와 축사를 한 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경주에 있는 고분은 누구 것인가? 고조선부터 엄청난 인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인구에 인구증가율을 역산해도 한반도 인구 만으로는 안된다. 대륙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라를 중국 감숙성 부근으로까지 갖다 놓는다. “경주에는 신라의 건물이 없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표회에 적지 않은 인파가 모인다.

심지어 중국 시안(西安)에 있는 황제릉들이 고구려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긴 초대형 고분들이 고구려의 것인데, 2차대전 당시 미군 항공기 조종사가 발견했으나 중국이 이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결같이 근거없이 지어낸 황당한 이야기들이다. 시안 답사객은 흙으로 쌓은 거대 황제릉, 귀족묘를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 뭘 숨긴다는 것인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든다.

심각한 것은 이런 이야기에 빠져 돈을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낙랑군이 평양이 아니라 요동, 요서 지방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더 서쪽으로 옮겨 황하 유역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들은 학계를 ‘식민사학’이라 한목소리로 비난하며 ‘영광스런 상고사’, ‘웅대한 고대사’를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족의 기상, 자존심’을 들먹이기도 한다. 중국도 왜곡하는데 왜 우리는 신중해야 하느냐고 강변하는 경우도 있다.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식민사학’이라는 비난을 퍼붓는다. 그러나 역사는 “그랬어야 한다고 믿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을 밝혀 오늘날 되새겨보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과거 사료를 신중하게 다룬다.

고대사 영역에는 사실 자체를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여러 의문과 함께 서로 다른 주장이 충돌하며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다만,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사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확정짓기 어려울 때는 최종 판단을 보류하는 것도 지혜로운 태도이다. ‘광대한 영토’나 ‘영광스러운 고대사’에 끌리기 쉽지만, 막연한 환상이나 아쉬움에서 생겨난 경우가 많다. 현실에 대한 불만을 과거를 향해 표출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역사 이해 태도는 아니다.

2. 『환단고기』의 구성과 내용

특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례 없이 높아지기 시작한 황당한 주장들은 선동가의 활동, 정부 기관에 자리잡은 몇 인물들의 활동을 거쳐 많은 민간단체들이 가입한 ‘미래를 여는 바른 역사협의회’(2016. 6)로 모였다. 여기에는 100여 개의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앞서 언급한 황당한 주장들을 가지각색으로 내놓으며, 주장이 다른 경우도 꽤 있지만, 어쨌든 하나로 모여 있는 상태이다.

황당한 주장들을 ‘가짜 역사’라는 뜻으로 ‘유사역사’, ‘사이비역사’(pseudo history)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제도권 학계’에 몸담은 경우와 대비하여 ‘재야사학’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제도권에도 일부 인사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이비역사라고 부르는 경향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이비역사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학(學)’이라는 글자를 붙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어쨌든 이런 부류에 속한 주장들은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집합을 들라면 대부분 『환단고기』를 신봉한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환단고기』는 ‘위대한 상고사’를 증명하는 사료(?)인데, ‘식민사학에 젖은 학계’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단고기』는 어떤 책인가?

거의 알려지지 않다가 1980년대 초에 뜬금없이 다수의 번역본이 대형서점 서가를 차지하면서 신봉자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환단고기』 신드롬은 일본으로부터 거꾸로 들어온 것이었다. 아래 사진은 일본에서 역수입된 『환단고기』의 일부이다.



[그림] 일본에서 역수입된 『환단고기』 韓籍을 펼친 것처럼 만들었음.

일본어판 『환단고기』는 1982년에 나왔고, 이것을 기초로 한글판이 여럿 나왔다. 요즘은 증산도 관계자가 번역한 것들이 시중 서점 서가를 잔뜩 차지했다. 그런 과정은 차치하고, 먼저 이 책의 구성을 소개해보자. 『환단고기』는 원래 4개의 소책자를 하나로 합친 것이라고 주장된다. 고려 말기에서 조선 중기에 걸친 시기의 것들이다. 그러나 목판본이나 필사본이 없다. 20세기 초에 간행되었다고 주장되나 현존하는 것이 없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이 1979년에 마스터인쇄된 소책자뿐이다. 이 책은 구해보기가 매우 어렵다.¹⁾

1) 연세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나도 최근에 알았다(퇴임교수 기증본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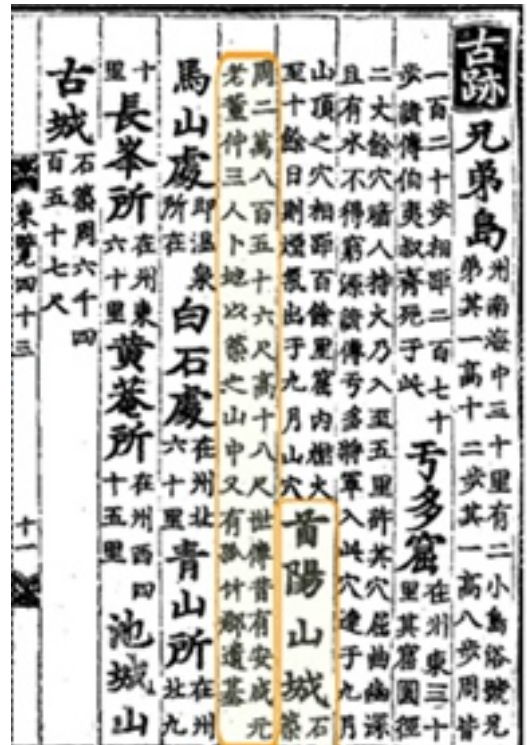
환단고기를 구성한 4책

삼성기(三聖記) : 안승老的 상편 + 元董仲의 하편	주 장 되 는 내 용	1457년(세조 3) 이전에 만들어진 것
단군세기(檀君世記)		고려말 이암(1297~1364)이 1363년(공민왕 12)에 저술
북부여기(北夫餘記)		이암과 동시대의 범장(范樟)이 찬술
태백일사(太白逸史)		이맥(1455~1528)이 찬술

『환단고기』를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 이유립(李裕笠, 1907~1987)이다. 그가 계연수(?~1920)로부터 “60년 뒤에 공개하라”는 당부를 듣고 보관하다가 원본을 분실하여 기억을 되살려 다시 썼다는 말도 있다. 계산해보면 이때 그의 나이가 13세 남짓이었다. 그는 단군교 계통에서 활동하다가 1970년대에는 극우반공 잡지인 『자유』지에 상고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4권의 다른 책을 묶었다고 주장되지만, 한문 원문을 읽어보면 한 사람이 쓴 듯이 문체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한문(漢文) 자체가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의 문장이라기보다는 20세기 한문이다. 문구가 짧게 끊어지고, 유학적 소양에 기반한 비유적 줄임말²⁾도 나오지 않는다. 지어낼 근거 자체가 부족한 고조선 등은 아주 짧은 단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부여나 옥저, 고구려 초기 등은 『삼국지』 등의 근거 자료가 있는 만큼, 이들을 활용하여 부연한 문장으로 채워져 있다. 문장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비할 수 없이 단조롭다. 한글 창제 이전, 어릴 때부터 평생 한문으로 격조높은 문장을 구사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학계에서는 작아도 20세기 이후



[그림2]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양산성’

2) 예를 들면 管仲과 鮑叔을 管鮑라고 한다든가.

에 만들어진 책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더구나 『환단고기』는 만들어낸 과정에서 치명적 착오를 일으킨 곳도 발견된다. 첫 부분을 이루는 「삼성기」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 상편은 안함로(安含老), 하편은 원동중(元董仲)이 찬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끊어읽기를 잘못된 결과였다. 「삼성기」의 내용에는 3인의 성인(聖人)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해주목조에 보면 안함(安咸)·원로(元老)·동중(董仲)이라는 3인의 이름이 나온다.

수양산성(首陽山城) 돌로 쌓았다. 둘레 2만 8백 56척, 높이 18척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옛날에 안咸·元老·童仲 3인이 터를 점쳐서 쌓았다”고 한다. 산 속에는 孤竹郡의 遺基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3 해주목 고적조 ‘수양산성’)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환단고기』의 안함로, 원동중이라는 것이 안함·원로·동중 3인을 잘못 끊어 읽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3. 근대 용어, 만들어낸 ‘한국’

원본의 출처와 전해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오락가락하며, 원본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신뢰성에 치명적이다. 또 학계에서 일찍이 『환단고기』가 위서임을 밝힌 주요한 근거는 근대 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고려말, 조선초에 작성된 책들을 묶었다는 있을 수 없는 용어들이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文化), 남녀평권(男女平權), 세계만방(世界萬邦), 자아(自我) 등이 그런 용어이다. 문화(culture)는 19세기 이전에 문치교화(文治教化)의 줄임말이고 culture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다. 남녀평권이라든가 세계만방도 19세기 이전에 쓰일 수 없는 단어이며, 자아는 근대철학의 ergo가 일본에서 한자어로 번역되어 한국에 들어온 낱말이다. 한편 청나라 이후에 쓰인 영고탑(寧古塔), 상춘(常春, 長春) 등의 지명도 『환단고기』에는 버젓이 나온다. 그러나 유사역사 신봉자들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종의 종교적 신념처럼 머리 속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한편 『환단고기』의 첫 챕터인 「단군세기」 서문에는 백암(白巖) 박은식의 『한국통사(韓國痛史)』 서문을 표절한 구절이 나온다.

나라는 形과 같고 역사는 魂과 같은데 形이 魂을 잃고 보존될 것인가(國猶形 史猶魂 形可失魂而保乎) (『환단고기』 「단군세기」)

옛사람이 나라를 멸망해도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개 나라의 形이고 역사는 神이다. 지금 한국의 形은 허물어졌으나 神만이 홀로 존재할 수 없을까. 이것이 통사를 짓는 까닭이다. (古人云 國可滅 史不可滅 蓋國形也 史神也 今韓之形毀矣 而神不可以獨存乎 此痛史之所以作也) (박은식, 『한국통사』)

박은식의 『한국통사』는 1915년 상해에서 출판되었고, 1946년 국내에서 재출간되었지만 구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1975년 『박은식전서』에 수록되어 보급되면서 쉽게 구해볼 수 있는 상태였다. 『환단고기』 신봉자들은 박은식이 『환단고기』를 베꼈다고 우긴다. 그러나 「단군세기」가 고려말 이암이 지은 것이라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공민왕 무렵의 고려시대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지만 역사라도 간직하자”고 생각했을 여지는 없다. 식민지 경험을 지닌 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누가 누구를 베꼈는지는 상식적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환단고기』의 4번째 챕터인 「태백일사」에는 연개소문의 아버지(太祚), 할아버지(子遊), 증조부(廣)의 이름이 나온다. 그런데 연개소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은 1921년 중국 낙양에서 연개소문의 아들 천남생의 묘지명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버젓이 적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곳에 보이지 않는 증조부의 이름까지 지어서 넣은 것이다.

그렇다면 『환단고기』는 언제 지어졌을까? 학계에서는 20세기 초 또는 해방 전후로 짐작하지만 나는 1970년대 중후반이 아니었을까 추정한다.³⁾

사이비역사 주창자들은 『환단고기』에 입각하여 아득한 상고시대에 환국(桓國)이 있었고, 단국(檀國)이 뒤를 이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증산도에서 이 내용을 크게 이야기하는데, 환국이 중국 대륙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묘사된다. 그런데 이 시대는 신석기시대에 해당한다. 신석기시대에 유라시아에 걸친 대제국(!)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국이란 『삼국유사』 임신본(조선중기본)에 실린 단군신화에 나오는 글자를 억지로 오독(誤讀)한 결과이다.

『삼국유사』 임신본의 단군신화에 나오는 구절은 이렇다.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桓因(帝釋을 말한다)]의 서자인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 ” 임신본에는 여기서 환인(桓因)의 글꼴이 桓王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유사역사 주창자들은 환국의 존재를 주장한다.

3) 이유립이 지은 또 다른 책자가 연세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桓丹彙記』라는 단군교 계통의 종교서적으로, 1970년대 전반에 간행된 韓裝本이다. 나는 이 책을 낸 이후에 지어낸 것이 『환단고기』라고 추정한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메모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일연은 환인 뒤에 “제석을 말한다(謂帝釋也)”라고 주석을 달아놓았다.⁴⁾ 문맥상 환웅의 아버지인 천신(天神)의 이름이 환인인데도, 역사를 조작하는 이들은 나라 이름이라 우기며 환국을 거대한 제국이라고 선전하고, 단국(檀國)이 뒤를 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민족을 내세우고 고대의 영광을 이야기한다.

연세대 박물관에서 2016년 초에 공개·배포한 『삼국유사』 파른본(조선초기본)에는 이 글자가 선명하게 환인(桓因)으로 확인된다. 즉 파른본에는 桓土에 가까운 글꼴로 판각되어 있는데, 이는 因 자에서 안의 大를 흘려 쓸 때 생긴 글꼴(五體字典)이 조금 어색하고 각지게 판각된 결과이다. 잘못 새긴 결과[誤刻]인 셈인 것이다. 口 자 안의 글자가 大 자임은, 해서(楷書)에서 행서(行書)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서예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파른본 왕력의 國	임신본	파른본	대의 글꼴(五體字典)	고려대장경의 甫因

결국 ‘파른본’의 공개와 함께 ‘환국’의 존재는 허구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이버역사가 억지스레 조작해낸 것이 ‘환국’과 ‘단국’이었던 것이다.

4. 1990년대의 ‘다물민족주의’

식민지 경험을 지닌 한국 사회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하는 시민의식이나 인간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 인권의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을 강조하는 움직임은 종종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뺏어놓고 우리는 하나’임을 강조하며 일체감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 현실 사회에

4) 일연보다 조금 뒤 고려 말 이승휴도 환인을 제석으로 이해. 그가 1287년(충렬왕 13) 삼척 두타산에 은거하여 쓴 서사시인 『제왕운기』 “옛날 누가 나라를 열고 풍운을 걸었던가. 제석의 손자 단군이다. … 1028년간 나라를 다스리니 桓因이 전한 것에 변화가 없었으랴. …”

존재하는 부조리나 불합리에 대한 구성원의 자각이 둔화된다. 시민 개인의 마땅한 권리는 전체라는 ‘더 큰 가치’ 앞에서 양보를 강요받으며, 심할 경우에는 지극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행태로 비난받기도 한다. ‘상상된 전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권력을 비판하면 억압이 뒤따른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가 대개 국가, 국민, 민족, 국론통일 등을 내세웠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매우 추상적 이야기같지만, 영광스런 고대사를 주창하며 민족의 자부심을 강조하고, 이를 대중에게 조직적으로 설파함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킨 실제 사례가 있다. 1990년대 산업계·노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다물민족주의’가 그 경우이다. 부풀린 민족의식으로 일체감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애국주의에 매몰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노동권익에 등을 돌리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다물민족주의’였다.

1980년대 말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는 ‘다물민족연구소’가 1990년대 들어 ‘다물민족학교’를 운영하면서 국내 대표적 대기업 사원들의 위탁 연수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연수교육이 거듭되면서 경영진과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이 회사의 다물교육에 반대하면서 충돌하는 경우도 생겼다.

인천의 두산기계가 생산직 사원 600여 명을 경남 산청의 다물민족학교에 입소시켜 교육을 실시하자 노조가 반대하자 불참한 사원 18명을 해고·징계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대전의 한라공조가 다물교육에 반대하는 노조간부를 해고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다.⁵⁾ 이들 노조가 반대한 이유는 다물교육이 우경 의식화 교육이며 반노조 성향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었다.

물론 다물민족학교의 교육이 고대를 향한 환상적 자부심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민족주의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기업경영 분석을 통해 어려운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고, ‘건전한’ 기업 풍토를 저해하는 급진 노동운동을 비판하거나, 세계 경제의 현황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었다. 또한 담력 훈련, 국악 강습, 체력 단련과 궁중무술, 단전호흡 등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노동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 역사의 주체 세력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작은 불만, 작은 분노, 작은 슬픔에서 벗어나 역사를 이루는 주체 세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연수교육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온 뒤에 갖는 태도는 이전과 달랐다. 그들은 강한 민족의식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5) 「우경 의식화 '다물교육' 반대 한라공조 노조간부 해고 물의」 『한겨레신문』 1996년 12월 9일

일제 통치 시절의 정신대 문제와 얼마 전 TV에 방영된 독립투사 작두처형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을 설쳤으리라 생각된다. 우리에게 힘이 없다면 또 다시 이런 억울한 일들을 또 다른 강대국들에게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힘! 힘! 힘! 경제력! 우리는 경제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민족의 중지를 모아 단합된 힘을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 쏟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이명숙 1993 『노동현장에 파고드는 다물민족주의』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1993년 3월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손 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좀 더 큰 미래를 위해 양보하고 사랑하며, 함께 뛰어 보다 많은 것, 즉 먹을 빵의 부피를 키우자”며 지금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같은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할 때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동료들과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인천제철, 노조대의원 선거 개입

■ 인천 연안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문건 공개

‘눈엣가시’ 낙선-우호인물 출마 유도 보수성향 ‘다물단’에 4천만원 지원등 ‘노조 연성화’ 다각 시나리오 마련

인천제철이 노조 대의원선거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적극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제철은 또 노조원을 대상으로 보수 성향의 ‘다물단’ 조직을 따로 구성하기 위해 4000여만원 지원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일 인천 연안동천주교회 주임 신부(인천지역에 공안안감 의혹 경향구 명 시민조사단장)는 2일 “읽을 수 있는 제보자한테서 인천제철 인사부가 작성한 것으로 표시된 30여개의 노조 관련 컴퓨터 파일을 입수했다”며 회사 내부문건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1월26일 작성된 ‘99 대의원 출마권유 여부’란 제목의 문건은 노조 대의원선거 출마자의 신상정보와 성향(보수 또는 진보)을 주요 작성하고, 57개 전체 선거구 가운데 12곳의 지원 대상자 이름을 표시하고 있다. 선거결과를 분석한 다른 문건은 “계파별 대표자를 선정해 수시모임을 유도하고 (위원장 구속에 따른) 위원장

재선거에 대비해 합종연횡을 추진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98년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또다른 문건은 선거전략으로 △경쟁력있는 건전한 중신 소유자의 출마를 적극 유도 △자 계파의 출마를 독려하는 문제인물은 철저히 낙선 △편 대의원 중 보수성향인 사람 출마유도 △문제 대의원 불출마 유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건은 또 임단협 교섭 등 안전 심의를 대응하기 위한 네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는 발의자와 동의자, 배후지원자 등을 지칭해 이들의 발언내용까지 “과거대로 (상급단체 위임 대신) 조합 자체에서 교섭을 하는 것이 적당” “대의원들간에도 의견을 보편할 수 있도록 공회시간 필요” 등으로 적어놓고 있다. 또 “경각약화로 금년 임단협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금년은 임금-복지의 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결론까지 제시했다.

인천제철이 노조대의원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내부문건

또 내부문건에는 올해초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물단’을 구성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인사팀을 주관부서로 한 이 계획은 발기인대회, 창단대회 등의 세부일정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 예산 4000만원까지 책정해 놓고 있다. 다물단은 이 일정에 맞춰 지난 4월 창단했으며, 현재 18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다물단은 보수성향의 ‘다물민족연구소’가 전국의 주요 기업체에서 노조의 과업 등을 막기 위해 조직해온 것으로서, 몇 명뿐이던 인거부 자금지원 의혹을 사기도 했다.

조합원 2500여명 규모인 인천제철 노조는 96년 분장기 현 위원장이 당선된 뒤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바꿨으며, 지난해 7월 과업을 받아 본 위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제철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원호 인천제철 인사팀 차장은 “다물단은 회사에서 지원을 검토하다 노조의 반발이 있어 계획을 중단했다”며 “선거대책은 인사팀의 검토안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기섭 기자 marahin@hanjoo.co.kr

이런 활동은 자발적이었는데, 1990년대 초에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결성한 ‘여명회’라는 조직이 대표적이다.⁶⁾ 주축이 된 이들은 ‘다물민족학교’의 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었는데, 스스로 회비를 내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홍보물을 만들며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무렵에 각 기업에는 ‘다물단’이라는 단체가 출현하였다.

1990년대 초, 다물민족학교는 산업지도자 훈련 과정, 특별 훈련 과정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산업지도자 과정은 주로 생산직 조·반장이나 노조 간부, 현장 관리자들이 대상이었다. 당시 포항제철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다물민족학교 교육이 실시되었고, 금성사, 한국전력, 중소기업은행, 삼미정공, 강원산업, 고려강선, 광주 은행 등에서도 교육이 행해졌다. 다물민족학교의 연수교육은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군 간부와 공무원을 포함하여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쳤고, 일반 시민을 위한 강좌도 학술진흥재단 강당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다물민족학교의 교육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데 위력을 발휘하였다. 1992년 포항제철에서 노동조합원이 대량 탈퇴서를 제출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진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거제도의 대우조선으로 알려지는데, 다물교육 수료자 모임은 1992년 한 해에만 30여 회의 홍보물을 내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⁷⁾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여러 기업 노조가 다물민족학교 입소 교육을 둘러싸고 사측과 갈등하고, 사측에서 다물단을 음양으로 지원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영광스런 고대사를 내세우며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노동조합, 노동운동이 약화된 배경과 요인의 하나로 국가와 자본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캠페인을 들고, 특히 ‘다물민족주의’를 지적한 연구도 나와 있다.⁸⁾

앞서 언급했듯이, 다물교육은 노동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군 간부와 공무원,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 임원들이 이 교육을 거쳐 갔다. 그래서 노동계 이외에도 사회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이 교육을 거친 군 간부에게는 강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진다.⁹⁾

이상에서 1990년대 이후 노동운동에 미친 ‘다물민족주의’의 영향을 정리해보았다. 이를

6) 이 조직이 1993년 하반기에 ‘대우조선 다물단’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7) 이명숙, 1993 앞의 글, p.165.

8) 구해근 지음(신광영 옮김), 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pp.273~274.

9) 하나회 해체 이후인 1996년에는 해프닝도 있었다. 군내에서 다물학회를 조직한 장성과 중령이 전역조치되기도 했다(『고조선 고토회복, 다물학회 결성 '정감록장군' 전역조치』, 『경향신문』, 1996년 1월 19일).

사회 일부에 나타난 경험으로 국한하여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표자는 이를 노동 부문만의 국지적이고 특이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노동 부문에서 나타났던 ‘다물 민족주의’의 부정적 영향은,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현상의 축소판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5. 극우 소비니즘의 위험성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다. 때문에 민족주의는 쉽게 대중적 호소력을 지니고, 때로는 민족주의의 과잉 상태가 엉뚱한 방향으로 역작용을 낳기도 한다. 일제가 한국이 일찍부터 이민족 지배를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한사군의 존재를 강조한 까닭에, 한사군의 위치를 북경 근방이나 압록강 북쪽으로 돌려놓으면 민족 자존심이 지켜지는 듯 착각하는 경향도 있다. 낙랑군을 평양으로 보는 학계를 식민사학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그렇다.

그런다고 해서 고조선 멸망 후에 한사군이 설치된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차피 압록강 이북도 오랫동안 우리 고대사의 판도에 들어 있던 지역이었다. 일제가 낙랑군을 근대 식민지처럼 선전한 것이 악의적이고 비역사적인 것이며, 고대의 정복과 복속은 혼한 일이었다. 식민지배를 위해 개념 자체를 잘못 사용한 오류를 지적하면 된다. 몽상적 논리로 위치를 옮겨놓고 ‘정신승리’로 만족하려는 태도가 온당할까? 평양은 낙랑과 관련된 2천 6백기의 고분과 수만점의 유물이 출토된 지역이다.

313년 낙랑군이 고구려에 흡수된 뒤, 일부 주민이 요서지방으로 옮겨가 교군(僑郡)으로 존속했다. 그뒤 금주(錦州)의 낙랑군은 432년 북위(北魏)에 의해 북경 근방의 유주(幽州)로 이동했다. 여기에 조선현(朝鮮縣)이 설치되어 556년까지 존속했다. 교군(僑郡)임을 생각지 않고, 뒷 시기 기록에 나오는 요서지역이나 북경 근방의 낙랑군에 주목하여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고, 고조선의 강역을 엄청나게 넓은 지역으로 우기는 것은 사실을 부정하는 태도이다.

과거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며, 과거를 밝혀내고 확인하면서 해석하고 거기서 교훈과 지혜를 배우는 것이 역사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고대사’에 환호하면서 자긍심을 느끼려 하면 곤란하다. 역사 해석은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함. 때로는 불편한 사실일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찰하며 지혜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며 ‘위대한 민족’, ‘우리는 하나’임을 무작정 강조하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과거를 향한 환상은 현실의 환각제가 되기도 한다. 눈앞의 모순과 부조리를 직시하면서 개선하기보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고통을 잊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1990년대 ‘다물민족주의’ 사례는 환상적 민족주의가 초래할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축소판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실을 외면하고 환상적 고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극우적 성향과 결합되면 사회적 광기를 부추겨 파국적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판단이 탁상의 상상으로 그치지 않는다. ‘영광스런 고대사’를 주장하며 ‘미사협’에 가입한 한 단체가 2017년 3월초의 탄핵국면에서 중앙일간지 하단에 탄핵반대 광고를 9번이나 실은 것은, 이런 우려가 탁상의 상상으로 그치지 않음을 알려준다.

‘제3제국’, 아리안 민족주의를 내세운 독일 나치나, 일본 군국주의 등 20세기 전반기에 휘몰아친 파시즘은 대외적 적대감을 고취하거나 ‘내부의 적’을 만들어 야만적 참극을 빚은 역사적 사례들이다. 파시즘이 하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낱말이 개인에 우선하는 국가, 사회, 민족이었고 ‘애국’이었다.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까지, 우리 사회에는 권력에 의해 애국이 강요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었다.

애국이란 낱말을 빈번히 쓰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기도했다. 황교안 총리는 애국가 4절 부르기를 공무원들에게 강요했고, 보훈처는 애국가 부르기 UCC대회를 매년 열었다. 그리고 보훈처는 광화문 광장에 50m가 넘는 국기 게양대를 세우는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했다. 2016년 2월에는 전국의 소방관 복장에 태극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태극기를 부착하여 애국심을 강조하려는 행위는 ‘영광스런 고대’를 조작하여 민족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행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애국이라 칭하며 공공 장소에서 폭력 행위가 이어지며, 국가 권력은 이런 행위를 공공연히 방조했다. 그러나 맹목적 애국은 오히려 국가와 사회를 망친다. 유사역사 주창자들은 민주주의, 평등, 인권, 복지를 거론하지 않는다. 보편적 휴머니즘,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은 채 국가의 영광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애국은 ‘강요된 사랑’ 곧 폭력일 수밖에 없다.

현재 고대사학회의 학술대회는 물론, 시민강좌에까지 빠짐없이 찾아와 ‘식민사학’이라며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서 주최측이 경찰을 부르는 일이 잦다. 이들의 행태는 어버이연합을 닮았다.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심각한 양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전교조, 민노총 일각에도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조장한 것이 무지한 국회와 박근혜 정부였다. 2013년 4월 26일 대통령 지시로 ‘상고사 정립’ 방침이 결정된 뒤에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거액의 연구비가 배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사역사를 신봉하는 관료그룹의 작폐로 특정 인사에게 연구비가 거액 집중되었다. 급기야 2013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 『환단고기』가 인용되었고, 2014년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2014년 통일 문제 이해』에는 『환단고기』가 길게 인용되었다. 박근혜가 국선도(단월드와 같은 뿌리)에서 요가, 단전호흡을 오래 수련한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혼란상의 일부 배경이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를 접하며 기분 좋은 이야기, 뿌듯함을 주는 이야기에만 매몰되면 곤란하다. 역사는 기본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불편한 진실’에 더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자랑스런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편하더라도 ‘정확하고 온전한 사실’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좋은 현실’이며, 한층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미래에 대한 전망’일 것이다.

[참고문헌]

- 이문영, 2010 『만들어진 한국사』, 파란미디어
김한중, 2013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한국고대사학회, 2016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1, 2』, 주류성
젊은역사학자모임, 2016 『한국고대사와 사이버역사학』, 역사비평사

경기도 파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

- 정용서 (연세대 동은의학 박물관) •

경기도 파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용서 (연세대 동은의학 박물관)

1. 파주의 자연지리

파주시는 서울에서 약 40km 떨어진 경기도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총면적 672.607km²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6번째로 면적이 넓으며 경기도 전체면적의 6.3%를 차지한다. 동쪽으로 양주시와 접하고 있고, 서쪽에는 임진강과 사천을 경계로 북한 개풍군과 마주하고 있다. 서남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와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 연천군과 북한 지역을 접하고 있다.

파주의 동서를 가로질러 약 75km에 이르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다. 임진강 본류는 공릉천 문산천 등을 비롯해 크고 작은 지류하천 100여개소의 물을 담아 교하(交河)에서 한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든다. 임진강은 선사시대부터 파주지역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 생명수이자 젖줄이었다. 임진강 강줄기를 따라 마련된 터전은 대개 낮은 구릉성 산지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구석기유적은 대부분 임진강가에 분포하고, 신석기와 청동기시대의 다양한 유적과 유물은 문산천과 사천 공릉천 등 셋강 옆의 구릉지대에 분포한다. 임진강은 문산읍과 파평면의 경계에 위치했던 고구려의 진임성(津臨城)이 신라 경덕왕 때 '임진(臨津)'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삼국시대에는 칠중하(七重河) 표하(瓢河) 호로하(瓠蘆河)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현재 파주는 서울에서 판문점을 연결하는 국도 1호선인 통일로와 행주대교에서 한강과 임진강을 따라 임진각까지 연결된 자유로,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가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남북교통의 중심지이다.



2. 파주의 행정구역 변천

오늘날의 파주시는 대체로 본래의 파주와 교하, 적성, 그리고 휴전선 이남의 옛 장단군 관내로 구성된다. 파주지역은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변천과정을 겪어왔다. 마한에 속했던 파지주역을 삼국시대에 이르러 최초로 장악한 것은 백제의 근초고왕(346-375)이었다. 당시 파주지역에 있던 백제의 군현 이름은 술이홀(파주), 천정구(교하), 난은별(적성), 야아(장단) 등으로 기록된다. 그러다가 392년 고구려 광개토왕이 현재의 오두성으로 추정되는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이때 임진강 이북의 10여 성도 빼앗았다. 이후 백제와 고구려는 이 지역을 놓고 계속된 쟁탈전을 벌이다가 결국 백제의 문주왕이 웅진(공주)으로 천도하는 475년 어간에는 완전히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고구려 장수왕은 이곳에 파해평사현, 술이홀현, 천정구현, 칠중현, 장천성현의 5개현을 설치하였다. 그 후 한강유역을 공격 목표로 정

하고 계속적으로 백제 고구려와 대립하던 신라는 진흥왕 때 이르러 한강유역 점거 후 마침내 파주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
파주 (坡州)	파해평사현 (波害平史縣)	파평현 (坡平縣)	파평현(坡平縣: 현종 9년 장단군 예속, 문종 16년 개성부 예속)	태조 2년 서원현을 서원군(瑞原郡)으로 승격. 태조 7년 서원군과 파평현(坡平縣)을 합하여 원평군(原平郡)으로
	술이홀현 (述彌忽縣)	봉성현 (峰城縣)	봉성현(峰城縣: 현종 9년 양주 예속, 우왕 13년 서원현으로)	태종 15년 원평도호부(原平都護府)로 승격 세조 5년 파주목(坡州牧)
교하 (交河)	천정구현 (泉井口縣)	교하군 (交河郡)	교하군 (交河郡)	교하군(交河郡) 태조 18년 교하현(交河縣) 숙종 13년 파주 편입
적성 (積城)	칠중현 (七重縣)	중성현 (重城縣)	적성현(積城縣: 현종 9년 장단현 예속, 문종 16년 개성부 예속)	고종 32년 적성군 적성면(積城面)
장단 (長湍)	장천성현 (長淺城縣)	장단현 (長湍縣)	숙종 4년 단주(湍州)로 승격 장 단현(長湍縣)	세조 32년 장단군 1979년 4개면 파주에 속함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경덕왕 때 파주지역의 군현 지명을 대대적으로 바꿨다. 파주지역의 경우는 파해평사현이 파평현으로, 술이홀현이 봉성현으로, 천정구현이 교하군으로, 칠중현이 중성현으로, 장천성현은 장단현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고려 태조 왕건은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고,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적성지역을 적성현이라 불렀다. 그 뒤 파평·적성·장단 지역이 개성부 관할의 기현에 속하게 되었다. 1018년(현종 9)에 파주지역은 경기(京畿)에 속하게 되었다. 1170년(의종 24)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일으킨 무신정변은 장단지역의 보현원에서 시작되었다. 1174년(명종 4)에는 서원현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기 파주는 교하·파평·파주·적성·장단 등 5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393년(태조 2) 서원군으로 승격하였고, 1398년(태조 7) 파평현과 서원현(파주 지역)이 합해 원평군이 되었다. 1414년(태종 14) 교하현이 원평군에 소속되고, 장단현은 임단현이 되었다. 1415년(태종 15)에는 원평군이 원평도호부로 승격되었고, 1459년(세조 5)에는 원평도호부가 정희왕후(세조의 비)의 내향(內鄉)이라는 이유로 목(牧)으로 승격되고 파주로 고치게 되었다. 이때 파주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1895년(고종 32)에는 파주목이 파주군으로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당시 파주지역은 교하군·파주군·장단군·적성군 등 4개 군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914년 일제의 지방제도 개편으로 대대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적성군은 연천군에 흡수되었고, 교하군 전체와 양주군·고양군·적성군 일부가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파주군은 주내·월룡·천현·광탄·조리·임진·파평·와석·청석·탄현·아동 등 11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되자 1945년 11월 종래 연천군 관할이던 적성면과 남면이 파주군에 편입되었고, 이듬해 2월 남면이 양주군으로 이관되었다. 1963년에는 장단군 군내면에 속했던 백연리·정자리 등 8개 리가 임진면에 편입되었다. 1972년 12월에는 장단군의 장단면·군내면·진서면·진동면이 파주군으로 편입되어 15면이 되었다. 1973년 7월에는 아동면이 금촌읍으로, 임진면이 문산읍으로 승격되어 2읍 13면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80년 12월에는 주내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3년 주내읍이 파주읍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89년 4월에는 천현면이 법원읍으로 승격하여 4읍 11면이 되었다. 1996년 3월에 파주군은 도농복합의 파주시로 승격하였으며, 금촌읍이 금촌 1동과 2동으로 분동되었다. 2002년 4월 조리면과 교하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5읍 9면 2동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011년 7월에는 교하읍이 교하동과 운정 1·2·3동으로 분동되었고, 금촌 3동이 신설되어 4읍 3면 7동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3. 파주의 문화유적

1) 파주 이이 유적(사적 제525호)



이이(李珥)의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字)는 숙헌(叔獻)이다. 호는 율곡(栗谷), 석담(石潭) 또는 우재(愚齋)이다. 1536년(중종 31)에 태어나 1584년(선조 17)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564년(명종 19) 과거에 급제하여 호조좌랑(戶曹佐郎)을 시작으로 내외의 주요 관직을 역임하였다. 벼슬은 이조 및 병조판서에까지 이르렀다. 인조(仁祖) 때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숙종(肅宗) 때 문묘(文廟)에 종사되었다. 자운서원(紫雲書院)을 비롯한 전국의 20여 개 서원에 종향되었다. 그는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함께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손꼽히며, 국왕을 보좌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경세학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부친은 감찰(監察)을 지낸 이원수(李元秀)이고, 모친은 기묘명현(己卯名賢)인 신명화(申命和)의 딸 신사임당(申師任堂)이다. 1536년 12월 26일 강릉 북평촌(北坪村) 외가에서 태어났다.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글을 배웠고, 외할머니와의 관계도 매우 돈독하였다. 8세 때 화석정(花石亭)에 올라가 「팔세부시(八歲賦詩)」라는 시를 지어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었다고 한다.

16세에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였다. 상복을 벗을 즈음인 19세에 불교를 공부하러 산에 들어갔다가 다시 유학(儒學)에 마음을 쏟기로 결심하면서 1년 후 다시 강릉으로 돌아왔다. 그때 뜻을 크게 세우고 성현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첫 번째 조항을 비롯하여 자신의 수양과 공부의 원칙을 11개 조항으로 정리한 자경문(自警文)을 지었다.

1557년(명종 12) 성주목사(星州牧使) 노경린(盧慶麟)의 딸과 혼인하였다. 다음 해 성주에서 강릉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산(陶山)에 들러 퇴계 이황을 만났다. 그 후 서찰을 주고받으며 여러 학설을 논변하였다.

20대에 과거 공부에 힘써, 아버지의 상(喪)을 마친 1564년(명종 19)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때 사마시(司馬試)와 문과(文科)를 거치면서 장원을 차지한 것이 아홉 차례에 이르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고 불리었다. 처음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제수되었고, 예조좌랑(禮曹佐郎),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조좌랑(吏曹佐郎), 사헌부 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과거에 급제할 때 문과의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서 천도책(天道策)을 지었다고 한다. 천도책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성리학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만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도리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이이는 성리학적 자연관에 따라 여러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임금이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정치를 바로 하면 천지의 기운도 바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宣祖)가 즉위하자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北京)에 갔다가 돌아와서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에 제수되었다가 다음 해인 1569년(선

조 2)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 이때 사가독서(賜假讀書)에 뽑혀 독서당에 있으면서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지어 올렸다. 이는 새 군주 선조에게 제출한 일종의 정치개혁 보고서이다. 군주의 길, 신하의 길, 좋은 군주와 좋은 신하가 만나기 어려움, 우리나라에서 도학이 행해지지 않음, 우리 조정이 옛 도를 회복하지 못함, 오늘의 시대 정세, 무실(務實)이 수기(修己)의 요체, 간인의 판별이 어진 이를 기용하는 요체, 안민정책, 교육정책, 정명(正名)이 정치의 근본 등을 논한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성군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세, 당시 조선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당대에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들과 그 해결책 등을 담았다.

그 뒤 홍문관 교리, 직제학, 대제학 및 사간원 대사간, 호조·이조·형조·병조의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다. 당대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임금의 수양과 백성을 위무를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당시의 안보 정세를 우려하면서 국방 개혁을 강조하였다. 십만양병설을 주장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국방 개혁에 대해 당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식견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율곡전서에는 평생에 걸쳐 임금에게 올린 59건의 소차(疏劄)가 실려 있다.

또한 지방관으로 부임하기도 하였다. 1571년(선조 4년) 청주목사가 되었으며, 1574년(선조 7년)에는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다.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서원향약과 해주향약을 직접 만들어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공납(貢納)의 폐단 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등 민생안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당면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관직 생활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병조판서로 재직 중에 과로로 병을 얻어 1584년(선조 17)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선조수정실록>에는 “이조 판서 이이가 졸하였다. 이이는 병조 판서로 있을 때부터 과로로 인하여 병이 생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세가 악화되었으므로 상이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하였다. 이때 서익(徐益)이 순무어사(巡撫御史)로 관북(關北)에 가게 되었는데, 상이 이이에게 찾아가 변방에 관한 일을 묻게 하였다. 자제들은 병이 현재 조금 차도가 있으나 몸을 수고롭게 해서는 안 되니 접응하지 말도록 청하였다. 그러나 이이는 말하기를, ‘나의 이 몸은 다만 나라를 위할 뿐이다. 설령 이 일로 인하여 병이 더 심해져도 이 역시 운명이다.’하고, 억지로 일어나 맞이하여 입으로 육조(六條)의 방략(方略)을 불러주었는데, 이를 다 받아쓰자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하더니 하루를 넘기고 졸하였다. 향년 49세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다음 해에 문성(文成)이라는 시호가 내렸다. 또한 1681년(숙종 7)에는 문묘에 종사되었다. 하지만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서인이 축출될 때 문묘에서 출향되었다가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다시 복향되었다. 파주의 자운서원 등 전국의 20여 개 서원에 종향되었다.

‘파주 이이 유적’은 울곡 이이 관련 유적을 대표하는 곳으로 그를 배향한 자운서원, 부친 이원수 및 모친 신사임당의 묘소를 포함한 가족묘역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 자운서원은 1615년(광해군 7)에 울곡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 유림들에 의해 창건되었다. 1650년(효종 원년) ‘자운(紫雲)’이라 사액을 받았으며, 1713년(숙종 39)에 사계 김장생(金長生, 1548-1631)과 현석 박세채(朴世采, 1632-1695)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어 빈터에 묘정비(廟庭碑)만 남아 있다가 1970년 복원하였고, 1973년 경내 주변을 정화하였다.

* 화석정(花石亭,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

화석정은 파평면 울곡리 마을 뒤 언덕에 있는 정자다. 원래 고려 말의 유학자 길재와 관련된 곳이라고 한다. 1443년(세종 25) 울곡의 5대 조부인 이명신(李明晨)이 이곳에 정자를 세운 후 1478년(성종 9) 울곡의 증조부 이의석(李宜碩)이 보수하면서 이숙함(李叔咸)이 화석정이라 이름 지었다. 그 후 이이가 다시 중수하였다. 이이는 국사를 돌보면서 여가가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았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이곳에서 제자나 벗들과 함께 시와 학문을 논하기도 하고 묵상에 잠기기도 하였다.

화석정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져 80여 년간 터만 남아 있다가 1673년(현종 14) 울곡의 증손 이후지(李厚址) 이후방(李厚坊)이 다시 세웠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다시 소실되었다. 현재의 화석정은 1966년 파주 유림들이 성금을 모아 복원한 것으로,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이고 팔작지붕 형태이다. 화석정 안에는 「화석정중건상량문」을 비롯하여 이이가 여덟 살에 지었다는 「팔세부시」 등 여러 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林亭秋已晚 騷客意無窮

숲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으니 시인의 생각이 한이 없어라.

遠水連天碧 霜楓向日紅

먼물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햇빛 받아 붉구나.

山吐孤輪月 江含萬里風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내고 강은 만 리 바람을 머금는다.

塞鴻何處去 聲斷暮雲中

변방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저녁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

* 울곡 남매 분재기

가정(嘉靖) 45년(1566, 명종 21) 병인 5월 20일에 동복(同腹)이 화회(和會)에 동의함. 다 음과 같이 입안함.

부모 쪽 전답과 노비의 몫을 나누므로 누락된 노비를 고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한 명을 상으로 준 뒤 장유(長幼)의 차서에 따라 『경국대전(經國大典)』대로 시행하는 일이다. 그렇 지만 거행해야 할 제사에 관한 일을 형제자매가 함께 의논하여 마련한 뒤에 아래와 같이 기 록한다.

- 형제 중에 1인을 가려 유사(有司)로 삼고, 모든 제사를 종자(宗子)와 유사(有司)가 함께 의논 하여 봉행하되, 종자의 집이 연고가 있으면 유사(有司)의 집에서 제사를 거행할 것.
- 모든 기제사를 돌아가며 지내지 말고 모두 종자의 집에서 거행하되, 매년 자손들이 각 각 쌀을 내어 제사를 돕는다. 친자녀(親子女)는 10말[斗]을 내고, 친손자녀는 5말을 내 고, 친증손자녀(親曾孫子女)와 외손녀는 2말을 낼 것.
- 모든 봉사 전답(奉祀田畝)의 소출(所出)과 노비(奴婢)의 신공(身貢) 및 제사를 돕는 쌀 등을 종자와 유사(有司)가 함께 감시하고 수합하여 종자의 집이나 유사(有司)의 집에 저장하고 다 만 제사에만 사용할 것.

■ 봉사조(奉祀條)

와가(瓦家) 1좌(坐). 파주(坡州) 울곡원(栗谷員)에 있는 난자답(難字畝) 84복(卜) 내 14복 8두락(斗落), 이천복(梨川伏)에 있는 염자전(染字田) 7복. 파주(坡州) 접노(接奴) 원동(元同) 양산(良産)의 4소생 노(奴) 말석(謫石) 을사생, 노 우산(禹山)의 3소생 노 우성(禹成) 병오생, 강릉 접비(接婢) 은중(銀鍾)의 1소생 비(婢) 내은금(內 內) 임인생. 끝[印].

■ 묘전(墓田)

■ 묘지기[墓直]

■ 첫째 아들 생원(生員) 선(璿)의 몫

■ 첫째 딸 강절 교위(康節校尉) 조대남(趙大男)의 처 몫

■ 둘째 아들 유학(幼學) 번(璠)의 몫

■ 둘째 딸 충의위(忠義衛) 윤섭(尹涉)의 처 몫

■ 셋째 아들 좌랑(佐郎) 이(珥)의 몫

파주 울곡원 난자답 84복 내 14복 8두락, 손자전(孫字田) 5복, 복자전(覆字田) 12복, 육자

전(欲字田) 2복, 파주 접비 고읍지(古邑之)의 1소생 노 고읍동(古邑同) 계사생, 동(同) 비 2소생 비 고읍덕(古邑德) 기해생, 서울 접비 업덕(業德)의 1소생 노 수환(守環) 신축생, 삭녕(朔寧) 접노 일룡(一龍)의 1소생 비 잇덕[苾叱德] 갑오생, 성주(星州) 접비 은금(銀今)의 2소생 비 월비(月非) 을유생, 신계(新溪) 접비 덕지(德之)의 3소생 노 유손(有孫) 임진생, 홍원(洪原) 접비 막비(莫非)의 5소생 비 내은비[內 非] 을유생, 노 문손(文孫)의 1소생 노 옥지(玉只) 계묘생, 노 의상(義常)의 2소생 노 세국(世國) 계축생, 3소생 노 세번(世番) 기미생, 비 만천(萬千)의 1소생 비 금보똥[金保屎] 【ㅁㅁ】생, 함흥(咸興) 접노 눌질돌이(訥叱覓伊)의 2소생 비 금화(金花) 임술생, 영천(永川) 접비 말이(末伊)의 1소생 비 혼리(欣里) 신사생, (江陵) 접비 말덕(末乙德)의 2소생 비 감실(甘實) 기묘생, 서울 접비 유운(柳雲)의 1소생 노 순환(順環) 병진생. 끝[印].

- 셋째 딸 고(故) 홍천우(洪天佑)의 처 몫
- 넷째 아들 유학(幼學) 위(瑋)의 몫
- 서모(庶母) 권(權)의 몫
- 필집(筆執)

長兄 生員 李璿 (手決)

妹夫 康節校尉 趙大男 (手決)

次弟 幼學 李璿 (手決)

次妹夫 忠義衛 尹涉 (手決)

三弟 吏曹佐郎 李珥 (手決)

三妹 故學生 洪天佑妻 李氏

四弟 幼學 李瑋 (手決)

2) 윤관장군 묘(사적 제323호)

윤관(尹瓘, 1040(?)~1111)의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동현(同玄),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1073년(문종 27) 10월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간 이래 고려 문종~예종대에 주로 활동한 문신으로 숙종과 예종의 측근으로 중용되었다. 여진 정벌의 책임자로 큰 영광을 누렸으나,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 9성 지역을 여진에게 돌려주게 되면서 문책을 당하였다.

고려와 여진 간의 본격적인 충돌은 1104년(숙종 9) 1월에 벌어졌다. 이 때 완안부의 군사가 대립하던 부족을 추격하여 고려의 변경인 정주(定州)의 관문 밖까지 도달했던 것이다. 당

시 이 부근의 여진 부족들의 항배를 둘러싸고 고려가 완안부와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에 고려는 문하시랑평장사 임간(林幹)(林幹)을 동북면행영병마사(東北面行營兵馬使)로 삼아 사태에 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임간은 선부르게 병력을 출격시켜 공격했다가 대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에 승세를 탄 여진군이 정주 관내로 들어와 약탈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에 숙종은 다시 윤관을 동북면행영병마도통(東北面行營兵馬都統)으로 삼아 군대를 파견하였다.

윤관이 여진 정벌에 개입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부터였다. 그러나 숙종의 신임을 받고 출동한 윤관은 큰 패전을 당하고 말았다. 당시 윤관은 병력의 태반을 잃고 ‘비굴한 말’로 화의를 맺고 돌아왔다고 한다.



윤관은 숙종에게 패전의 원인이 군대의 구성에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여진은 기병이 주력인데 고려군은 보병이어서 상대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숙종은 윤관이 건의에 따라 별무반(別武班)을 창설하였다. 별무반은 동원이 가능한 거의 모든 젊은 성인 남성을 편제하여 기병·보병·노병 등으로 나누고, 승려들도 동원하여 항마군(降魔軍)으로 편제하였다.

1107년(예종 2)에 고려는 다시 여진을 공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예종(睿宗)은 여진과의 전쟁 경험이 있었던 윤관을 다시 한 번 원수로 임명하였다. 윤관은 부원수로 임명된 오연총(吳延寵)과 약 17만의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출병하였다. 윤관은 고려군을 다섯 갈래로 나누어 기습적으로 공격을 단행하였다. 압도적인 병력과 계획된 작전을 앞세운 고려군은 여진족 부락들을 각개 격파하며 급속도로 전진했다. 이때 점령한 지역에 영주(英州)·웅주(雄州)·북주(福州)·길주(吉州)·함주(咸州)·공험진(公嶮鎭)·의주(宜州)·통태진(通泰鎭)·평용

진(平戎鎭)을 비롯해 여러 성을 수축하였다. 이들 지역을 통틀어 이른바 ‘윤관 9성(九城)’이라 부른다. 하지만 고려의 북계(北界)에 세워진 동북 9성의 정확한 위치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두만강 이북에서 함경도 일대라는 설과 함경남도 일대라는 설, 그보다 남쪽인 함흥 평야 일대라는 설이 있다.

윤관은 이 지역에 남쪽 지방으로부터 무려 6만 9천호의 인구를 이주시켰다. 윤관은 1108년(예종 3)에 국왕 예종의 큰 환대를 받으며 개선하여 대승을 보고하고 큰 포상을 받았다. 그리고 추충좌리평용척지진국공신 문하시중 관상서이부사 지군국중사(推忠佐理平戎拓地鎭國功臣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軍國重事)에 임명되고 다시 영평현개국백(鈴平縣開國伯) 식읍(食邑) 2천 5백호 식실봉(食實封) 3백호에 봉해졌다.

사실 윤관이 개선하여 승전을 보고했으나, 이미 1108년(예종 3) 초반부터 고려군은 완안부가 파견한 군대 및 현지 여진족의 반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려군은 여러 성에 분산된 채 여진족에 의해 포위공격을 당하였고, 피해가 누적되고 있었다. 이에 예종은 윤관과 오연충을 다시 파견하였으나, 상황을 호전시키기는 어려웠다.

이에 고려 조정 내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점점 힘을 얻었다. 마침 여진에서 화의를 제안하자 고려는 이를 수용하였다. 여진이 예전처럼 고려에 조공을 바치고 침범하지 않는 대신 9성 지역을 돌려준다는 조건이었다. 1109년(예종 4) 6월의 일이었다.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소모했지만 사실상 고려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뼈아픈 실패였다. 이후 1115년(예종 10)에 완안부는 나라를 세워 국호를 금(金)이라 하고 거란을 멸망시켰으며, 송의 수도를 함락시켜 중국 북부 지역을 점령하였다.

결국 윤관은 패전의 책임자라는 큰 비난을 받게 되었다. 예종은 그를 보호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결국 윤관은 공신호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예종은 얼마 뒤 그에게 다시 관직을 내렸으나, 윤관은 이를 고사하였다. 그리고 1111년(예종 6)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훗날 그는 예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윤관의 묘가 자리한 묘역은 상당히 크고 웅장하며 봉분과 석물이 단을 이루며 자리하고 있다. 봉분은 아래에 장대석 모양의 호석(護石)을 두르고 봉분 뒤로는 담장을 둘러쳤다. 봉분 앞에 상석이 있고 왼쪽에 묘비가 서 있다. 그 아래로 망주석이 서 있고 더 아래에는 장명등을 중심으로 동자석, 문인석, 무인석, 석양, 석마 등이 양쪽으로 있다. 묘역 아래에는 윤관의 영정이 봉안돼 있는 여충사(麗忠祠)가 있는데 매년 음력 3월 10일 제사를 지낸다. 참고로 이 주변 묘역을 둘러싸고 400여 년간 진행된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의 산송문제는 2008년 해결되었다.

3)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 높이 17.4m)

용미리 석불입상은 광탄면 용미리 장지산(長芝山) 남쪽 자락에 우뚝 솟아 있는 거대한 두구의 불상이다. 산기슭에 있는 자연 암벽을 이용하여 몸통을 조각하고 그 위에 목·머리·갓 등을 따로 만들어서 얹어 놓은 한 쌍의 석불이다. 두 석불 가운데 왼쪽의 불상은 둥근 갓을 썼고 오른쪽의 불상은 네모난 갓을 쓰고 있는데, 서로 손 모양만 다를 뿐 옷의 주름이나 매듭, 얼굴의 이목구비가 비슷한 느낌과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석불은 바위의 제약으로 신체 비율이나 얼굴 등의 세부 묘사에서 불균형하고 투박하지만, 일반 백성이 친근하게 느끼는 부처의 모습을 새긴 개성이 강한 지방화된 양식이다. 일반적으로 고려시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불상의 앞면에서 조선시대 세조와 정희왕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명문이 발견되어 조성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다.



(이상의 내용은 여러 글을 편집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중국 정사의 편찬과 외국전 이해

• 김정희 (동북아역사재단) •

중국 정사의 편찬과 외국전 이해

김정희 (동북아역사재단)

1. 중국의 기록 문화

1) 한자

- 가공할 만한 한자의 수
 - 『강희자전(康熙字典)』 42,174자
 - 1994년 中華書局『中華字海』 85,568자
 - 현재 한자 수는 대략 10만 자 정도로 추정,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新華字典』에 수록된 한자는 11200자 정도
- 중국 교육부 제정 中小學《語文課程標準》규정, 초등학교 6년 동안 3000자, 중·고등학교까지는 3500자 습득하도록 함
- 일상의 문자생활을 위해서는 3000~3500자 정도의 한자 습득이 요구
 - 한자 습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최근까지도 다수의 민중이 문맹 상태
 - 따라서 ‘문자개혁’ 운동이 청말, 민국시대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그것은 표준어 제정, 한자를 표기하는 표음문자의 작성, 한자의 간략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 각각 보통화(普通話), 병음자모(拼音字母), 간체자(簡體字)라는 명칭으로 제정. 특히 간체자 제정은 한자의 복잡한 획수를 대폭 생략하여 민중으로부터 환영받았고 식자교육에 크게 기여

2) 갑골문자(甲骨文字)와 역사 기술

- 갑골문은 은대 후기인 반경(盤庚)의 은허(殷墟) 시기부터 帝辛(紂)의 망국 시기까지 약 270여 년간(기원전 1300년~기원전 1028년)의 문자로, 1899년 하남성 안양시 은허에서 처음으로 발견. 귀갑(龜甲)과 수골(獸骨)에 새겨진 문자
- 갑골문은 그 구조나 어법이 상당히 완비된 문자로, 오늘날 한자의 기본 형식(“六書”)을 갖추고 있음
 - 갑골문은 원시문자가 아니며 중국 최초의 문자도 아니며, 그 이전에 적어도 500년 정도의 발전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
 - 강서성 淸江 吳城 은대 중기 문화유적에서 도기나 돌로 된 주형에 새겨진 70개 이상의 문자가 발견되었고, 그 대부분이 은대 갑골문과 일맥상통
- 은허 출토 갑골 15만여 편 가운데 10여만 편에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개별 문자가 4,500자 정도이며, 이중 2,800여 자(자료에 따라 2,000자, 2,500자)가 판독됨.c 갑골문의 내용은 정치, 군사, 문화, 사회습속, 천문, 역법, 의약 등 은대사회의 여러 방면에 걸쳐 있어, 사실상 은 왕실의 역사 기록
- 은허 출토의 갑골문은 복사(卜辭)로 총 10여만 조
 - 이는 사실상 은대 사관의 기록
 - 은왕은 상제나 자신의 조상들에게 항상 제사를 지냈는데, 사람과 신의 의지를 소통시키는 방법이 점복이었으며, 갑골은 이러한 점복의 도구였음
 - 먼저 갑골 위에 구멍을 뚫고, 상제에게 복문(卜問)하고자 하는 사정을 낱낱이 나열한 다음, 뚫어놓은 구멍에 불을 쪼이면 갑골의 다른 면에 ‘복(卜)’자 모양의 균열(卜兆)이 나타나는데, 점복 담당자는 균열의 모양을 근거로 해서 사정(사건)의 길흉을 판단하고, 이것을 상제의 회답으로 간주
- 전형적인 갑골 복사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 일정한 격식을 갖추었고, 가장 긴 복사는 100자 이상에 달함
 - 첫째 전사(前辭) : 점을 친 날짜(卜期) 및 점치는 사람(貞人)의 이름
 - 둘째 명사(命辭) : 복문(卜問)하고자 하는 사건
 - 셋째 점사(占辭) : 복조(卜兆)로 정해지는 길흉
 - 넷째 험사(驗辭) : 점친 후의 효험

3) 사고전서(四庫全書) 편찬과 사부 총서(史部 總序)

- 청 정부는 건륭 37년(1772)부터 10년에 걸쳐 사고전서 편찬
 - 총찬(總纂) 기윤(紀昀) 이하 360여명의 관원, 3,826명의 필사 인원을 동원하여 현존 최대의 총서를 편찬
 - 경사자집(經史子集) 4부(部)로 나누고, 총서명을 사고전서라 명명
- 수록서[著錄書]가 3,460종(3,503종), 79,339권에 달하며, 이를 36,300책으로 제본(6.49기가바이트)
 - 수록서 외에 존목서(存目書)가 6,793부, 95,551권
 - 파괴서적이 10만부(전체 파괴 2,453종, 부분 파괴 402종, 석각 24종)에 달함
 - 사고전서의 편찬 의도 및 그 공과는?
- 사고전서는 전체 체제를 부(部), 류(類), 자목(子目)으로 분류. 저록서와 존목서의 제요(提要), 4부의 서두에 총서(總序), 류(類)의 서두에 소서(小序), 자목(子目) 뒤에 안어(案語)를 각각 두었음
- 총서 편찬과 동시에 저록서와 존목서에 대해 내용 제요를 집필하여 『사고전서총목』(『사고전서총목제요』) 200권을 편찬하고 단독 간행. 제요에서는 각 부 서적의 연원, 판본, 저자, 주요내용, 우열득실을 소개
- 사부(史部)의 경우 15류로 분류하고, 사부 총서에서 역사(편찬)의 원칙으로 “찬술은 간략하게, 고증은 상세하게(史之爲道, 撰述欲其簡, 考證則欲其詳)”를 제시하고, 그 최적의 예시로 “『춘추(春秋)』보다 간략한 것이 없고, 『좌전(左傳)』보다 상세한 것이 없다”라고 함
- 사부 15류
今總括羣書, 分十五類. 首曰正史, 大綱也. 次曰編年, 紀事本末, 別史, 雜史, 詔令奏議, 傳記, 史鈔, 載記, 皆參考紀傳者也. 時令, 地理, 職官, 政書, 目錄, 皆參考諸志者也. 史評, 參考論贊者也.
- (1) 정사 : “대강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공인된 정통의 사서로, 『사기』를 비롯한 24사가 이에 해당한다. 기전체(紀傳體) 형식의 사서이다.
- (2) 편년, 기사본말, 별사, 잡사, 조령주의, 전기, 사초, 재기 : “모두 기전을 참고한 것들이다.”
- (3) 시령, 지리, 직관, 정서, 목록 : “모두 여러 지를 참고한 것들이다.”
- (4) 사평 : “논찬을 참고한 것이다.”

2. 중국의 정사 편찬과 정사 외국전

1) 사마천과 『사기』

- 사마천(司馬遷, 기원전 145~?)은 전한의 좌풍익 하양(左馮翊 夏陽, 지금의 섬서성 한성韓城) 사람이며, 사망 시기는 대체로 60세 전후로 보고 있다.
 - 부친 사마담(司馬談)은 태사령(太史令)으로 문서, 역사기록, 천문관측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 사마천은 부친을 따라 수도 장안에 이르러 무릉(茂陵)에 거주하였다. 그는 제자백가의 논저뿐만 아니라 천문, 율력, 지리에 정통했고, 의약과 점복에도 조예가 있었으며, 사부와 산문 등 문학에도 능했다. 20세 이후 여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황제의 시종관인 낭중(郎中)에 임명되었다.¹⁾
 - 36세 때 사마담이 병사하고, 3년 뒤 태사령의 지위를 계승하였다. 이후 이릉(李陵)의 화(禍)로 궁형에 처해졌지만 오히려 역사서 저술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마침내 『사기』를 완성하였다.
- 『사기』 집필은 15년 혹은 20년에 걸친 작업
 - 38세 태사령이 되었을 때 자료 수집에 착수해서 53세에 그 기본을 완성한 것으로 보면 15년이 걸린 셈이고, 이전의 준비와 이후의 수정 증보 과정을 덧붙이면 20여 년이 소요된 셈이다.
 - 원래 서명은 『태사공서』이지만, 위진 이후에 이르러서 『사기』라고 불렸다. 이후 『사기』라는 말은 역사 서적에 대한 범칭에서 사마천의 저술에 한하는 호칭으로 바뀌었고, 태사공도 사관인 태사령을 지낸 모든 사람에 대한 칭호에서 사마천만을 가리키는 칭호로 바뀌었다. 결국 ‘태사공’과 ‘사기’는 사마천의 전유물로 공인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사기』는 황제(皇帝)부터 전한 무제 태조(太初) 연간에 이르는 총 3,000년간의 역사를 기술하였으며, 본기(本紀) 12편, 서(書) 8편, 표(表) 10편, 세가(世家) 30편, 열전(列傳) 70편의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형식을 기전체(紀傳體)라 하며, 『사기』 이후 역대 정사의 기본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1) 황제의 시종관인 낭중에 임명되어 시행 길에 오르거나 황제의 봉선 순회에 수행하면서 서남쪽으로는 파, 촉 이남의 邛, 笮, 昆明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空桐(감숙 동남부), 북으로는 涿鹿(하북 북부)과 九原(내몽고 남부)에 이르고, 동으로는 황해에 미쳤다. 대체로 지금의 광둥, 복건, 장성 이북, 하서회랑 밖을 빼면 거의 전국 각지에 사마천의 발길이 닿았던 셈이다.

○ 본기와 세가

- 본기의 '紀'는 '記'와 같고, '사실에 근거(本)하여 기록한다'라는 뜻에서 '본기'라는 말이 나왔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본'이란 그 본계(本系,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의 위)를 엮어 연결하는 것이고 紀는 다스린다는 뜻으로서, 본계를 엮어 세계를 통치한다는 뜻으로 보기도 한다. 사마천이 생존하였던 한 무제 시대는 거대한 정치적 통일의 완성 단계였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직접 목도한 사마천은 역사를 통일에서 분열, 그리고 다시 통일로 전개되는 정치과정의 연속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세계의 역사는 곧 정치의 역사를 의미하였으며,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의 축은 제왕이었다. 그가 모든 권력의 중심인 제왕에 관한 연대기적인 서술을 '본기'라고 명명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²⁾
- 세가란 '세세로 봉록을 갖는 집' 즉 봉건 제후들에 관한 기록으로 보는 설이 있다. 그러나 『사기』의 세가에는 「진섭세가」라든가 「공자세가」 같은 것이 있어, 반드시 세세대대를 내려온 제후들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마천은 “28개의 별자리가 북신(北辰)을 둘러싸고 돌고, 30개의 바퀴살이 바퀴통 하나에 합쳐져, 운행이 끝이 없다. 보필고굉의 신하를 이에 짝 짓는다”(「太史公自序」)라고 하였다. 즉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수레바퀴의 바퀴살이 중심부로 모여 별과 바퀴의 운행이 끝이 없듯이, 군왕을 도와 그 수족이 되는 신하를 별자리나 바퀴살에 비유한 것이다.
- 이렇게 보면 본기와 세가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기는 북극성이나 바퀴통에, 세가는 28개의 별자리나 30개의 바퀴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는 제왕을 북극성에, 제후왕을 천체의 각 분야를 점하고 있는 28개의 별자리에 각각 비유함으로써 세계가 다수의 정치적인 집단에 의해 공간적으로 나누어 맡는 정치질서임을 시사하였고, 동시에 제왕과 제후의 관계를 바퀴살과 바퀴통에 각각 비유함으로써 분권적 정치집단이 제왕을 구심점으로 통합될 때 비로소 세계는 움직인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 표와 서

- 표는 세가가 그 성격상 사건의 공간적 병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설정되었다. 각 세가 안의 사건들의 선후 또는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려면, 그것들을 다시 시간

2) 그렇다면 본기란 '제왕의 역사'라고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본기에는 「項羽本紀」나 「呂后本紀」처럼 이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기」에서 '본기'라 할 경우 반드시 제왕의 역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을 정권담당자로 보았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고 실질적인 것을 더 중시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 진의 시황제가 죽은 뒤 陳勝(陳涉)이나 吳廣이 왕이 되어 張楚라는 국호를 내걸고 일시적이거나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사기」에서는 진승의 기록을 '世家'에 포함시켜 여러 제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진승과 항우 여후의 차이는 중심자가 되어 거기에서 나오는 호령이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력자인가 아닌가가 될 것이다. 진승은 국호를 내걸었지만 그러한 중심자는 아니었다. 사마천이 보기에 '본기'에 기록될 자는 그 같은 조건에 맞는 자라야 했다. 말하자면 세계의 중심자라는 의식이 그것이다.

적으로 배열하지 않을 수 없는데, 표가 바로 그것이다. 사마천은 이것으로 중국사회의 단계적 변화, 예컨대 삼대(하은주), 춘추시대, 전국시대, 진한제제(秦韓之際)를 표현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 사마천이 역사를 제왕과 제후의 권력 소장관계나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 사건의 전개 과정으로만 인식하였다면, 『사기』는 본기, 세가, 표만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서를 저술하여 역사를 좁은 의미의 정치사에서 문화 전반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사로 확대하였다. 그가 생각한 정치는 단순한 권력투쟁과 왕조의 흥망성쇠 과정만은 아니었고, 제왕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수단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인 문물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서를 저술하였다. 그렇지만 그가 이것으로 만족하였다면 『사기』는 일반적인 문화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 열전의 성립

- 사마천은 넓은 의미의 정치를 창조하고 움직이는 주체의 문제를 크게 의식하였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제왕도, 제왕의 권력을 공간적으로 나누어 맡는 제후왕도 아니며,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생을 영위하는 구체적인 개개의 인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역사가 개개의 인간에 의해 구체적으로 창조되고 움직인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은 무엇인가. 바로 열전이였다. 전체 130권으로 구성된 『사기』 중에서 열전이 70권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그가 이 부분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으며, 사실 『사기』에서 가장 정채를 발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 열전은 흔히 개인의 전기를 병렬한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전(傳을) 주석의 의미로, 열(列)을 ‘烈’과 ‘例’의 복합 의미로 해석한다면, 뛰어난 개인 또는 모범적인 개인의 행적을 통하여 본기, 세가, 표, 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석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열전’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생애를 소개하려는 것보다 본기, 세가, 표에 전개되는 사건의 흐름과 서에 서술된 문화 전반의 변천을 그 주체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었다.

○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와 ‘태사공왈(太史公曰)’

- 『사기』는 이처럼 크게 본기, 세가, 표, 서, 열전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지만, 성격상 이것들과 구분되는 두 부분이 있다. 하나는 열전 70편의 마지막편인 「태사공자서」이고, 또 하나는 각 편마다 삽입되어 있는 ‘태사공왈’로, 『사기』 구성상의 또 다른 특색이다.

- 「태사공자서」는 사마천의 자서전이며 동시에 『사기』의 해제이기도 하다. 『사기』 이전 중국의 저술 중 서(序)가 들어있는 것은 『상서(尙書)』뿐이다. 더욱이 『사기』의 ‘자서(自序)’에는 『사기』 전체의 집필 동기, 구성, 각 편의 서술 이유뿐 아니라, 저자 자신의 가계와 학문적 배경 및 경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서문의 성격과는 다르다. 이런 식의 ‘자서’는 실제 자기가 서술한 대상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며, 이것은 과거사실의 추체험(追體驗) 또는 재연(再演)의 과정을 거친 역사가만이 가능한 것이다.
- ‘태사공왈’에서 이러한 사마천의 역사인식 태도는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이것은 각 편마다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 또는 서술 중간에 삽입된 것으로, 여기서 사마천은 직접 일인칭으로 등장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자신의 비평을 덧붙이고 있다. 이 비평은 태
- 물론 「태사공자서」에도 논찬이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열전의 한편으로 소재화한 꼴이다. 그러므로 자서전이기는 하나, 사마천의 의식으로서의 자신을 대상화하고 객관화하여 기록했다고 할 수 있다. 「태사공자서」에 붙은 논찬은 그저 “나는 황제(黃帝)로부터 태조(太初, 한 무제의 연호)에 이르기까지를 술력(述歷)하여 130편으로 끝맺는다”라고만 하고 있다. 이 간결한 논찬은 대작품을 완성한 감동을 아주 잘 드러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2) 중국 정사의 편찬과 24사의 성립

-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한 이래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는 기전체 형식으로 이전 왕조에 대한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이 가운데 국가권력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사서를 특별히 ‘정사’로 분류하고, 모든 종류의 사서 가운데 첫째 또는 최고라는 권위를 부여하였다.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교체되어 정사 편찬이 거듭되면서 그때마다 공인된 정사를 13사, 17사, 22사 등으로 불렀다. 청 건륭(乾隆) 연간에 이르러서는 『사기』부터 『명사』까지 ‘24사’가 공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이 24사를 중국 정사의 총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 후 중화민국 시기에 편찬된 『신원사(新元史)』를 포함하여 25사라 칭하기도 하고, 『청사고(淸史稿)』까지 포함하여 26사로 부르기도 한다.

- 한대 : 『사기』(오제~전한 무제), 『한서』(전한), 『후한서』(후한)
- 위진남북조
 - 『삼국지』(위오촉)
 - 『진서』(서진, 동진)
 - 『송서』 『남제서』 『양서』 『진서』 『남사』(이상 남조)
 - 『위서』 『북제서』 『주서』 『북사』(이상 북조)
- 수당오대 : 『수서』, 『구당서』 『신당서』, 『구오대사』 『신오대사』
- 송요금원 : 『송사』 『요사』 『금사』 『원사』(*『신원사』)
- 명청 : 『명사』 (*『청사고』)

○ 당대 사관(史館)의 성립과 사서 편찬

- 당 이전까지의 사서는 개인이 각자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편찬하고 이후 그것이 조정
에 의해 공인되거나, 사서 편찬이 필요한 시점에 사관(史官)을 임명하여 편찬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당대에는 사관(史館)이 상설 관부로 설치되어 평시에도 사료의 수
집과 정리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 이때부터 역대의 기전체 정사는 대부분 정부 주도의 사관에서 여러 사람의 손으로 편
찬되고, 개인에 의한 역사 저술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정사에는 모두 ‘편찬자’의 이름
이 올라있으나, 실제 그것은 주편자의 이름일 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명을 올려놓
은 경우도 있다. 실제로는 사관(史館)의 사관(史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
- 문하성(門下省) 산하에 기거랑(起居郎)과 기거사인(起居舍人)을 두어 매일 황제의 언
행을 기록한 『기거주(起居注)』, 재상이 조정에서 거론된 국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기록
한 『시정기(時政記)』를 작성하였고, 기거주는 계절마다, 시정기는 매월 사관으로 송부
하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서와 관부가 각각의 활동 상황과 수집된 정보를
매월 사관에 보고하였다(『제사응송사관사례(諸司應送史館事例)』)
- 사관에서는 이러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실록(實錄)과 국사(國史)를 편찬하였다.
실록은 황제가 바뀌면 이전 황제의 제위 기간에 일어난 역사 사실을 모아 편년체로 정
리한 사서이고, 국사는 각 실록의 기록을 종합하여 편찬한 기전체 사서이다.
- 『구당서』 등 정사는 기본적으로 이들 실록과 국사에 의거하여 편찬되었다.

○ 중국 정사 24사의 편제[표]

3. 정사 외국전의 이해와 ‘외국’ 인식

○ 『사기』를 비롯한 이들 정사에는 기전체의 형식에 따라 열전이라는 항목을 두었는데, 외국이나 다른 지역 및 종족에 대한 기록도 열전의 하나로 편제하였다. 그러한 열전들을 추려 ‘외국전’으로 정의하고 그 총칭으로 사용하였다. 각 정사에서 그 명칭은 종족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하고, 지역 구분에 따라 붙이기도 하고, 화이(華夷) 관념에 입각한 ‘사이(四夷)’ 구분에 따라 명명하기도 하였다. 『송사(宋史)』에서 처음으로 ‘외국전’이라는 명칭으로 대외관계를 포괄하는 체제가 나타나 『명사』에 이르기까지 외국전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외국과 더불어 사이, 만이(蠻夷), 외이(外夷)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하였다. 주목할 바는 이들 ‘외국전’의 ‘외국’이 중국 역대 왕조의 정사에서 명백히 ‘중국’과 구별하고 타자로 인식해온 다른 지역, 종족, 국가라는 점이다.

○ 중국 정사 24사 가운데 『진서(陳書)』와 『북제서(北齊書)』를 제외한 22개 정사에는 모두 외국전이 편제되어 있다. 외국전의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한대부터 명대까지 중국의 왕조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인지하고 관계를 맺어온 세계, 즉 다른 나라와 지역 및 종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외국전은 전근대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³⁾

○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

- 외국전의 구성과 서술 대상[표]
- 양(梁) 소역(蕭繹) 『직공도(職貢圖)』의 각국 사자
- 중국 정사의 외국 인식

3) 문제는 외국전 자체의 방대한 분량, 원문 해독의 난해함 때문에 일반 시민은 물론 전문 연구자라도 외국전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외국전 전체에 대한 역주를 기획하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31명의 전문 연구자가 참여하여 외국전 역주를 진행하였다. 역주 결과는 순차적으로 『사기 외국전 역주』부터 『명사 외국전 역주』까지 총 29권으로 출간되었다. 외국전 역주서의 완간과 더불어 또 다른 요구가 제기되었다. 중국 정사 외국전은 역주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시공간적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29권의 책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전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든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설명해주는 지침서를 마련할 필요성이 컸다. 바로 이러한 필요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이 기획되고 집필되었다. 이 책은 『사기』부터 『명사』까지 중국 역대 왕조의 정사에서 ‘중국’과 구별하고 타자로 인식해온 다른 지역, 종족, 국가와 관련된 열전을 추려 ‘외국전’으로 정의하고, 이 외국전들이 기술하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 그 전체상을 그려보고자 기획하였다. 여기에서 세계란 “지구상의 모든 나라 또는 인류사회 전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중국의 각 왕조가 시대에 따라 인지하면서 관계를 맺어온 지역, 종족,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세계이다.

발해의 역사와 문화

•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

발해의 역사와 문화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삼국 이후 한국고대사는 고구려를 계승한 북쪽의 발해와 남쪽의 신라를 균형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올바른 역사상을 파악할 수 없다. 발해사의 복원은 한국고대사의 진정한 자리매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1. 발해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동북공정과 발해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북방민족과 국가를 연구하고, 중국인의 입장에서 양국의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반도와 북방지역에서 활약한 민족 중 순수 한국 민족과 관련된 것은 ‘한족(韓族)’ 뿐이며, 그 이외는 모두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일원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사·한국민족의 개념, 범위,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치, 외교적 예지와 성찰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측은 발해가 중국 고대 소수민족인 말갈족(靺鞨族)이 세운 지방정권이니, 중국사(中國史)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갈인이 발해의 건국에 참여하였고 그 주민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말갈인이 당(唐, 漢族)보다는 오히려 고구려와의 역사, 문화적 공감대가 많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 국정을 운영하는 지배층도 고구려 유민이었다. 발해의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고구려 문화의 영향이며, 여기에 말갈이나 당 문화를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

화를 흡수하며 발전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참조 : 유득공(柳得恭, 1748 ~ 1807) 渤海考序

高麗不修渤海史 知高麗之不振也 昔者高氏居于北 曰高句麗 扶餘氏居于西南 曰百濟 朴昔金氏居于東南 曰新羅 是爲三國 宜其有三國史 而高麗修之是矣 及扶餘氏亡 高氏亡 金氏有其南 大氏有其北 曰渤海 是謂南北國 宜其有南北國史 而高麗不修之非矣 夫大氏者何人也 乃高句麗之人也 其所有之地何地也 乃高句麗之地也 而斥其東斥其西斥其北而大之耳 及夫金氏亡 大氏亡 王氏統而有之 曰高麗 其南有金氏之地則全 而其北有大氏之地則不全 或入於女眞 或入於契丹 當是時爲高麗計者 宜急修渤海史 執而責諸女眞曰 何不歸我渤海之地 渤海之地乃高句麗之地也 使一將軍往收之 土門以北可有 執而責諸契丹曰 何不歸我渤海之地 渤海之地乃高句麗之地也 使一將軍往收之 鴨綠以西可有也 竟不修渤海史 使土門以北鴨綠以西 不知爲誰氏之地 欲責女眞 而無其辭 欲責契丹 而無其辭 高麗遂爲弱國者 未得渤海之地故也 可勝歎哉

2) 발해의 건국자와 주민

건국자의 출신에 대한 혼란은 발해에 관한 가장 기본사료로 인정되는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등의 서술이 서로 상이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발해말갈 대조영은 본래 고려별종이다.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 『舊唐書』권199下, 渤海靺鞨傳)
-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이 고려에 부속된 자이며 성은 대씨이다. (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 : 『新唐書』권219, 渤海傳)

한편 발해의 주민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른바 『유취국사(類聚國史)』의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발해국은 고려(高麗)의 옛 땅이다. 천명개별천황7년 고려왕 고씨(高氏)가 당(唐)에게 멸망되었다. 뒤에 천지진종풍조부천황2년(698) 대조영이 비로소 발해국을 건국하고, 화동 6년(713) 당의 책립을 받았다. 그 나라는 넓이가 2천리, 주현관역(州縣館驛)이 없고,

곳곳에 촌리(村里)가 있는데 모두 말갈부락이다. 그 백성(百姓)은 말갈(靺鞨)이 많고 토인(土人)이 적다. 모두 토인이 촌장(村長)이 되는데, 대촌(大村)은 도독(都督), 그 다음은 자사(刺史)라 하며, 그 아래는 백성이 모두 수령(首領)이라 한다. 토지가 매우 차서 논농사에 적합하지 않고, 습속이 자못 글을 안다. 고씨 이래 조공이 끊이지 않았다. (『類聚國史』193, 殊俗部 渤海 上 延曆15년(796) 4월 무자조)

위 기사는 발해국 초기에 발해를 방문한 일본 사신의 견문에 입각한 것인데,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고구려 유민)이 적으나, 토인이 촌장이 된다고 하였다.

3) 왕위 계승

발해의 왕위계승은 적자손(嫡子孫) 계승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적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장자의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고, 적자가 없을 때에는 왕의 동생이 계위하는 형제계승의 경우도 있었다. 고왕에서 무왕을 거쳐 문왕에 이르기까지는 적자계승의 원칙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원칙은 후대의 왕들에게도 기본적인 원칙으로 전해졌다.

1	①高王(698-719)					
2	②武王(719-737)	- 大門藝			□	
3	大都利行	-③文王(737-793)	④廢王元義(793)		□	
4		宏臨			□	
5		⑤成王(793-794)	⑥康王(794-809)		⑩宣王(818-830)	
6			⑦定王(809-812)	- ⑧僖王(812-817)	- ⑨簡王(817-818)	新德
7					⑪彝震(830-857)	- ⑫虔晃(857-871)
8						⑬玄錫(871-894)
9						⑭瑋瑋(894-906)
10						⑮謹讓(906-926)

2. 발해인이 남긴 자취

『신당서(新唐書)』 발해전에서는 발해의 강역에 5경(京) 15부(府) 62주(州)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부(府)의 명칭은 그곳의 과거의 명칭을 이어서 사용한 경우가 많고, 이와 달리 경(京)은 방위 개념이므로 5경은 발해의 영역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정해졌을 것이다.

발해는 건국으로부터 멸망에 이르는 228년간 4번에 걸쳐 5경을 중심으로 수도를 이동하였다. 천도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또는 교통상의 중심지인 도읍이 이동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다.

발해인의 삶의 흔적은 바로 이러한 도성 유적을 중심으로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고, 도성은 구국, 현주, 상경 그리고 동경 지역에 있었다. 발해는 존속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수도를 옮겼는데, 그 기록은 아래와 같다.

- (대조영이) 동모산에 근거하여 성을 쌓고 살았다. (據東牟山 築城以居之 :『舊唐書』 권199하)
- 현주는 천보 중에 왕이 도읍한 곳이다. (顯州 天寶中王所都 :『新唐書』 권43하, 志제 33하, 地理志)
- 현주는 발해국이다. 황화사달기를 살펴보면, 당 천보 이전 발해국이 도읍한 곳이 현주이다. (顯州 渤海國 按皇華四達記 唐天寶以前 渤海國所都顯州 :『武經總要』前集 권16하)
- 천보 말 흠무가 상경으로 옮기니 구국으로부터 곧장 3백리이고, 흘한하의 동쪽이다. (天寶末 欽茂徙上京 直舊國三百里 忽汗河之東 :『新唐書』 권219, 列傳제144, 渤海傳)
- 정원시 동남쪽 동경으로 옮겼다. --- 화여가 왕이 되어 다시 상경으로 돌아왔다. (貞元時 東南徙東京 --- 華璵爲王復還上京 :『新唐書』 권219, 발해전)

1) 舊國期の 유적

구국 일대에는 오동성 혹은 영승유적을 중심으로 남서쪽에 성산자산성 등이 있고, 돈화

시의 북쪽에는 석호고성을 비롯하여 흑석고성, 통구령산성 등이 분포한다. 구국에서의 평지성을 오동성 혹은 영승유적이라고 할 때 이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깊은 산성은 단연 성산자산성이고, 고분군은 육정산고분군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산자산성이 발해 최초의 건국지였고, 그 후 평화적인 상태가 도래하자 평지성을 조영하였으니 그것이 오동성 혹은 영승유지라 해석하고 있다. 오동성과 성산자산성은 평지성과 산성으로 이루어진 고구려의 도성체제와 연관이 있으며, 이것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요소의 하나이기도 하다. 오동성 남서쪽 육정산에는 3대 문왕의 둘째 공주인 정혜공주묘가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곳이 무왕 혹은 발해 초기 왕실 무덤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2) 中京期の 유적

중경 시기에 평지성인 서고성과 하남둔고성의 세트가 되는 산성은 남쪽의 팔가자산성이고, 무덤군은 서쪽의 북대고분군과 동남쪽의 용두산고분군이 있다. 용두산고분군 동쪽에 있는 잠두고성도 주목된다. 바로 이들 유적들이 중경현덕부의 도성체제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서고성과 정효공주무덤과의 거리는 6.5km이고, 하남둔고분과 서고성과의 거리는 4km이다.

중경 시기 하남둔고성은 回字 형태이고, 출토 유물이 발해 초기라는 것은 이 성의 축조 혹은 사용 시기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하남둔고성이 발해 초기의 것이라면, 구국의 평지성으로 비정되는 오동성의 축조시기 판정에도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다. 즉, 하남둔고성이 발해 초기성이라는 것은 같은 구조를 가진 오동성도 비슷한 시기의 성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중경이 도성으로서의 형태를 갖추는 것은 정도하던 시기가 아니라 문왕 후기에 이르러서야 가능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이와 같은 추정을 위한 단서의 하나는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가 바로 서고성의 동남쪽 용두산고분군에 묻히고 있다는 점이다. 용두산 고분군에는 정효공주보다도 상위 신분의 사람도 묻히고, 고분 축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구국시기 왕실 귀족 묘지가 있는 육정산에는 고왕, 무왕의 묘를 비롯하여 785년 전후까지의 왕족들이 묻히고, 그 이후 정효공주를 비롯하여 9세기 초반까지는 중경의 용두산고분군 주변이 왕실묘지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東京期の 유적

팔련성 주변의 산성으로서는 琿春河 상류쪽인 북서쪽 도문 부근에 형암산성, 동북쪽에 살기성, 그 북쪽에 농평산성과 도원동남산성이 있고, 팔련성 東寺廟跡, 新生寺廟跡 등의 절터도 있다. 또한 훈춘평원의 북부 25km 정도 거리에 축조되어 있는 長城(邊牆)도 서고성을 에워싸고 있는 ‘고변장’과 마찬가지로 동경용원부의 방위를 고려하여 축조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장성의 동쪽 끝부분에는 거대한 산성인 살기성이 있다.

팔련성은 수도였던 시기가 기록상 10년 이내이므로 도성만이 어느 정도 축조되고, 도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산성, 무덤, 혹은 생활공간 등은 수도였던 기간에는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중경과 구국에서도 그 무덤공간이 천도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뒤에 조성, 이용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4) 上京期の 유적

상경성 주변에는 산성, 평지성, 성새, 장성, 봉화대 등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산성으로는 남서쪽 목단강가의 城子后山城, 重霄河山城이 있고, 더 남서쪽으로 城牆砬子山城이 있다. 상경성을 에워싸고 목단강변장(牧丹江邊牆)이 확인되며, 무덤은 목단강 건너 서쪽에 흥준어장묘군과 대주둔고분이 있고, 북쪽에 삼령둔고분이 있다.

상경성은 형태상으로 당 장안성(長安城)의 영향을 받았지만, 축조방법 등에서는 고구려의 영향도 엿보인다. 상경성은 그 구조가 3중성의 형태로서, 문왕(文王)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왕(成王), 강왕(康王)을 지나 이진(彝震) 시대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상경성이 처음에 중경이나 동경과 비슷한 규모로 축조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내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일 것이다. 상경성이 처음 내성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은 궁성주변에 해자가 있는 것에서도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 - 南北國의 形成과 展開》, 圖書出版 新書苑, 1994
- 임상선,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도서출판 신서원, 1999
- 임상선, 〈발해의 都城體制와 그 특징〉, 《韓國史學報》제24호, 高麗史學會, 2006
- 동북아역사재단, 《발해의 역사와 문화》, 2007
- 임상선, 《발해사 바로읽기 - 발해사 쟁점과 연구》, 도서출판 동재, 2008
- 임상선, 〈발해의 왕도 顯州와 中京 치소 西古城의 관계〉, 《高句麗研究》37집, 고구려발해학회, 2010
- 송기호,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임상선, 〈북방지역 種族의 繼承關係 검토 - 靺鞨·女眞·滿洲族을 중심으로 -〉, 《高句麗渤海研究》50집, 고구려발해학회, 2014

일본 근대사와 한일관계
- 동아시아 해역을 중심으로 -

• 현명철 (국민대학교) •

일본 근대사와 한일관계

- 동아시아 해역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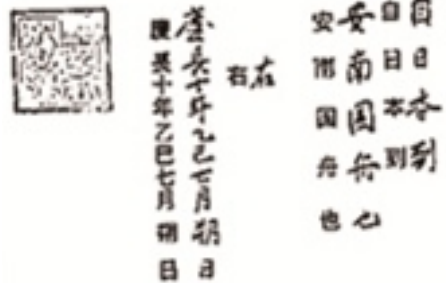
현명철 (국민대학교)

1. 일본 근세(江戸幕府時代)의 아시아 해역

- 주인장(朱印狀) 무역에서 신포 발행으로 -

에도 막부가 성립한 다음 막부는 남만무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루손, 안남, 캄보디아, 삼 등과의 교역을 허가하여, 그들에게 주인장(朱印狀)¹⁾을 발급하여 무역을 장려하였다. 또한 1604년에는 중국의 生絲 무역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京都 界長崎 상인들에게 生絲 독점권을 인정하여 絲割符仲間를 결성하게 하여 무역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주인장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동남아시아로 이주하는 일본인이 늘어나 각지에 일본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막부가 안정됨에 따라 막부는 무역 통제를 강화하여 중국선 이외의 외국선의 기항지를 平戶로 한정하고, 1635년에는 해외 도항과 재외 일본인의 귀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또한 국내의 모든 사람들을 사원에 등록시키는 寺請制度를 실시하여 크리스티교를 억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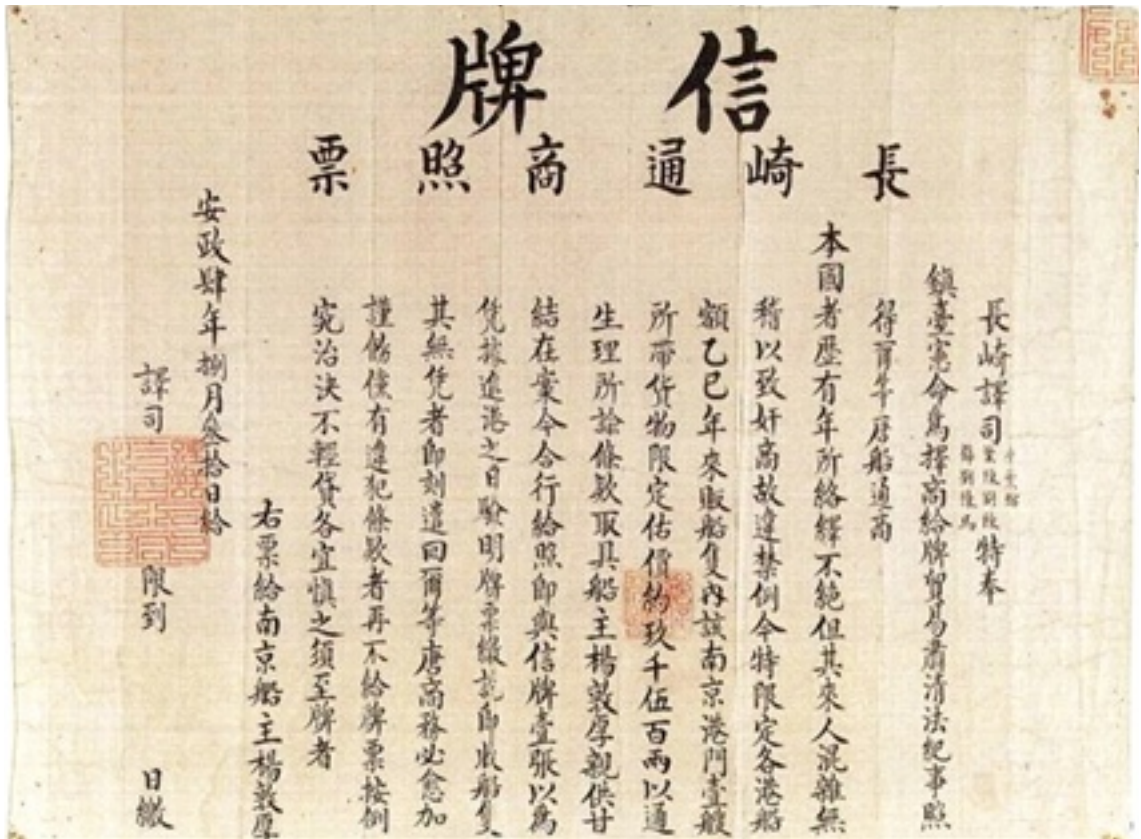


1) 붉은 도장이 찍힌 공문서. 주로 전국시대에서 에도시대에 걸쳐 발행되었다. 특히 쇼군이 다이묘의 영지를 확인한 것을 영지주인장이라고 하며 가장 일반적이다. 한편 해외 통상 허가증도 붉은 도장이 찍혔기에 주인장이라고 하며 이 문서를 지참한 선박을 주인선(朱印船)이라고 한다. 이 문서를 지참한 선박은 당시 일본과 외교 관계가 있었던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배자의 보호를 받았다. 위의 문서는 경장10(1605)년 발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637년 크리스트교 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란(島原 天草)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포르투갈 선박의 내항을 금지하고 1641년 나가사키 데지마에 네덜란드 상관을 옮기고, 중국 선박도 모두 나가사키로 한정하였으며 막부가 독점적으로 무역을 관리하게 되었다.

명이 멸망(1644)하고 청나라가 천계령을 발표(1661년)하였다. 반청운동을 하였던 정성공 가문이 일본과의 무역에 주로 종사하였으나 점차 진압되었다. 중국 유민들이 일본으로 들어왔다. 반청운동이 진압되고 청은 전해령을 발표(1683)하여 청나라 상인들이 해외 무역에 종사하게 되면서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 몰려들었다. 나가사키에는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있었고 당통사(唐通事)라고 불리는 통역이 청국 상선과 상인들의 거래를 담당하였다. 나가사키는 네덜란드선은 연간 2척정도, 중국 상선은 100척 정도가 들어오는 무역항이었으며 무역의 규모도 대중국 무역이 압도적이었음은 무시할 수 없다.

1689년에는 나가사키 상인들이 청나라 상선 입항을 위해 숙소를 지었고 청나라 상인들은 숙박비를 지불하고 여기에 머물렀다. 중국과의 무역은 수입이 대부분이었기에 일본의 은이 빠져나갔다. 1715년 막부는 신패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신패를 소지하지 않은 선박의 무역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로 말미암아 청 상선의 내항은 연간 30척으로 제한되었다. 실패를 둘러싸고 실패를 매매하는 일도 발생하였고, 실패를 입수한 상인을 배신자라고 고발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청의 지방정부도 일본의 실패 제도는 중국의 주권침해이며 세금이 줄어서 문제라고 상주하였다.

그러나 강희제는 검토 끝에 ‘실패는 민간 증명서이며 공문서가 아니다’라고 이를 각하하였다. 그 이유는 실패 발행인의 명의를 막부의 기관이 아니라 나가사키 당통사의 이름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실패 내용에 토의〉 막부가 실패 발행인을 나가사키 봉행소가 아니라 당통사(통역)으로 한 것은 이러한 외교 문제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에서 왜관에 입항하는 노인의 발급을 동래부가 아닌 대마도주에게 위임한 것도 이러한 외교적 기술이었던 것일까.

1. 〈별지1〉 실패의 내용을 보고 검토해 봅시다.

- 1) 실패발급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 其來人混雜無稽 以致奸商故違禁例
- 2) 무역의 한정액은 얼마인가. : 估價約玖千伍百兩
- 3) 누구에게 지급되었는가. : 南京船主 楊敦厚
- 4) 언제 필요한 증명서인가. : 以爲凭據 進港之日 驗明牌票
- 5) 감함의 역할을 하는 도장을 찾아보자. (右上端)
- 6)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였는가. (譯司)

2. 한일관계의 특징과 입항 절차.

1) 국교의 회복

국교 교섭의 과정에서 먼저 1609년 기유약조가 맺어지게 되었다. 이는 대마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마주를 회유함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교섭을 진행하고자 한 외교적 선택이었다. 이 조약이 기본이 되어 1636년 통신사를 파견함으로써 한일관계는 회복되었다²⁾.

이후 막부에 대해서는 대등한 관계를, 그리고 대마주에 대해서는 기미정책에 의한 포섭 관계를 갖는 2중적 외교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조선은 막부의 요청에 의해 통신사를 파견

2) 기유약조를 통해 한일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기술은 타당한지 검토 바랍니다. 또한 회담겸 쇄환사가 통신사로 취급되어도 좋은지 검토 바랍니다.

하지만 막부의 사절을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하였다. 대마주를 통해 사절을 보내라는 의미였다. 이는 대마주의 특권을 보장하는 것이었고 결국 막부도 대마주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마주의 사절은 왜관을 벗어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왜관은 1678년 초량으로 이전되었다. 1682년에는 계해약조를 체결하여 왜관통제를 강화하였다.

왜관은 고립된 공간이었다. 수문과 설문 사이의 공간에는 6개의 복병소가 있어서 왜관 출입자를 감시하였다. 또한 이 공간에 연대청과 객사, 임소(성신당)이 있었다. 일본인들이 설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백중절 두모포 고왜관에 성묘를 갈 때 뿐이었다. 이때 조선 군졸들이 감시하였음은 물론이다. 왜관에는 나가사키 데지마와 마찬가지로 처자를 데리고 있을 수 없었다³⁾. 따라서 가끔 교간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조선은 이를 엄벌에 처하였다.



2) 부산 海防과 왜관 입항 절차

1872년 작성된 동래부의 지도를 토대로 『동래부계록』에 나타나는 초량 왜관에서 대마도인의 입항절차⁴⁾와 무역의 형태를 살펴보자.

3) 왜관을 '일본인의 마을'로 표현해도 좋을지 검토 바랍니다. 학생들은 '마을'이라고 하면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을 생각하게 됩니다.

4)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동북아역사논총49호』 동북아역사재단, 2015년9월)에서 검토하였다. 다운 받을 수 있다.



1. 대마도에서 출발한 배가 정상 항로로 영해에 들어오면 황령산 봉군이 이를 부산첨사와 동래부사에게 보고하며, 북쪽(울산방향)으로 향하는(표류하는) 배는 간비오봉 봉군이 이를 좌수영 수군절도사에게 보고하며, 남쪽(거제방향)으로 향하는 배는 응봉 봉군이 다대첨사에게 이를 보고하는 해상 경계 시스템이 있었다.
2. 정상항로로 들어오는 배에 대해 부산첨사는 두모포만호(드물게 개운포만호)를 초탐장으로 파견하여 왜관으로 입항을 유도한다.
3. 왜선이 왜관에 입항하면 훈도가 즉시 문정을 행하는데, 항해목적, 노인과 서계의 감별 및 확인, 승선인원과 직책 등을 手本으로 작성하여 부산첨사와 동래부사에게 보고한다. 또한 대마측도 하마가타[濱方]요코메[橫目]가 입항하는 배를 문정하고, 物送狀과 물품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 이를 관수에게 보고한다.

日本國 對馬州 太守 拾遺 平義達 啓書
 朝鮮國 東萊 釜山 兩令公 閣下
 ○○條 第○船 今茲差渡 請其照驗施行
 不備
 ○○ ○年 ○○ ○月 日
 對馬州 太守 拾遺 平義達(圖書印)

3) 무역에 관한 이해

1. 왜관에 들어온 세견선은 하선다례를 통해 서계를 제출하고, 하선연(봉진연)을 통해 정해진 진상품품을 바치고, 예단다례를 통해 정해진 하사품 목록을 지급받고, 상선연을 통해 물품을 적재하고 출항하게 된다. 이 사이에 5일장을 통해 왜관 안에 商賈들이 들어와 사무역을 행할 수 있으며, 매일 아침 朝市가 수문 앞에서 열려 반찬과 채소 과일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
2. 세견선이 떠날 때 별차는 부산진의 路文을 발급받아 세견선에게 지급하며 훈도는 이 배에 언제 도착한 아무개가 승선하여 귀국한다고 출항 인원과 적재된 물품을 동래부에 보고하며 동래부는 이를 의정부와 비변사에 보고한다.
3. 1868년 작성된 『동래부사례』에 나타난 진공(進貢)무역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세견선 진상(수입)	세견선 증답(수출)
생동(生銅) 28327근5냥4전 납대신 들어오는 구리(鐵代銅) 6416근8냥 단목(6335근), 흑각(400통), 후추(3400근), 진주, 명반, 등...	공목 664동45필17척 공작미 13333석5두 인삼(32근8냥), 호피(13장), 표피(17장) 백면주, 백저포, 흑마포, 백목면, 황모필 등

그 외 조선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대마도에서 조달하거나 대마도가 필요한 물품을 조선에 요청하여 조선이 지급하는 구청(求請)무역도 존재하였고, 동래 상고(商賈)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거래를 하는 사무역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드물지만 몰래 왜관의 해안가에 사람의 눈을 피하여 이루어지는 밀무역도 존재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국가에 의한 밀무역도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1872년 2월29일 경오조3특송사수목선(28명), 고의로 기장으로 방향전환 울산 목도에 정박. 別求物種依約載來(대포3좌, 포탄300인(箇), 조총25병, 화약2500근, 환도30병)을 3월4일 그곳으로 달려간 별차에게 전달하고 왜관을 거치지 않고 3월 6일 바로 귀환하는 모습이 『동래부 계록』에 실려 있다.

3. 서양 선박의 출몰과 아시아 해역

18世紀末,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네덜란드는 프랑스에 점령되어 네덜란드 통령 윌렘5세는 영국으로 망명하였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1798년 해산하게 되었다. 나폴레옹황제는 동생 루이 나폴레옹을 네덜란드 국왕으로 임명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계 각지에 있었던 네덜란드 식민지는 모두 프랑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영국은 망명한 윌렘5세의 의뢰에 따라서 네덜란드 해외 식민지를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나 나가사키의 상관을 관할하는 바타비아(자카르타)의 동인도회사는 중립국 아메리카의 선적을 고용하여 나가사키 무역을 계속하고 있었다.

1808年10月4日(음력8월15일), 네덜란드선 拿捕를 목적으로 영국 해군의 페튼호가 네덜란드 국기를 게양하고 나가사키에 입항하였다. 여기에 속은 상관장은 관례에 따라 부하2명과 네덜란드 통사를 보내어 맞이하게 하였다. 그들은 납치되었고 인질이 되었다. 동시에 페튼호는 영국기로 바꾸어 달았다. 나가사키 부교는 페튼호에 서한을 보내어 인질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페튼호는 식수와 식량을 요구하는 답서를 보내었다.

나가사키 부교 松平康英는 항만 경비가 부족함을 절감하고 급거 薩摩藩, 熊本藩, 久留米藩, 大村藩 등, 九州諸藩에 応援을 요청하였다. 다음날(8월16) 페튼호 함장은 인질 1인을 석방하면서 식수와 식량을 요청하였다. 松平康英는 요구를 받아들여 소량을 제공하고 응원 병력을 기다려 격퇴시키고자 하였다. 식량과 식수를 받은 페튼호의 함장은 상관원들을 석방하고 출항 준비를 하였다. 17일 새벽 응원병력이 도착하였고 松平康英는 페튼호를 억류할 작전을 준비하였으나 그 사이에 페튼호는 닻을 올려 출항하여버렸다. 이 사건으로 나가사키 奉行은 국가를 욕되게 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할복하였고 근대화와 해방(海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1825년 異國船打拂令이 내리는 배경이 되었다.

이상으로 동아시아 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남겨진 문제와 전망을 말씀 올립니다.

4. 남겨진 문제와 전망.

비교〈1870년 헤르타호의 왜관 입항〉

5월3일 巳時 황령산 봉군 김강이가 진고하기를 ‘辰時 백색 돛 3개 이양선이 남쪽 대해에서 부산포 절영도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뒤이어 부산첨사 조의현이 치통하기를 ‘두모포만호 나치순과 부산진 2전선장 박시림을 초탐장으로 내보내었습니다.’고 하였으며, 戌時에 부산첨사가 초탐장의 치보에 ‘그 외양선을 절영도 밖 外洋에 逗留시키려고 하였으나 申時 왜관 앞바다까지 와서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한다고 치통하였습니다.

이양선이 우리 국경을 넘어온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이므로 중군 정한봉, 별포수별장 문헌주 등으로 하여금 정예군병을 먼저 내보내고, 신(동래부사) 역시 그곳으로 달려 갑니다. 추후의 사정은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관 수문 앞바다는 해안이 바로 보이는 거리이며, 서양오랑캐가 우리 근해에 정박하면 바로 초멸(勦滅)하도록 의정부 행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온 배는 모양은 서양오랑캐의 배이어서 당연히 승무원은 초멸하고 머무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그 배에 왜인이 타고 있어서 소선에 옮겨 타고 왜관에 들어오므로 상의하여 한편으로 훈도 안동준과 별차 이주현 등을 보내어 관수왜에게 가서 그들이 동승하게 된 사정을 힐문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동래부 별포수 군병 및 수영의 주사(舟師) 별포수 등을 매복시켰습니다. 4일 유시에 훈도와 별차의 수본이 도착하였는데 [비직(훈도)등이 바로 관수왜를 찾아가 힐문하기를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서로 교린 수호한지 300년이 되도록 오래되었으며, 크고 작은 일들이 서로 통지하지 않은 바가 없다. 서양 오랑캐에 대해서는 이미 서계 왕복을 통해 일본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서양 선박에 일본인이 동승하니 이는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마땅히 초멸해야 하지만 일본인이 동승한 것을 보고 인호지간에 싸움이 날 것이 걱정되니, 그간 상황을 솔직히 아뢰어라」고 하니 답하기를 「폐방의 인간이 서양 배에 탄 것은 저 역시 경해(驚駭)한 일로, 심히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배를 타서 이양선 정박지로 가서 탐문……내(관수왜)가 다시 서양 선박을 초멸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너희들이 동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올리는 것은 불가한 일인 즉 서양인들에게 가서 빨리 돌아가도록 하고 만일 듣지 않는

다면 큰 우환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그 배가 떠났 습니다. 이를 수본으로 아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뒤이어 정탐 군교등이 진고하기를 「초4일 申時에 이양선이 닻을 올리고 바로 남쪽 외양으로 쏜살같이 사라져 쫓아 갈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양선이 우리나라 국경에 정박하면 바로 초 멸해야 하지만, 동승한 왜인의 알림과 급히 달아나는 것은 통탄합니다. 쏜살같이 도 망하여 쫓아갈 수 없었으므로 별포 군병등은 모두 철수하였으며, 동승한 나카노(中野)는 왜관에 출입하였던 인물로, 서양오랑캐를 우리가 공격할 것임을 알면서도 동 승하고 소개하려고 한 것은 지극히 통악한 일입니다. 그를 대마도에 통보하여 별 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임역들에게 엄한 말로 관수왜에 책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성립과 한일관계의 변모.

① 조선은 왜 메이지 정부 성립의 서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대마주의 의도

一,拙者儀,此度大修參判事として渡館被仰付,御用件之次第,朝廷御一新之儀,被及御報知, 則ち~~■~~節之御書契よりして,兼て彼國王より御請被置候~~■~~書不御用,此度朝議之上,御 製造之新御印章被成御用候.抑數百年來屈辱を被爲請候儀明態,不得止儀ながら神州之 御國体に致關係御迷惑無限候得共,其時に不至,今日に及候處,今般朝鮮國御職務御家 役に被命,尙旧弊一洗之御嚴令被蒙仰,實に千載之御國運御到來共可申哉.

조선과의 가역을 유지하면서도 조선이 준 도서를 사용하지 않겠고 자기의 지위를 상승시 키겠다는 의도로 메이지 정부의 성립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路引도 동래부사 부산첨사에게서 조선 각도 각 방어사로 바꾸어 보내려고 하였다.

→ 종래 일본의 호의(국교교섭)을 조선이 쇄국정책에 의해 거절하였다는 조선 책임론을 비판하여야 함.

② 부산 왜관에서는 똑 같은 외교 논쟁이 4년이나 지속되었을까?

일본의 정치 상황과 대마주의 정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처음에는 메이지 정부의 위세를 빌려서 조선에 압력을 가하였으나, 점차 가역을 외무성이 회수하게 되자 조 선에 호소하여 계속 자신들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게 됨. 동래부는 폐번치현과 청일수호조규의 소식을 신속하게 조정에 알리고 있으며 이러한 서한은 즉시 접수하고 있음. 1872년 하나부사가 왜관에 와서 전통적 외교 관계를 일방적으 로 부정하고 대마도인들 귀국조치시켰으며 (업무 방해로) 재판에 회부함.

- ③ 하나부사는 조선이 준 도서를 날인한 노인을 소지한 배와 함께 왔으며 조선의 규칙을 준수하여 문정에 응하고 있음. 이를 ‘왜관점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류임. 이후에도 왜관에 들어오는 배는 모두 도서를 날인한 노인을 소지(단 전부 비선 노인)
- ④ 왜관은 평소 500명이 거주하였으나 이후 70여명으로 축소되어 가까스로 명맥만 유지하는 모습을 보임. 동래부는 계속하여 선창을 수리하고 왜관을 관리하고 있음. 일본 외무성은 표류민을 송환하고 있으나 조선은 서계가 없으므로 접대할 수 없다고 하여 무상 송환이 계속됨. 긴장 속에서도 우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 ⑤ 세건선 무역은 종언을 고했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 조선은 구리를 수입하고 있음. 다만 공목과 공작미가 누적되어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공작미가 부패가 심함. →조약을 맺고 무역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됨.

중국교과서를 통해 본 중국근대사

• 김지훈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

중국교과서를 통해 본 중국근대사

김지훈 (성균관대 동아시아사연구소)

1. 현대 중국의 역사교과서 편찬

1)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한 교과서 편찬

- (1)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1970년대까지 소련식의 『역사교학대강』 교과서가 사용되었다.
- (2)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한 한 종류의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출판된 교과서가 전국에 공급되었다.
- (3) 1950년 중국교육부 산하에 설립된 인민교육출판사가 모든 초중고 교과서를 전국에 독점하여 공급하는 체제였다.
- (4) 일선 학교에서 신화서점을 통하여 교과서를 주문하고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지방 인쇄소에 필름이나 동판을 제공하여 인쇄하였다.
- (5) 내용상으로는 역사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 사이의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2). 1980년대-1990년대 역사교과서

- (1)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되면서 1980년대부터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교과서 편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 1985년 1월 중국의 국가교육위원회(현재의 교육부)는 초·중학교 교과서의 편찬과 심사를 분리하고, 인민교육출판사 이외의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의 교육위원회나 학교, 교사, 전문가들이 교과서의 편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전국 소·중학교교과서 심사위원회를 발족시켜 심사를 책임지게 하고, 심사를 마친 교과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천한 지역에서 미리 시범 사용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 (3) 1986년 9월 중국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 교사, 교육행정 간부 등 20명으로 구성된 전국 소·중학교교과서 심사위원회와 111명의 각 학과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각 학과교재심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소·중학교의 교과서를 국정제에서 검정(심사)제로 바꾸었다.
- (4) 1993년 9월까지 검정을 통과한 인민교육출판사판(6·4제와 5·4제) 교과서, 쓰촨성의 내지판, 광둥 성의 연해판, 북경사범대학판(5·4제) 등의 교과서는 전국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 시기 인민교육출판사의 교과서는 더 이상 “통편교과서(統編教材)”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70%의 점유율을 보였다.
- (5) 이후 40여 년 간의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교과서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 (6)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계급투쟁보다는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중화민족의 우수성 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21세기 『역사과정표준』 교과서

- (1) 1990년대부터 미국과 일본, 구미 등 해외의 교과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된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한 교과서 편찬에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한 교과서 편찬을 시작하였다.
- (2) 1999년 1월 교육부 기초교육사는 사범대학, 교과과정, 교육학, 심리학, 학교 교장 등 40여 명의 교육전문가들로 ‘기초교육과정개혁 전문가공작조’를 만들었다. 이들은 2년 반의 연구를 거쳐 『기초교육과정개혁강요(시행)』를 기초하여 2001년에 정식으로 반포하였다. 2001년 중학교 역사과정표준은 세 종류가 반포되었다.
 - ①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
 - ②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 과정표준 1』

- ③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 과정표준 2』
- (3) 2001년 반포된 중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라 전국 과정으로 8세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역사와 사회』 교과서 3세트가 편찬되었다.
- (4) 지방 과정 교과서로는 북경출판사의 역사교과서가 북경에서 사용되었고, 상해 지역에서는 화동사범대학출판사의 역사교과서가 사용되었다.

4)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실험과 배포

- (1) 2001년 9월 18개 학과의 각 학과의 과정표준에 따라 편찬된 49권의 실험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고, 전국의 38개 실험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 (2) 2002년에는 전국의 매 지구(地區)와 시(市)에서 적어도 1개의 실험구(500개)가 설치되었고, 2003년에는 전국의 1,642개 현시(縣市)의 3,500여 만명의 학생이 새로운 실험교과서를 사용하였다.
- (3) 2004년에는 2,576개 현구(縣區)에서 사용하여 전국의 90%를 차지함. 중국의 중학교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는 현재 모든 지역에서 사용중이다.
- (4) 고등학교 교과서는 2003년에 『역사과정표준』이 발표된 다음 해인 2004년 가을학기 부터(중국의 1학기) 하이난다오(海南島), 광둥(廣東), 닝샤(寧夏), 산둥(山東) 등 4개 성에서 새 교과서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광서 좡족 자치구 등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 현행 중국 역사교과 과정과 역사교과서의 특징

1)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 중학교 교과 과정

- (1) 중학교(초급중학교) 역사교과서는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중국사를 배우고 3학년에서 세계사를 배운다.
- (2) 과거 교과서에 비해 내용이 크게 줄어들고 암기보다는 학생들의 탐구를 강조하고 있다.

- (3) 이전의 교과서가 주제사 위주의 서술을 하였으나 새 교과서는 통사 형식의 서술을 하고 있다.
- (4) 중국사에서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입각한 중화민족이 강조됨
- (5) 세계사는 제3세계보다는 서구 중심의 서술이 강한 편이다.
- (6) 『역사와 사회』 교과서는 사회과 통합 교과서로 원래 정치와 역사, 지리를 포함하고 있었다.
- (7) 그러나 2011년 개정된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 과정표준』은 정치를 제외한 역사와 지리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2) 중국 교육부의 교과서 검정 강화

- (1) 교육부에 기초교육과정 교재공작 영도소조를 설립하였다.
- (2) 2010년 4월 14일 국가기초교육과정교재 전문가자문위원회와 국가기초교육과정교재 전문가공작위원회를 설립하여 검정을 강화하였다.
- (3) 국가기초교육과정교재 전문가공작위원회는 각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교육행정부문의 기초교육과정교재 관련 업무를 돕기 위해 조직되었다.

3) 『역사과정표준』 개정 공포

- (1) 2011년 12월 28일 새로운 19개 학과의 중학교 과정표준 공포하였다.
- (2) 중학교 역사과와 역사와 사회 교과과정도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과 『의무교육 역사와사회과정표준(義務教育歷史與社會課程標準)』으로 공포하였다.

4) 새 과정표준의 특징

- (1) 2011년판 『역사과정표준』은 주제사를 버리고 통사 형태로 구성하였다.
- (2)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이전의 주제사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통사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

- (3) 역사과정표준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강화하여 아인슈타인 등을 소개했던 것을 삭제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모범병사라고 하는 레이펑(雷鋒)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 (4) 2011년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 과정표준』은 2001년 『의무교육역사와 사회과정표준』이 1과 2의 두 개로 공포되었던 것과는 달리 하나의 과정표준으로 공포되었다.

3. 2016년 새로운 중학교 교과서 발간

▶ 2016년 1학기(가을 학기) 총 9종의 중학교 중국역사 교과서 발간

중국에서는 역사와 정치, 어문교과서 등을 단일교과서로 하자는 주장과 현행대로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출판하자는 의견이 몇 년 동안 대립하고 있었다. 후진타오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2016년 1학기(가을학기)부터 기존의 방식대로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검정되어 9종의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중국역사 부분의 교과서는 수정집필이 완료되어 기존의 인민교육출판사, 북경사범대학출판사, 화동사범대학출판사, 중국지도출판사, 사천교육출판사, 악록서사, 하북인민출판사, 중화서국 등 8개 출판사와 베이징 지역에서만 사용되던 북경출판사의 역사교과서가 추가되어 모두 9종의 역사교과서가 전국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보급되었다.

▶ 2017년 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중국 교육부는 2017년 1학기(가을학기)에 입학하는 중학교 신입생부터 역사와 어문, 정치 과목을 단일한 국정교과서(통편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교과서를 사용한 학생은 현행의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올해 신입생부터는 1종류의 단일 교과서(통편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방침은 그 동안의 개혁 개방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역사교육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중학교 중국역사 개정의 특징

- 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량 감소.

- ② 교과서의 내용 서술에서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교육 강화.
- ③ 영토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고대사에서도 해양영토 강조.
- ④ 중학교 교과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은 일부 지도 등을 제외하면 거의 언급이 없다.
- ⑤ 근대사 부분에서는 중국공산당의 방침에 따라 중일전쟁이 14년 항전이었다는 점과 중국이 전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에서 동방의 주전장이었다는 부분 등이 강조되고 있다.

4. 중국근대사 서술

2011년에 제정된 중국의 중학교 역사과정표준은 중국근대사에서 서술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 역사과정표준의 내용
- ▶ 임칙서와 虎門에서 아편소각. 『남경조약』
- ▶ 홍수전과 태평천국운동
- ▶ 2차 아편전쟁과 러시아의 북방 영토 점거
- ▶ 양무운동의 작용과 한계
- ▶ 청일전쟁(갑오중일전쟁)의 주요 전투. 『시모노세키조약』의 내용과 위기 심화
- ▶ 유신파와 백일유신
- ▶ 근대 민족공업의 곡절과 발전
- ▶ 의화단운동과 8개국 연합군의 침략. 『신축조약』의 내용
- ▶ 과거제 폐지와 근대 신식교육. 근대 신문출판사업의 발전
- ▶ 손중산과 중국의 민주혁명. 우창기와의 신해혁명
- ▶ 원세개의 독재와 복벽(復辟). 군벌시기의 혼란
- ▶ 신문화운동의 위치와 작용
- ▶ 사회풍습의 변화
- ▶ 5 4애국운동과 중국 신민주주의혁명
- ▶ 리다자오(李大釗)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파. 중국 공산당 성립의 역사적 의의
- ▶ 1차 국공합작과 북벌전쟁의 승리. 남경국민정부의 성립

- ▶ 남창기의와 중국공산당 혁명근거지
- ▶ 공산당의 장정과 홍군의 혁명영웅주의 정신. 준이회의(遵義會議)와 중국혁명사상의 위치
- ▶ 9 18사변. 서안사변과 그 의의
- ▶ 7 7사변과 2차 국공합작
- ▶ 난징대학살과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 ▶ 항일전쟁
- ▶ 중국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 일본의 항복. 항일전쟁 승리 원인.
- ▶ 중경담판과 내전의 발발
- ▶ 3대전역과 난징해방
- ▶ 해방구의 토지개혁. 국민당정권 패망과 인민해방전쟁 승리 요인
- ▶ 노신, 모순, 제백석, 서비홍, 섭이, 승성해 등의 업적
- ▶ 2017년 중국 인민교육출판사 중학교 「중국역사」의 중국근대사 서술

제1단원

중국이 반식민지반봉건사회로 빠져들기 시작하다

제1과 아편전쟁

제2과 제2차 아편전쟁

제3과 태평천국운동

- ▶ 아편전쟁 과정에서 광범한 민중(인민)과 일부 애국적 관료와 군인은 용감하게 항전하였으나 청왕조의 대다수 통치하는 우매하여 안으로는 민중을 적대시하고 대외적으로 타협하고 투항하였다. 경제적으로 낙후하여 구식의 칼과 창, 활, 화승총 등으로 영국군의 신식 소총과 대포를 당할 수 없어서 패전했다.
- ▶ 1842년 8월 청정부는 중국 근대사상 처음으로 굴욕적인 불평등조약인 중영 난징조약을 체결하였다. 광저우, 푸저우, 샤먼, Ningbo, 상하이 등 5개 통상항을 개항하고 홍콩 섬을 할양하였으며, 2100만 에스파냐 달러를 배상하였다.
- ▶ 아편전쟁으로 중국은 완전한 독립적 주권을 상실하였고 경제가 파괴되면서 반식민지 반봉건사회가 되었다. 아편전쟁은 중국근대사의 시작이었다.
- ▶ 태평천국봉기는 중국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농민전쟁이었으나 농민계급의 한계성으로 태평천국은 혁명강령을 제출할 수 없었고, 지도집단의 부패를 극복하지 못하여 오

랫동안 단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14년 동안 투쟁을 견지하여 청왕조의 통치와 외국 침략세력에 깊은 타격을 주었다.

제2단원

근대화의 초기 탐색과 민족 위기의 심화

제4과 양무운동

제5과 갑오중일전쟁과 중국을 분할하려는 광풍

제6과 무술변법

제7과 8개국 연합군에 대한 저항과 반격

양무운동

- ▶ 1860년대부터 1890년대 중반까지 “자강(自強)”과 “구부(救富)”를 지향한 양무운동이 전개됨.
- ▶ 양무운동은 중국 역사상 첫 번째 근대화운동으로 30여 년의 건설로 근대적 군사공업, 민수공업, 교통운수업 등이 점차 발전하여 중국민족자보누의의 탄생을 촉진시켰고 외국자본의 침입을 일정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양무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청정부의 통치를 보호하고 공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부의 부패와 외국 세력의 압박으로 중국을 부강하게 할 수 없었다.

청일전쟁(갑오중일전쟁)

- ▶ 1894년 조선에서 “동학당” 봉기가 발생하자 조선국왕이 청정부에 출병을 요청하여 청군이 출병하였으나 일본군이 풍도에서 청나라를 공격하였고,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황해해전에서 청군이 용감하게 싸웠으나 패배하였고 일본군이 다렌과 뤼순을 점령하고 2만 여 명을 학살하였다. 1895년 일본군이 산둥의 웨이하이를 공격하였고, 청군이 투항을 거부하고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 ▶ 1895년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은 청정부가 요동반도와 대만, 팽호열도를 일본에게 할양하고 2억량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등 중국의 반식민지화를 심화시켰다.

무술변법

- ▶ 1898년 Kangyuei와 량치차오 등이 광서제와 함께 개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자희태후(서태후) 등 수구세력의 이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자희태후가 정변을 일으켜 광서제

를 감금하고 개혁파를 제거하였다. 무술변법은 실패하였지만 사상문화면에서 광범하고 깊은 영향을 남겼다.

의화단운동

- ▶ 의화단은 산둥성과 직예성 일대의 의화권과 민간 비밀결사, 무술 수련 조직에서 발전한 것이다. 의화단은 서구 열강의 침략에 반발하여 세력을 확대하였고 1900년 여름 베이징과 톈진 등을 장악하였다. 의화단운동이 발전하자 열강은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하였다. 1901년 청정부와 열강은 신축조약을 체결하였다. 청정부는 4억 5천만량의 배상금을 열강에 지불하고 청정부의 관세와 염세를 담보로 했다. 청정부는 반제국주의운동에 중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단속하고 대고포대를 철거하였다.
- ▶ 의화단의 활동을 평가하면서도 의화단이 주문을 외우면 총과 포탄을 막을 수 있다거나 신내림을 한다는 등 미신적인 측면이 있었고 청정부의 본질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제3단원

부르주아계급민주혁명과 중화민국의 건립

제8과 혁명 선구자 손중산

제9과 신해혁명

제10과 중화민국의 창건

제11과 북양정부의 암흑통치

- ▶ 민주혁명의 선구자 손중산은 혁명으로 청정부를 타도하고 공화국을 건립하려 하였다. 손중산 등은 혁명사상을 광범하게 전파하였고, 혁명 단체들도 출현하였으며, 중국 각지에서 혁명활동이 전개되었다. 민주혁명은 점차 저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 ▶ 1911년 신해혁명은 청왕조의 통치를 타도하고 중국에서 2000여 년 동안 지속된 군주전제제도를 종결시키고 중화민국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신해혁명 승리의 과실은 위안스카이가 차지하였다. 위안스카이가 총통이 된 후 북양군벌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는 민주공화제를 파괴하고 복벽하여 황제가 되려 하였다.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이 시도는 좌절되었다. 위안스카이가 죽은 후 중국은 군벌들이 할거하는 상황이 되었다.

- ▶ 쑨원의 혁명활동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등 삼민주의 사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4단원

신시대의 서광

제12과 신문화운동

제13과 5·4운동

제14과 중국공산당의 탄생

- ▶ 북양군벌의 통치 아래 혼란한 정치정세 속에서 일부 선진적인 지식인이 신문화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위기를 구하려 하였다. 그들이 일으킨 신문화운동은 사상의 해방을 이 끌었다.
- ▶ 1919년 중국은 파리 베르사이유강화회의가 실패하자 철저한 반제 애국운동인 5·4운동이 일어났다. 노동자계급의 강한 역량이 나타났고, 마르크스주의가 전파되었으며, 공산당의 초기 조직이 건립되었다. 1921년 7월 중국공산당이 탄생하여 중국 혁명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 ▶ 민주주의와 과학을 전면에 내세운 신문화운동이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문화운동과 5·4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초보적 지식을 지닌 지식인들이었다는 점과 5·4운동이 중국 신민주주의혁명의 시작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 아울러 중국공산당의 창당과정과 그 의의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코민테른이 중국공산당의 창당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하고 있지 않다.

제5단원

국공합작에서 국공대치로

제15과 북벌전쟁

제16과 모택동의 정강산의 길 개척

제17과 중국공농홍군의 장정

- ▶ 1924년 중국공산당은 중국국민당과 합작을 하여 반제반봉건의 국민혁명을 전개하였는데 “대혁명”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국민당 우파는 혁명을 배반하였고, 제1차 국공합작도 종결되었으며 국민혁명도 실패하였다.

- ▶ 중국공산당은 일련의 무장봉기를 일으켜 국민당의 통치에 반항하였다. 마오쩌둥 등은 농촌에 혁명근거지를 창건하여 “공농무장할거”의 국면을 열어 토지혁명을 전개하는 등 중국혁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1934년 국민당군대의 “포위토벌”에 직면하여 홍군은 전략적으로 이동을 하는 “장정”을 실시하여 성공하였으며, 중국혁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였다.
- ▶ 제1차 국공합작과 국민혁명의 전개, 국공합작이 종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공분열 이후 중국공산당이 농촌을 중심으로 혁명근거지를 건립하고 공산당의 군대인 홍군을 건설하였다는 점과 공산당의 “장정”, 마오쩌둥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6단원

중화민족의 항일전쟁

제18과 9·18사변에서 서안사변까지

제19과 7·7사변과 전민족 항전

제20과 정면 전장의 항전

제21과 적후 전장의 항전

제22과 항일전쟁의 승리

- ▶ 1931년 일본은 9·18사변을 일으켜 부분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는 전쟁을 야기하였으며, 중화민족은 엄중한 민족적 위기를 맞이하였다. 민족의 위기가 나날이 심해지는 위급한 시기에 중국공산당은 항일구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적에 반대하는 역사의 중임을 담당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건립하지는 주장을 하였다. 각계 각층이 함께 노력하여 시안사변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초보적인 항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였다. 1937년 7월 일본은 전면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고, 중국의 전민족 항전이 시작되었다. 국공 양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실현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이 정식으로 건립되었다.
- ▶ 정면전장에서 중국군대는 여러 차례 전투를 하여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였다. 적후전장에서 중국공산당은 대중을 동원하여 항일근거지를 건립하였으며, 인민유격전쟁을 전개하였다. 정면전장과 적후전장이 서로 융합하여 협동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모두 항전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전민족이 단결하여 항전하는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전장은 전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에서 동방의 주전장

이었다. 중국인민과 세계 반파시스트 세력의 반격으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였다. 9월 2일 일본은 정식으로 항복문서에 서명하였다. 14년 동안의 항전을 거쳐서 중국인민은 항일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였다.

- ▶ 중국에서 항일전쟁의 시작을 1931년 9·18사변으로 보는 입장과 1937년 7·7사변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데 올해부터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모두 14년 전쟁으로 서술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이 중일전쟁 14년 설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중일전쟁이 전 세계 반파시즘전쟁의 일부이면서 동방 지역의 주전장이었다는 중국공산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중국이 일본 파시즘 세력과 14년 동안 싸웠고 아시아 지역의 반파시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제7단원

해방전쟁

제23과 내전 발발

제24과 인민해방전쟁의 승리

- ▶ 항일전쟁 승리 후 사람들은 평화적인 국가 건설을 기대하였다. 중국공산당은 평화와 민주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국민당은 독재통치를 지속하였고 1946년 전면적인 내전을 일으켰다.
- ▶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해방구의 군대와 민중은 중국국민당의 전면적인 공격을 분쇄하고 전략적 반격을 하여 3차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1949년 4월 인민해방군이 난징을 점령하여 중국국민당의 대륙통치를 종결시켰다. 해방군은 전국으로 진군하여 인민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제8단원

근대경제, 사회생활과 교육문화사업의 발전

제25과 경제와 사회생활의 변화

제26과 교육문화사업의 발전

제27과 활동과 : 근대 역사유적 고찰

- ▶ 청나라 말기부터 중화민국시기까지 외국의 문화의 충격으로 중국의 경제와 사회생활, 교육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 ▶ 민족자본주의가 발생하였고, 민족공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발전하였다. 서방의 문화와 물건들이 중국에 들어와 중국인의 생활방식과 생산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근대교육과 신문출판업은 크게 발전하였다. 문예창작 등에서도 우수한 작품들이 출현하였다.

부록

중국근현대사 연표(상)

동아시아 시각으로 접근하는 역사 수업

• 윤세병 (유성생명과학고) •

동아시아 시각으로 접근하는 역사 수업

윤세병 (유성생명과학고)

1. 위만은 언제, 왜 고조선으로 건너 왔을까?

“중국의 진한 교체기에는 위만이 중국 연에서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고조선의 준왕은 위만에게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겼다. 이후 위만은 세력을 키워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 고조선이 강성해지고 흉노와 연결하여 한을 압박하자 한 무제는 대군을 보내 고조선을 공격하였다. 고조선은 패수에서 대승을 거두는 등 1년여 동안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지배층에서 내분이 일어나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기원전 108)”(비상교육 한국사, 22쪽)

오랜 동안 관습적으로 지속되어 온 한국사 교과서의 진술이다. 중국의 정세 변동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 중국이 상황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함에도 부정확한 진술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지식과도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다.

위만의 고조선 이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말의 상황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황제 사후 진승·오광의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항우와 유방이 두각을 나타낸 가운데 각각 초와 한을 세우고 각축 끝에 승리한 한이 새로운 통일왕조로 등장하였다. 한고조는 수도와 그 주변 지방은 황제 직할의 군현제를 실시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은 일족과 공신을 제후 왕으로 봉하고 그들에게 통치를 위임함으로써 군현제와 봉건제가 혼합된 군국제를 실시하였다. 한 초에 정국이 안정되자 한 고조는 반란 혐의를 씌워 제후 왕을 제거해 나갔고 최종적인 마무리는 한 무제 시기에 이루어졌다. 제후 왕이 초기에 누렸던 정치 권력이 상실되면서 군국제는 군현제로 재편되었고 황제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중앙집권국

가가 형성되었다. 한 무제는 강력한 국가 권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북으로 흉노를 정벌하고 서쪽으로 비단길을 개척하였으며, 남으로는 남비엣 그리고 동으로는 고조선을 복속시켜 각각 9군과 4군을 설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 고조는 군국제를 실시하였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연은 전국시대의 연이 아니라 군국제 시기의 연을 말한다. 개국 공신이었던 노관이 봉해진 지역으로 전국시대의 연이 들어섰던 지역이다. 사기에 “노관은 풍 땅 사람으로 고조와 같은 마을에 살았다. 노관의 아버지는 고조의 태상항과 서로 친하였다. 그가 아들을 낳아 고조와 노관이 같은 날에 태어나게 되자 마을 사람들이 양고기와 술을 가지고 와서 두 집의 경사를 축하하였다. 고조와 노관은 장성한 뒤에는 함께 글도 배우고, 서로 친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두 집안이 서로 친하며 아들도 같은 날에 낳은 데다 그들이 자라서도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아름답게 여겨, 다시 두 집에 양고기와 술을 가지고 와서 축하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어릴 적부터 아주 각별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고조가 봉기할 때 노관도 함께 참여하여 군공을 세웠다. 그 결과 고조는 “노관을 세워 연왕으로 삼았다. 제후나 왕들 가운데 연왕만큼 총애를 받는 사람도 없었다.” 고조의 노관에 대한 신뢰가 상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토사구팽의 정국이 전개되면서 그 여파는 노관에게도 미쳤다. 노관은 자신을 의심하던 고조를 찾아가려 하였으나, 고조가 사망하자 “노관은 자기 무리들을 거느리고 도망쳐 흉노 땅으로 갔다. 흉노는 그를 동호의 노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다른 오랑캐들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하게 되자, 노관은 늘 한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하였다. 그렇게 한 해 남짓 지내다가 그는 오랑캐 땅에서 죽었다.” 의심을 받던 노관이 흉노로 도망쳐 그곳에서 사망한 것이다.

연왕 노관이 흉노로 도망치는 상황에서, 그 아래에 있던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을 한 것이다. 여기서 위만이 고조선으로 넘어온 시점은 진한 교체의 혼란기가 아니라 한 초의 상황이며, 한의 황실이 제후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치적 망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후들을 제압된 상황에서 동아시아는 북쪽의 흉노, 중원의 한, 동쪽의 고조선, 남쪽의 남비엣이라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의 무제는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 전쟁을 전개하였다. 교과서의 진술을 수정함과 동시에 고조선의 역사 전개를 동아시아의 상황과 연결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세계사의 군국제와 군현제, 한무제의 대외 정책을 한국사와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라의 삼국통일 당시의 국제 정세는?

“당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고, 신라의 금성에도 계림도독부를 두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 부흥 운동을 지원하여 고구려 유민을 포섭하는 한편, 사비에 주둔하고 있던 당군을 몰아내었다. 이어 매소성 싸움에서 당을 크게 격파하여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기벌포 싸움에서도 당의 수군에 대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신라는 대동강 이남 지역에서 당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비상교육 한국사, 43쪽)

삼국 통일 전쟁에 대한 진술이 삼국과 당의 관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한된 인식을 가져오기 십상이다. 삼국 통일의 과정을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위의 진술에서 나오는 매소성 싸움과 기벌포 싸움은 서역의 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략 670년을 전환점으로 신라가 당에 공세를 취한 것은 국제 정세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보인다.

동아시아 국제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왜의 지원으로 전개된 백강 전투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백제가 멸망하자 나당 연합군이 바다 건너 왜를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졌다. 이런 위기 의식이 오랜 세월을 걸쳐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 온 백제를 도와야 한다는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왜의 왕권은 한반도 출병을 결심했다. 한편으로는 대외적 위기를 이용하여 내부 소요를 잠재우고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계산도 있었다. 그러나 4만여명의 병력과 400여 척의 병선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 작전이 실패로 끝나자 왜의 왕권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신라가 한반도에서 당을 밀어내기 위해 벌인 나당 전쟁은 서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티베트 고원에까지 전운을 몰고 왔다. 7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당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집중되자,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해진 티베트 고원 일대에서 여러 부족이 반란을 일으키며 당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사실 660년부터 당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집중되면서 빈틈이 생긴 서역에서는 곧바로 당에 맞서기 시작하였다. 660년에는 천산 지역에 있던 서돌궐의 여러 부족이 반기를 들었고, 661년에는 철륵이 서역에서 당에 도전하였다. 다급해진 당은 662년에 한반도에서 군대를 빼내 설인귀 등을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역은 당의 통제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는데, 그 중심은 토번이었다. 토번은 당의 지배를 받던 토욕혼을 침략하였다. 당은 토욕혼의 원군 요청을 받았으나 한반도의 군대를 바로 이동시키지 못했고, 토욕혼은 결국 663년에 멸망했다. 당은 설인귀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토번을 정복하려 했으나, 토번은 오히려 당의 대군을 괴멸시키고 타림 분지의 오아시스 도시들까지 장악하였다. 이렇게 서역에서의 전황이 급박해지자 당의 주력군은 서역으로 이동시켰고, 신라와 고구려 유민들은 대당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670년 안도 도호부를 랴오둥 지역으로 옮긴 뒤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축소된 당은 서역의 위기를 수습하고 다시 반격에 나섰다. 671년 당은 랴오둥의 안시성에서 고구려 유민들을 격파하고 한반도로 진공을 시작하였다. 672년 7월에 고간은 1만 군사를, 이근행은 3만 거란병을 거느리고 평양으로 진군하였으며, 계속 남하하여 황해도 일대에서 고구려 유민과 신라 구원군을 패배시켰다. 당군에 밀리던 고구려 유민들은 673년 5월에 호로하에서 이근행의 말갈군과 마지막 결전을 벌였으나 패배하고, 결국 신라로 남하하였다. 670년에 검모잠이 고구려국을 재건한 뒤 4년 동안 지속되었던 고구려 유민의 항쟁은 그렇게 끝이 났다.

674년 이후 한반도 북부 지역이 일시적으로 평온을 되찾자 당은 랴오둥으로 옮겨 갔던 안도도호부를 다시 평양 일대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신라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여 675년 2월에 유인귀가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이후 당의 공세는 더 거세어졌으나, 오히려 신라군에게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신라는 한반도에 주둔하던 당의 대군이 티베트 지역으로 향하면서 생긴 틈을 노리고 당이 옛 백제 지역 지역에 세운 웅진도독부를 공격하였다. 이때 당은 궁지에 몰린 웅진도독부를 도울 여력이 없었다. 신라군은 당의 지배를 받던 말갈의 20만 대군과 싸워 매소성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다음 해에는 기벌포 전투에서 설인귀가 거느린 수군마저 격파하여 당의 침략을 물리쳤다. 당은 대규모 신라 원정 계획을 세웠으나 한 차례 물러났던 토번이 다시 타림 분지의 오아시스 지역을 공격해오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삼국 통일 전쟁은 당이 660~670년 초반까지 한반도에 군사력을 집중한 결과 서역과 북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토번의 성장, 돌궐의 재등장을 초래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60년 이후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랴오둥을 제압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지만 이 지역에서 장기간 군사행동을 지속함으로써 북방과 서역에서는 오히려 통제력을 잃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북방과 서역의 동요는 다시 동북방

에 영향을 주었으니, 696년 동북방에서 일어난 이진충의 반란을 계기로 말갈과 고구려 유민이 독립하여 698년에 발해가 건국되었다.

결국 삼국 통일전쟁은 한반도에서의 정세가 일본, 서역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 집중은 서역에서의 여러 세력이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동북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발해의 건국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삼국통일 전쟁은 단순히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발해의 성립까지 시간을 연장시켜 보고 공간 역시 한반도, 중국, 일본, 서역을 함께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

3. 동아시아의 바다를 뒤흔든 왜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14세기 후반에는 흥건적과 왜구가 고려에 침입하여 국독가 황폐해졌다. 이러한 외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다. … 고려 말부터 계속된 왜구의 침략으로 폐해가 심해지자 조선은 수군을 강화하고 화약 무기를 개발하여 왜구를 격퇴하는데 힘썼다. 조선은 대마도주에게 왜구 근절의 책임을 지우는 한편, 조선과 무역하려는 일본인에 대한 통제권을 주었다. 그러나 왜구의 침략이 끊이지 않고, 약탈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조선 정부는 이종무에게 명하여 대마도를 토벌하고 일본과의 교역을 중단하였다. 이후 일본이 다시 교역을 요청하자 …”(비상교육 한국사, 82쪽, 144쪽)

왜구란 무리를 지어 약탈 행위를 하는 일본인들이란 의미이다. 우리에게는 흔히 14세기 중엽에서 15세기 초반에 이르는 즉,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한반도와 중국 연해에서 노략질을 하던 일본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고려 말에 등장한 왜구는 규모와 활동 방식이 이전 시기의 왜구와 달랐다. 규모는 수천 명에 이르기도 하였고 최소 20여 척에서 최다 500 여척의 선박을 동원하였다. 처음에는 주로 고려의 해안을 약탈하였으나 내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다. 1350~1391년에 고려에 591회나 침략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곡물을 운반하는 조운선이나 수도로 보낼 곡물을 보관하던 창고가 약탈당하였다. 또한 왜구는 재물을 약탈한 후 불을 지르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 왜구의 빈번한 침략으로 농경지는 황폐해졌고 유랑하는 농

민들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심각해졌다. 결국 고려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관료들의 봉급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다.

왜구는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황해를 건너 산둥 반도를 약탈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에서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해안을 습격하는 무리도 있었다. 고려와 마찬가지로 왜구의 침략을 받는 처지에 놓인 명은 고려에 왜구를 근절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왜구 정벌을 빌미로 명이 고려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돌기도 하였다. 왜구 문제가 고려와 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변진 것이다.

왜구가 활개를 쳤던 데는 일본이 남북조의 혼란기였다는 점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천황가가 남조와 북조 양편으로 나뉘어 싸웠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 무사들도 두 편으로 나뉘어 다투었다. 일본 서부 해안 지역의 무사 세력, 영세 농어민, 몰락한 하급 무사 등이 해적이 되어 한반도 연안과 중국 해안 지역에 출몰하였던 것이다.

왜구 문제로 고려 조정은 여러 차례 외교 사절을 일본에 파견하여 왜구 단속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막부는 해적들의 소행을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북조의 내란으로 중앙의 통제력이 지방에까지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외교 교섭으로 왜구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고려는 군사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였다. 수군을 늘리고 전함을 건조하였으며 화약 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군사력이 증대되자 왜구 토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몇 차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진포 해전에서는 최무선 등이 이끄는 고려 수군이 화포로 무장하고 금강 하구인 진포에서 왜구가 이끌고 온 대규모의 선박을 격파하였다. 진포에서 살아남은 왜구는 앞서 상륙했던 주력 부대와 결합하였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대 일대를 전전하며 약탈하였다. 이들을 이성계가 전북 남원의 황산에서 크게 무찔렀다. 왜구를 토벌하면서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세력들이 성장하였고, 이는 조선 왕조 성립의 한 배경이 되었다.

한편 명은 왜구에 맞서 해안 방어를 강화하고 민간인들의 해상 교통을 전면 금지하였다. 남북조의 내란이 종식되자 명과의 무역을 원했던 막부는 왜구를 단속하면서 명에 사신을 보내 무역을 요청하였다. 명은 일본과의 교역을 허용하면서 막부에 왜구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북조의 분열이 끝난 후 일본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막부는 명의 요구에 따라 왜구 단속을 강화하였다. 막부의 힘에 밀려 결국 왜구는 자취를 감추었다.

한동안 조종했던 왜구는 16세기 중반에 다시 기승을 부렸다. 주로 명의 동남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4~15세기의 왜구를 전구 왜구라 한다면 이 시기의 왜구를 후기 왜구라 부르기도 한다.

16세기에 활동한 왜구의 경우에는 명과 일본 사이의 밀무역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일본의 선박이 드나들던 명의 항구 영파에서 명과의 무역 관리권을 둘러싸고 일본 영주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 다툼에서 패배한 측이 영파 인근 지역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자, 명은 이를 계기로 일본과의 무역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사무역을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그 여파로 일본은 중국산 도자기나 비단 등을 얻기 어려워졌고, 중국에서도 일본산 은, 구리 등을 충분히 구하기가 힘들었다. 무역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약탈이 행해지거나 밀무역이 성행하였다. 특히 은의 경우 명에서는 상공업이 발전하고 세금 징수나 화폐의 용도로 은이 사용되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였다. 일본에서는 많은 양의 은이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 은으로 중국의 물품을 구입해 오길 원하였다. 이런 물품의 거래는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왜구에 가담하여 밀무역을 전개하는 한편 중국 동남연안 지역에 대한 약탈로 명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진짜 왜구는 2~3이고 가짜 왜구가 7~8이다”라고 할 정도로 왜구와 결탁한 중국인이 많았다. 이들 중국인 가운데는 생계가 곤란하여 해적 활동에 가담한 농민이나 어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명은 관리를 파견하여 연해를 더욱더 엄격히 단속하고 밀무역의 거점을 대대적으로 소탕하였다. 그러나 밀무역으로 이익을 얻고 있던 지방의 유력자들이 부패한 지방관과 결탁함으로써 왜구는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강경한 탄압으로 밀무역이 힘들어지자 오히려 지방 유력자와 상인들이 중앙 정부를 움직여 왜구를 단속하던 관리를 몰아내기도 하였다. 대상인이었던 왕직은 단속을 피해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일본인을 끌어 들여 격렬한 약탈 무역을 전개하였다. 명 조정은 다시 대대적인 토벌작전으로 왜구를 섬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밀무역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상인들의 해외 무역을 허용하였다. 해외 무역이 재개되면서 왜구는 차츰 쇠퇴하였다.

한편 분청사기의 등장을 왜구와 연결시켜 설명하기도 한다.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해안가에 주로 위치해 있던 가마가 문을 닫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고려 정부는 그다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마를 잃은 도공들은 각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던 중소 지주층인 신진 사대부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금 그릇을 굽게 되었다. 새로운 그릇은 태토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었으나 유약에 청색이 부족하여 문양이 살아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기에 백토로 분장하게 되면서 분청사기가 구워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새로운 나라 구상은?

‘신민주주의’는 1940년 이래 마오쩌퉁에 의해 체계화되었지만 중국 내외의 여러 세력들도 거의 동시에 그와 유사한 건국 구상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것은 해방 직후 동유럽에서 유래된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 한반도에도 유입되었다. 백남운이 1946년 4월 『서울신문』에 신민주주의 건국 구상을 연재하고 2년 뒤 월북해서는 이를 인민민주주의로 바꿔 부른 것이 그 예이다. 이 사상이 광범위하게 공유된 것은 외래 사상의 단순한 전파가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민주운동 세력이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필요와 농민 사회 현실의 조건을 고려하여 비자본주의적 발전을 전망하면서 수용된 결과였다.

신민주주의 정치는 민족민주운동에 참여해 온 여러 세력들이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연합 정부로 구체화되었다. 8.15해방 당시 각국의 상황은 무산 계급 독재의 사회주의와 유산계급 독재의 자본주의적 체제를 수립하려는 소수의 정치세력을 양극단으로 하고 그 사이에 위치한 좌우합작의 중도 세력이 인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형국이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1945년 8월 일본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전후 각지에서 인민위원회를 건립하여 사실상의 지방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들의 노선은 곧 귀국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선과 대동소이하였다. 베트남에서는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세력이 8월 혁명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들은 식민지에서 외부의 지원 없이 수립된 최초의 독립국가였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을 방어할 자체의 군사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지만 각 정파와 사회단체가 인민권력의 주체로서 두루 참여한 사실상의 연합정부였다.

그러나 냉전이 격화되면서 이들 신생국은 미소와 프랑스에 의해 부인되었다. 그에 대한 양국의 반응은 크게 달랐다. 조선인민공화국이 저항 없이 해체된 데 비해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자체의 무장 부대를 배경으로 저항 전쟁을 벌이면서 남북을 대표하는 정통성을 유지하여 끝까지 살아남았다. 1936년 이래 장기간 연합전선(반파쇼민주연합전선, 반제민족연합전선)의 경험을 가진 식민지 시기 민족운동의 유산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2차대전 이전 한국, 중국,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민주공화국 수립을 당면한 건국 목표로 삼았는데, 북한과 중국이 그 지지 기반을 좁혀 인민공화국으로 바꾼 것과 달리 베트남은 민주공화국을 견지한 것이다.

중국에서도 중국민주동맹 같은 중도 정치 세력이 한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런 여론이 반영되어 1946년 1월 각 당파와 각계대표로 구성된 정치협상회의가 국민당 일당 정부를 즉시 개조해 각당 인사를 수용한 임시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그 주도하에 국민대회를 소집해 헌법 제정과 정식 연합정부 수립을 완료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국민당 완고파는 이를 무시하고 6월말 전면내전을 발동하였다. 1948년말 국민당 일당 치하의 상하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는 공산당이당 정부지지 3.7%, 국민당 일당 정부지지 16%, 좌우합작의 연합정부지지 72%로 나타났다. 국민당이든 공산당이든 일당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했던 것이다.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1949년 9월 그 주도하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일당 정부가 아니라 연합정부 형태로 출범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여론때문이었다. 당시 국회 기능을 대신한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선거가 아니라 각 대표의 협상에 의해 의석을 배분하였다. 1949년 9월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부주석 6명 중 3명, 정부위원 56명 중 29명 등 중앙정부 지도자의 약 50%가 비공산계였다. 1953년 비로소 선거를 거쳐 지방인민대표가 선출되고 그들의 간선에 의해 전국인민대표가 선출되었는데, 지역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방선거에서 공산당이 54.5%, 민주동맹 등 각당파가 45.5%를 차지하였다. 토지개혁이 완료된 직후의 시점임을 고려하면 공산당 지지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도 지방 선거에서 공산당 지지가 북한 인민의 노동당 지지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차이는 눈에 띈다.

연합정부란 처음부터 공산당이 여타의 정치세력을 회유하기 위해 내놓은 이시적 책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던 바였다. 다만 공산당이 당군이라는 군사력을 독점한 조건에서 ‘공산당의 지도는 항상 정확하다’는 전제가 작동하는 한, 정권에 참여한 각 당파의 상호견제로 균형이 잡히리라는 기대는 채워지기 어려웠다. 냉전과 열전은 그런 공산당의 독주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은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개시하였고 그 결과 1957년 전후 비공산계 각료가 모두 퇴출되어 연합정부는 공산당 일당정부로 변질되었다.

위와 같은 상호 연관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연합정부 성격을 더 잘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의 주객관적 조건을 헤아려 당 안팎에서 대립하는 각 세력의 상호연합을 이끈 주역 호치민의 지혜와역량 덕분이다. 그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국내외의 적대 세력과 부드러운 타협을 하곤 했는데, 그것은 날카로운 정세분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받은 레닌이고 받은 간디’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신민주주의 정치가 연합정부라면 신민주주의 경제는 혼합경제다. 그것은 국가 소유, 개인 소유, 협동조합 소유의 3중 소유를 병행 발전시켜 생산력을 충분히 끌어올리되 다만 부르주아의 주도권을 배제한다. 국유화 대상은 제국주의자와 민족반역자의 기업, 토지, 국가 기간 산업에 한정되며 농민의 토지 소유와 개인의 중소 상공업은 보호되고 육성된다. 상공업 분야에서 사영 상공업이 생산력 증대에 유익하다고 보아 보호된 것과 달리 농업 분야에서 지주제는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봉건제의 화신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부정되었다. 그것은 토지 개혁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1946년 3월부터 지주제를 해체하고 부농의 존재와 그 생산물의 시장판매를 인정하는 개혁 법령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상공업 방면에서도 이런 신민주주의 정책은 당연히 적용되었고 사영 상공업이 인정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혼합경제의 제도화를 위한 개혁이 추진되었다. 사영 상공업이 보호되는 가운데 토지개혁이 진행되었다. 1946년 국공내전이 발동되면서 공산당은 1947년 7월부터 급진적 개혁으로 대응하였다. 이때부터 토지개혁은 모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평균 분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는 내전의 추이를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어 1953년에 완료되었다. 그 결과 지주제가 해체되고 부농을 포함한 경작 농민의 소유권이 확립되었다.

북한과 중국의 토지 개혁은 남한, 일본, 타이완 등 자본주의 진영의 농지 개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중국의 토지 개혁은 북베트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민주주의 경제 구상은 원리상 사영 상공업을 보호하고 부농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었고 시행과정에 복잡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부농과 중소 상공업자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허용하여 생산력을 높인다는 경제적 필요와 부르주아의 주도권을 배제한다는 정치적 필요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가 그 핵심문제다. 토지 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 조치로 지주와 부르주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근절되었지만 시장 경제를 용인하는 순간 이윽고 빈부 격차와 새로운 지주, 부르주아의 등장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MEMO

MEMO

MEMO

MEMO